

3. 부문별 계획

- 3.1. 토지이용계획
- 3.2. 기반시설계획
- 3.3. 도심 및 주거환경
- 3.4. 환경의 보전과 관리
- 3.5. 경관 및 미관
- 3.6. 공원 · 녹지
- 3.7. 방재 및 안전
- 3.8. 경제 · 산업
- 3.9. 사회 · 문화
- 3.10. 계획의 실행

3.1. 토지이용계획

3.1.1. 현황분석

가. 토지이용현황

❖ 용도별 시가화율

- 기정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2,750천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시가화율은 213.6km²으로 주거 142.7km², 상업 19.8km², 공업 51.1km²로 계획하였음
- 2015년말 인구가 2,488천인으로 기정 도시기본계획에서 2015년 계획인구(2,703천인)의 92.05%를 달성한 반면, 시가화율은 91.22%를 달성하였음
- 용지별 달성률은 주거용지는 91.67%, 상업용지는 92.25%, 공업용지는 89.48%를 달성하였음

[표 3-1-1] 기정계획 용지별 달성률

(단위 : 천인, km², %)

구 분	현 황 ¹⁾ (A)	도시기본계획		달 성 률 (A/B)	비 고
		목표연도 ²⁾	2단계 (B) ³⁾		
인 구	2,488	2,750	2,703	92.05	
합 계	180.200	213.600	197.545	91.22	
시가화 용 지	주거용지	121.064	142.700	91.67	
	상업용지	18.261	19.800	92.25	
	공업용지	40.875	51.100	89.48	

주1) 현황 : 2015년 말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

주2) 목표연도 : 기정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계획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임

주3) 2단계 : 기정 도시기본계획 2011~2015년 계획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임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임야가 53.9%인 475.1km²를 차지하며, 대지가 86.0km²로 9.7%를 차지하며, 답이 78.4km²로 8.9%를 차지하고 있음
- 개발에 있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하천, 공원 등의 면적은 88.5km²로 전체 면적의 10.0%를 차지함

[표 3-1-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km², %)

구 분	합 계	임 야	대 지	답	도 로	전	기 타
면 적	883.6	476.1	86.0	78.4	57.6	41.5	144.0
구성비	100.0	53.9	9.7	8.9	6.5	4.7	16.3

자료 :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2016.

나. 개발가능지 분석 및 진단

1) 개발가능지 분석

❖ 분석기준

- 개발가능지는 시가화용지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지역과 군사시설 이전대상지, 개발억제 및 개발불가능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함
 - 기개발지 또는 <표 3-1-3> 개발가능지의 분석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개발억제지는 시가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함
 - <표 3-1-3>의 개발불가능지와 개발가능지의 분석기준을 제외한 분석대상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개발불가능지는 토지이용 현황 상 개발이 불가능한 하천·호소, 문화재분포 지역을 대상으로 함
 - <표 3-1-3>의 개발불가능지 기준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하는 경우 우선 분류

[표 3-1-3]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구 분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
분석대상지	기개발지, 개발억제 및 불가능 지역을 제외한 지역	시가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적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토지이용현황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초과 지역
표고현황	120m 이하	120m 초과~210m 이하	210m 초과
경사현황	20% 이하	20% 초과~30% 이하	30% 초과
공적규제 현 황	-	체육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기타공원구역 도립공원 군립공원	하천(지목'천') 호소 상수원보호구역 소공원 어린이공원
문화재 및 군사시설 분포현황	군사시설 이전 대상지	캠프워크, 50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예비군훈련장 문화자원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문화재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산지 및 농지 현 황	준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외(농림지역) 임야(산 지번 제외) 지목'답'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토지적성 평가결과	라, 마 등급	다 등급	가, 나 등급

❖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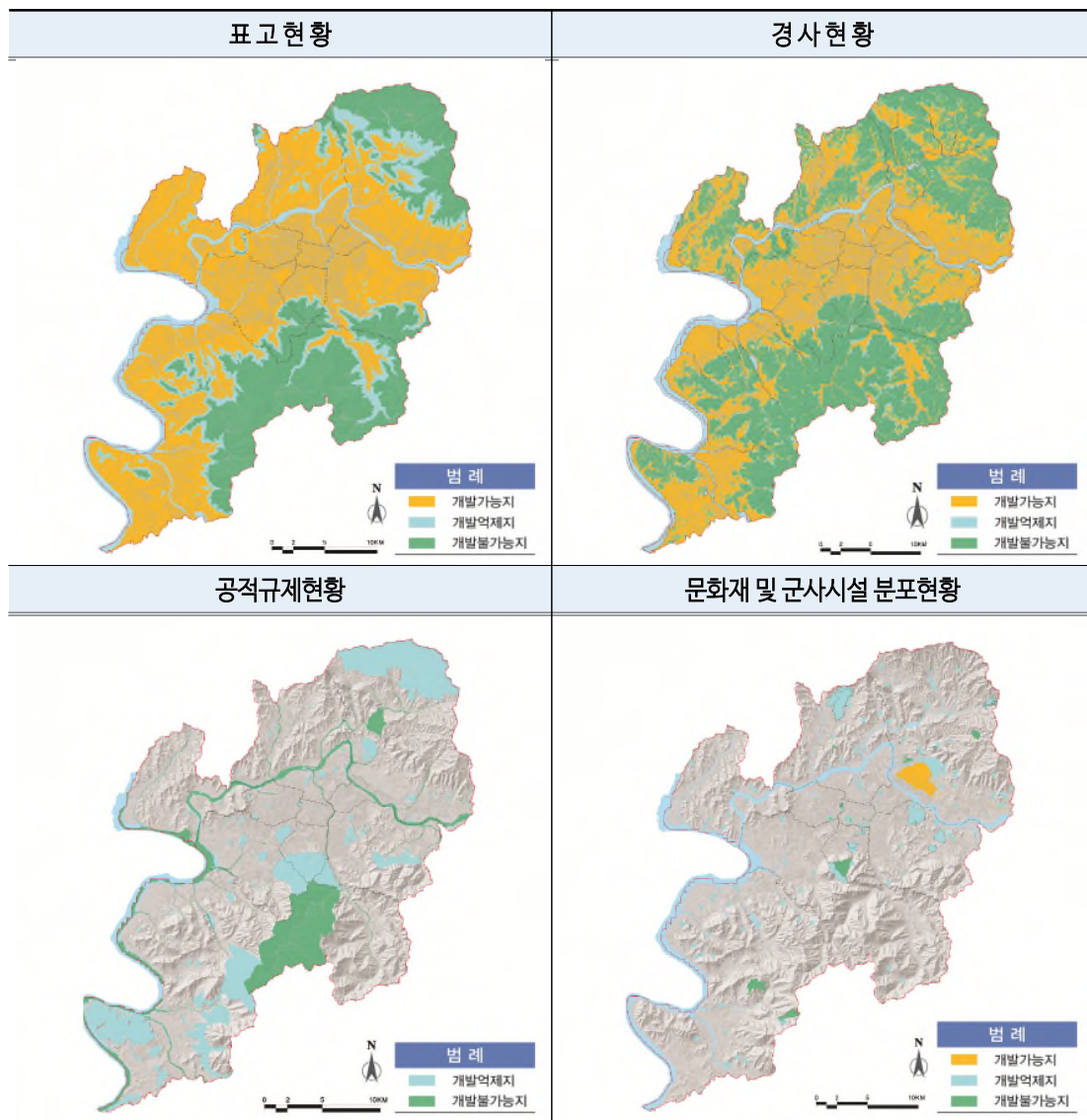
- 개발불가능지는 행정구역 면적의 61.7%인 545.08km²이고, 개발억제지는 14.1%인 124.91km²로서 개발가능지는 24.2%인 213.49km²로 조사됨

[표 3-1-4] 개발가능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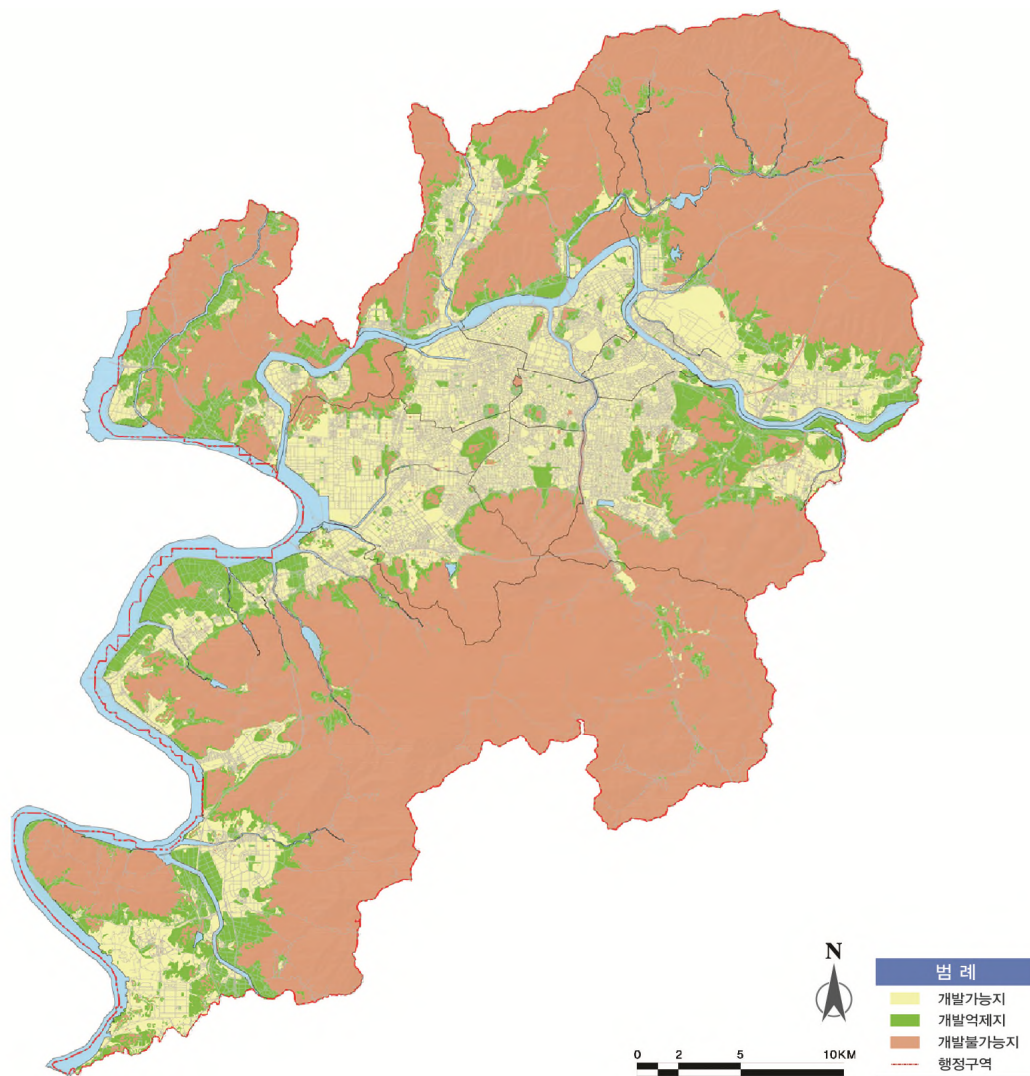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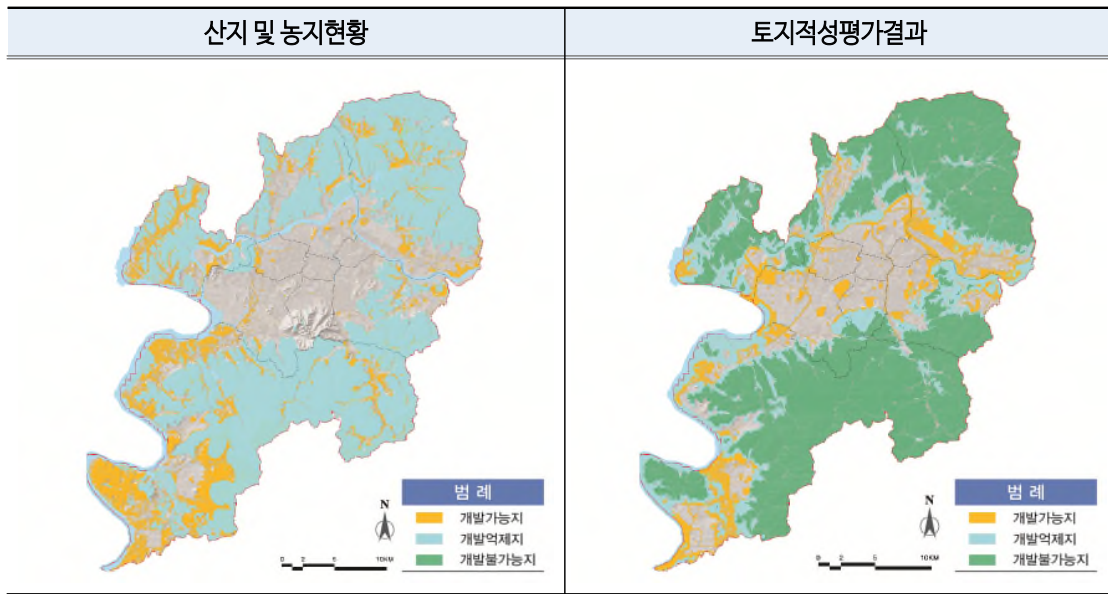
(단위 : km², %)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883.48	100.0	
개발가능지	213.49	24.2	
개발억제지	124.91	14.1	
개발불가능지	545.08	61.7	

자료 : KLIS, 수치지형도 등 도면자료 구적 값 활용



[그림 3-1-1] 개발가능지 분석



[그림 3-1-2]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2) 토지이용 현황분석 및 지표 조정

- 토지이용 소요면적 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기정 도시기본계획에서 활용한 지표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함
- 지표의 적합성 검토는 지표가구당 인구수, 수용률, 혼합률, 공공용지율, 건폐율, 층수, 인구밀도 등의 항목에 대해 분석함
- 분석자료는 건축물 대장,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등 공인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높임

❖ 가구당 인구수

- 기정계획에서는 가구당 인구수를 2.7인/호로 설정하였으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2.5인/호로 변화되었음
- <표 2-2-32, 34>의 내용에 따라 가구당 인구수는 주택공급 등에 미치는 영향이 높으므로 1인가구와 일반가구를 분리하여 지표를 설정함
- <표 2-2-34> 내용에서 설정한 평균 가구 당 인구 2.5인/호이나, 1인가구의 증가 등 향후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2.3인/호로 조정적용함

❖ 용도별 수용률 및 혼합률

- 각 용지별 적합 용도가 분포하는 비율인 수용률은 주거·공업용지는 각각 87.07%, 80.00%이나, 상업용지는 40.88%에 불과함
 - 수용률은 해당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면적비율임
 - 건축물 면적은 2015년 대구광역시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 면적을 활용하여 분석함

[표 3-1-5] 용도별 수용률 현황

(단위 : %)

구 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수용률	87.07	40.88	80.00

- 타 용도 혼합률이 주거와 공업용지는 각각 17.04%, 14.39%이나 상업용지는 40.29%에 달하고 있음
 - 혼합률은 현행 법률에서는 허용되나, 용도지역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면적비율임(ex :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활용하여 분석함

[표 3-1-6] 용도별 혼합률 현황

(단위 : %)

구 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혼합률	17.04	34.7~48.5(평균 40.29)	14.39

❖ 주택 1호당 연면적

- 기정계획에서는 주택 1호당 연면적은 90㎡/호로 설정하였으나, 2015년 건축물대장을 분석한 결과 1.3배가 증가한 120㎡/호로 분석됨
- 1호당 연면적은 2015년 대구광역시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주거용도인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물 동수로 나누어 산출함

❖ 인구밀도

- 기정계획에서는 인구밀도는 고밀도를 300인/ha로 설정하였으나, 그간 추진된 정비사업 등의 현황을 분석·검토한 결과 300인/ha 초과지역의 분포가 높음

[표 3-1-7] 인구밀도 현황

(단위 : 인/ha, %)

구 분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인구밀도 (배분비율)	31~74 (8.90)	144~299 (25.22)	300~770 (65.88)

[표 3-1-8] 기성시가지 개발밀도 현황

(단위 : ㎢, 인, 인/ha)

구 분		면 적	계획인구 ¹⁾	인구밀도	비 고
합 계		120.656	2,871,456	238	
자연 발생	1종일반주거지역	10.014	31,038	31	하빈면 소재지
	개발제한구역 내	6.130	45,591	74	지구단위계획 반영
	일반주거지역	29.351	179,041	61	성내1동
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18.418	408,871	225	평리5,6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	0.746	34,538	463	정비계획 반영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	1.983	75,661	382	"
	정비사업	4.825	246,998	512	"
	주택사업	9.464	728,591	770	주택사업 승인 반영
	단독주택관리지역	6.151	88,574	144	사례분석(만촌2동)
	재정비촉진사업	1.776	53,080	299	정비계획 반영
	택지개발사업	23.422	805,890	344	개발계획반영
	산업단지사업	4.256	111,732	263	"
	기타사업	3.072	61,851	201	의무사
	기 타	1.048	-	-	운동장, 대학 등

자료 : 사업지구 사례분석(면적은 구적 값을 활용)

주1) 계획인구는 각 개별사업의 수용인구임

❖ 공공용지율(기반시설)

- 각 토지용도별 공공용지율은 기정계획에서 설정한 30~50%로 설정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을 활용한 분석 결과 주거용지는 25~40%, 상업용지는 17.6~39.9%, 공업용지는 30%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생활편익시설 등 기반시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공공용지율의 적정수준으로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용지율은 해당 용지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면적 비율임

[표 3-1-9] 용도별 공공용지율 현황

(단위 : %)

구 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공공용지율	25~40	17.6~39.9	30

※ 공공용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기결정된 시설을 적용

❖ 건폐율

- 기정계획에서는 건폐율은 주거용지는 60%, 상업용지는 55~65%로 계획하였으나, 분석결과 주거용지는 28%~57%였으며, 상업용지는 49.3%~ 59.2%로 조사됨
- 건폐율은 해당용지별 2015년 건축물대장상의 건폐율 자료를 활용

[표 3-1-10] 용도별 건폐율 현황

(단위 : %)

구 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전체건축물 ¹⁾	상업용도건축물 ²⁾	
건폐율	28~57	49.3~59.2	57.1~69.1	-

주1) 상업용지내 전체 건축물 현황(이용객 기준 산정시 적용)

주2) 전체 상업용도 건축물 현황(종사자 기준 산정시 적용)

❖ 건축물 평균층수

- 기정계획에서 주거용지는 1.5층, 상업용지는 3~7층으로 계획하였으나, 현황분석결과 주거용지는 3층 이하가 대부분으로 평균 2.1층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업용지는 평균 2.7~3.1층으로 분석됨
- 건축물 평균층수는 해당 용도별 2015년 건축물대장상의 층수자료 활용

[표 3-1-11] 용도별 층수현황

(단위 : %)

구 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전체건축물	상업용도건축물	
건축물 층수	2.1	2.7~3.1	4.3	-

❖ 토지이용계획 지표 설정

-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표(가구당 인구 수, 수용률, 1호당 연면적 등)는 현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함
- 다만,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상업용지의 수용률 및 혼합률, 고밀도 주거용지의 배분 등의 항목은 지표를 조정함

[표 3-1-12]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을 위한 지표

구 분			기정계획	현 황	적 용	비 고
가구당 인구수(인/호)			2.7	2.5	2.3	인구구조 변화 반영
수용률 ¹⁾ (%)	주거용지		90.0	87.07	90.0	기정계획 유지 (적정 건축물 입지 유도)
	상업용지		100.0	40.88	80.0	중심지 기능 강화 반영
	공업용지		85.0	80.00	80.0	
혼합율 ²⁾ (%)	주거용지		15.0	17.04	17.0	
	상업용지		10~15	34.7~48.5	20.0	중심지 기능 강화 반영
	공업용지		15.0	14.39	15.0	
주택 1호당 연면적(㎡/호)			90.0	120	120	
인구밀도	배분비율 (%)	고 밀 도	50.2	65.88	60.0	주거유형의 다양성 유지를 반영
		중 밀 도	29.6	25.22	25.0	
		저 밀 도	20.2	8.90	15.0	
	인구밀도 (인/ha)	고 밀 도	300	300~770	400	
		중 밀 도	200	144~299	200	
		저 밀 도	100	31~74	100	
공공용지율 (%)	주 거		30.0	25~40	35.0	
	상 업		30~50	17.6~39.9	20~40	
	공 업		30.0	30.0	30.0	
건 폐 율 (%)	주 거		60.0	28~57	60.0	
	상 업	이용객	55~65	49.3~59.2	50~60	
		종사자		57.1~69.1	40~50	
층 수 (층)	주 거		1.5	2.1	2.1	
	상 업	이용객	3~7	2.7~3.1	3~5	적정규모의 건축물 입지 유도 반영
		종사자		4.3	4~5	

주1) 수용률 : 각 토지이용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 입지 비율

주2) 혼합률 : 각 토지이용별 타 용도의 건축물의 입지 비율

3.1.2. 기본방향

가. 비전 및 목표

1) 비전

❖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도시

- 생활수준의 향상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친환경생활공간 수요와 한정된 토지자원의 이용함에 있어 다음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함
-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비전은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로 설정함
 - 토지이용전략을 외곽지역 개발 중심에서 기성시가지의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확대함
 -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주도계획 수립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함
 -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집약된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녹지공간의 확대 및 자연 친화형 개발을 유도함



2) 목표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정비

- 토지이용계획은 공간 속의 제반활동들에 대한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임
- 기정계획의 합리성 재검토 및 인구저성장, 고령화사회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토지이용의 소요면적을 산정함
 - 과제 1 : 토지소요면적 산정의 합리성 강화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관리방안의 도입

-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소와 한계자원인 토지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도입함
-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공간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도시공간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과제 2 : 토지이용관리 기본원칙 설정
-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이해당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발생하는 반면, 행정주체의 기준과 행정절차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을 관리하고 있음
- 도시관리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주민제안 등의 활성화를 유도함
 - 과제 3 :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나. 용도별 토지 소요면적 산정

1) 기본원칙

❖ 기정계획과 일관성 유지

- 도시공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기정계획의 재검토를 통하여 계획의 방향성이 유지·발전하도록 일관성을 유지함
- 금회 계획은 목표연도를 변경하고 있으나,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발전 될 수 있도록 기정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함

❖ 여건변화를 반영한 원단위 지표 재검토

- 1인가구 및 고령인구 증가, 복합개발 활성화, 광역경제권의 협력강화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토지소요면적의 산정이 필요함
- 금회 계획에서는 각 지표의 원단위 조정 및 미래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표를 수정·보완함

2) 주거용지

- 기정계획에서는 평균거주밀도 방식, 주택호수 방식, 1인당 부지면적 방식을 활용하였음
- 금회 계획에서는 기정계획에서 활용한 방식과 함께 주택유형별 공급 방식을 추가하여 4가지 방식으로 소요면적을 검토함

가) 거주밀도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

❖ 산정방법(그림 3-1-3 참조)

- 주거용지 내 수용인구는 목표연도 인구의 90%로 설정함
- 인구밀도는 현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고밀도는 300인/ha에서 400인/ha으로 조정함
- 인구밀도의 배분비율은 현황분석결과와 향후 주택유형의 다양화 유도를 위하여 고밀도는 60%, 중밀도는 25%, 저밀도는 15%로 조정함
- 기정계획 : 고밀도 50.2%, 중밀도 29.6%, 저밀도 20.2%

$$Ra = \sum_{i=0}^n \left(\sum_{j=0}^n \frac{Poi}{di} \right)$$

Ra : 주거용지면적
 di : 주거입지별 인구밀도
 Poi : 주거입지별 인구
 $i \cdots n$: 대생활권별 소요면적
 $j \cdots n$: 주거입지별 인구밀도구분

[그림 3-1-3] 거주밀도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방법

❖ 산정결과

- 거주밀도에 의한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105.188km²로 산정됨

[표 3-1-13] 거주밀도에 의한 주거용지 소요면적 (단위 : 인/ha, %, 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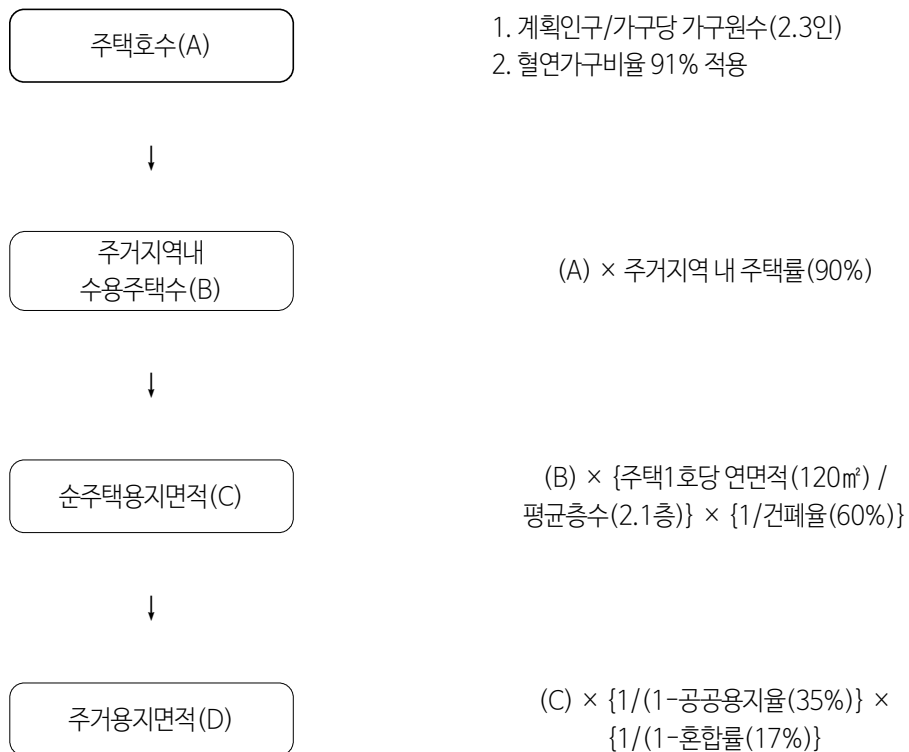
구 분	인 구 밀 도	배 분 비 율	소 요 면 적
합 계	-	-	105.188
고밀도	400	60	37.125
중밀도	200	25	30.938
저밀도	100	15	37.125

나) 주택호수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

❖ 산정방법(그림 3-1-4 참조)

- 가구당 인구수는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7인/호를 2.3인/호로 변경함
- 혈연가구 비율은 기정계획의 91%를 유지함
- 주거용지 내 주택비율(수용률)은 현황 분석결과 87.07%이므로 주거용지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 입지유도를 위하여 기정계획의 90%를 유지함
- 주거용지 내 건축물의 평균층수는 현황분석결과를 적용하여 2.1층으로 설정함(기정 계획은 1.5층)

- 주택 1호당 연면적은 현황분석결과를 반영하여 120㎡/호로 설정함(기정계획은 90㎡/호)
- 건폐율은 현황분석결과 28~57%이므로 기정계획의 60%를 유지함
- 공공용지율은 현황분석결과 25~40%이므로 정주여건개선을 위하여 35%로 설정함
(기정계획은 30%)
- 주거용지 내 타 용도의 분포 비율(혼합률)은 현황분석결과를 적용하여 17%로 설정함
(기정계획은 15%)



[그림 3-1-4] 주택호수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방법

❖ 산정결과

- 주택호수에 의한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172.865㎢로 예측됨

[표 3-1-14] 주택호수에 의한 주거용지 소요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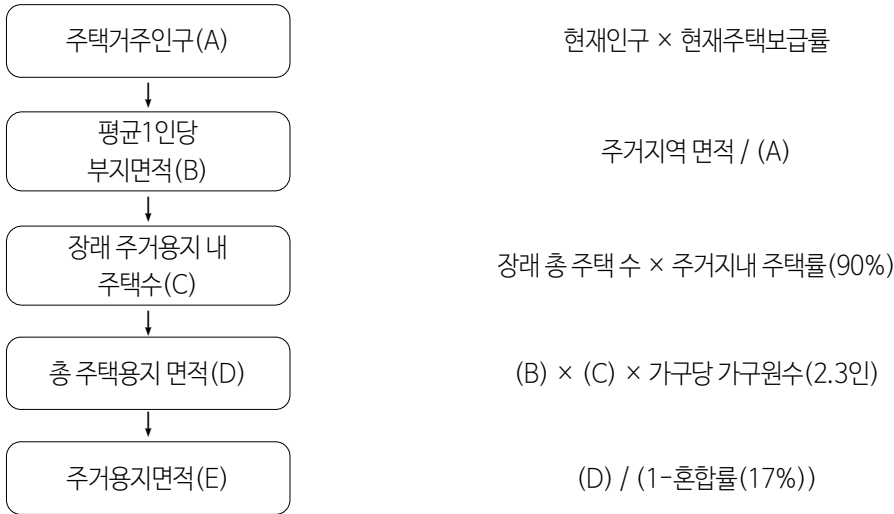
(단위 : 인/호, %, 천호, ㎢)

가구당 인구수	혈연가구 비율	주택호수	주거지역내 수용주택수	호당 연면적	평균층수
2.3	91.0	1,088.0	979.2	120	2.1
건폐율	순주택용지 면적	공공용지율	총주택용지면적	혼합률	소요면적
60.0	93.261	35.0	143.478	17.0	172.865

다) 1인당 부지면적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

❖ 산정방법(그림 3-1-5 참조)

- 인구, 주택보급률, 주거지역 면적 등은 현황자료를 반영함



[그림 3-1-5] 1인당 부지면적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방법

❖ 산정결과

- 1인당 부지면적에 의한 소요면적은 124.823km²로 산정됨

[표 3-1-15] 1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소요면적 (단위 : %, 천인, km², m²/인, 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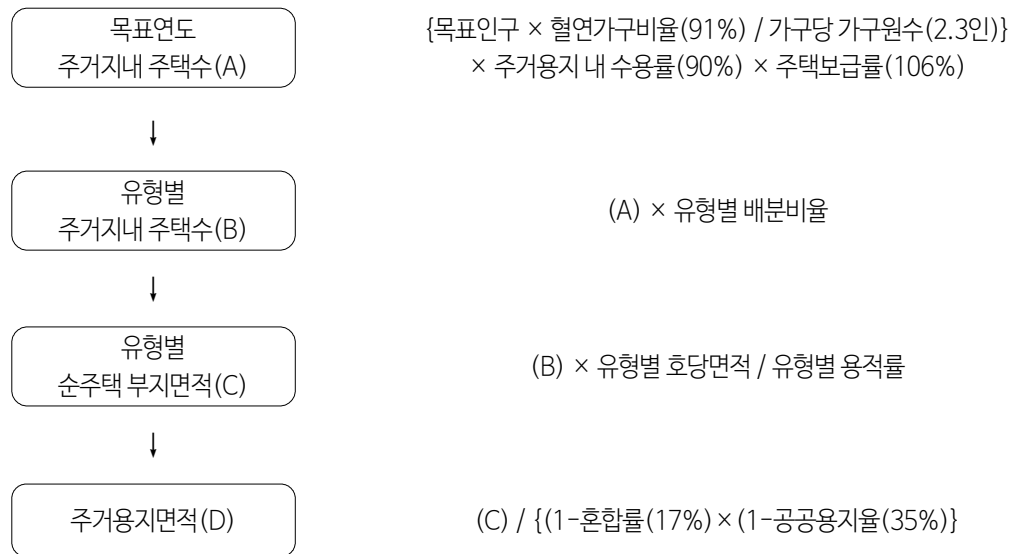
인 구	현재 주택 보 급 률	주택거주 인 구	주거지역 면 적	장래주택 보 급 률	1 인 당 부지면적	가구당 인구수
2,518	103.8	2,086	120.656	106	46	2.3
혈연가구 비 율	장래 총주택수	주 택 률	주거용지내 주 택 수	주택지면적	혼 합 률	소요면적
91.0	982.6	90.0	884.2	109.820	17	124.823

라) 주택유형별 공급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

❖ 산정방법(그림 3-1-6 참조)

- 주거용지의 소요면적은 주택 유형에 따른 영향이 높으므로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을 감안하여 소요면적을 산정함
- 주택유형별 배분비율은 건축물 현황조사 및 주택유형별 공급추세를 반영하여 단독주택은 43.5%, 공동주택은 56.5%로 설정함

- 주택유형별 호당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240㎡/호, 다가구주택은 70㎡/호, 아파트는 132㎡/호, 연립주택은 94㎡/호, 다세대주택은 73㎡/호로 설정함
-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수용인구는 각 주택별 기개발지의 용적률을 반영하여 다가구주택은 100%, 아파트는 250%, 연립주택은 130%, 다세대주택은 200%로 설정함
- 단독주택은 1호당 1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함



[그림 3-1-6] 주택유형별 공급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방법

❖ 산정결과

- 주택유형별 공급에 의한 소면적은 147.485㎢로 산정됨

[표 3-1-16] 주택유형별 공급에 의한 주거용지 소요면적

(단위 : %, ㎡/인, 천호, ㎡, ㎢)

구 분	배 분 비율	필 요 주택 수	주거지내 주택 수	호 당 면 적	용 적 률	택 지 면 적	혼 합 률	공 공 용 지 율	소 요 면 적
합 계	100.0	1,088.4	979.1	-	-	79.568	-	-	147.485
단 독	소 계	43.5	476.3	425.9	-	49.253	-	-	91.294
	단 독	10.0	108.8	97.9	240	24.912	17.0	35.0	46.176
	다가구	33.5	364.5	328.0	70	24.341	17.0	35.0	45.118
공 동	소 계	56.5	615.1	553.2	-	30.315	-	-	56.191
	아파트	52.0	565.8	509.2	132	28.499	17.0	35.0	52.825
	연 립	0.3	3.3	2.9	94	0.225	17.0	35.0	0.417
	다세대	4.2	46.0	41.1	73	1.591	17.0	35.0	2.949

3) 상업용지

- 기정계획에서 상업용지의 소요면적 산정에는 상업용지 이용객 점유면적에 의한 방식을 활용하였음
- 금회계획에서는 기정계획에서 활용한 방식과 보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한 상업관련 업종 종사자의 점유면적에 의한 방식을 추가하여 2가지 방식으로 소요면적을 검토함

가) 상업용지 이용객 점유면적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

❖ 산정방법(그림 3-1-7 참조)

- 상업용지 이용인구와 이용인구 1인당 점유면적은 현황조사 분석을 위한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기정계획에서 설정한 80%와 도심 15㎡/인, 부도심 12㎡/인, 지구중심 10㎡/인을 유지함
- 상업용지 분담률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공간구조 및 도시기능 수행을 감안하여 도심 50%, 부도심 30%, 지구중심 20%로 설정함
- 상업용지 내 건축물 평균 층수는 현황조사결과 도심이 2.8층, 부도심이 3.1층, 지구중심이 2.7층으로 분석되었으나, 다양한 상업기능의 집적을 유도하기 위해 도심은 5층, 부도심은 4층, 지구중심은 3층으로 조정함
- 건폐율은 현황조사결과 도심은 59.2%, 부도심은 53.7%, 지구중심은 49.3%로 분석되었으므로 미래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감안하여 도심은 60%, 부도심은 55%, 지구중심은 50%로 설정함
- 건폐율은 상업지역 내 평균 건폐율임
- 공공용지율은 현황조사결과, 도심은 39.4%, 부도심은 39.9%, 지구중심은 17.6%이므로 도심과 부도심은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40%로 설정하고, 지구중심은 커뮤니티 기능의 강화를 위해 현황조사 결과 보다 높은 20%로 설정함
- 혼합률은 도심 34.7%, 부도심 48.5%, 지구중심 38.6%로 분석되었으나, 상업용지의 중심지 기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심지 기능의 강화를 위해 상업기능의 집적 유도 등을 감안하여 20%로 설정함

$$Ca = \frac{n \times a}{N \times r \times (1 - P) \times (1 - t)}$$

Ca : 상업용지 소요면적

n : 상업용지 이용인구

a : 1인당 점유상면적

N : 평균층수

r : 건폐율

P : 공공용지율

t : 혼합률

[그림 3-1-7] 상업용지 이용객의 점유면적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방법

❖ 산정결과

- 상업용지 이용객의 점유면적에 의한 소요면적은 23.542km²로 산정됨

[표 3-1-17] 상업용지 이용객의 점유면적에 의한 상업용지 소요면적 (단위 : %, 천인, m², 총, %, km²)

구 분	분담률	이용 인구	1인당 점유면적 (기정유지)	평균 층수	건 폐 율	공 공 용지율	혼 합 률	소 요 면 적
합 계	100	2,200.0						23.542
도 심	50	1,100.0	15	5	60	40	20	11.458
부도심	30	660.0	12	4	55	40	20	7.500
지구중심	20	440.0	10	3	50	20	20	4.583

나) 종사자 점유면적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

❖ 산정방법(그림 3-1-8 참조)

- 상업용지 내 입지업종은 판매, 업무, 보건업종, 관광을 적용함
- 종사자 추정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업종별 종사자 변화추세를 적용함
- 판매업종 등에 종사자는 과거추세를 연장한 결과 502,505인으로 예측됨
- 판매 191,693인, 업무 189,793인, 보건 111,551인, 관광 9,468인임

[표 3-1-18] 업종별 상업종사자수 추정 (단위 : 인, %)

구 분		2015	증가율	2020	2025	2030
합 계		396,810		428,410	463,488	502,505
판 매	소 계	167,228		175,000	183,148	191,693
	도매 및 소매	103,741	1.06	109,357	115,277	121,518
	숙박 및 음식점	63,487	0.67	65,643	67,871	70,176
업 무	소 계	148,502		160,868	174,576	189,793
	금융 및 보험	34,895	0.69	36,116	37,379	38,686
	부 동 산 업	18,837	1.02	19,817	20,849	21,934
	기술서비스	23,141	2.22	25,826	28,823	32,168
	사업지원서비스	42,399	2.71	48,464	55,397	63,321
	기타개인서비스	29,230	0.95	30,645	32,129	33,684
관 광	여가관련서비스	8,851	0.45	9,052	9,257	9,468
보 건	사회복지서비스	72,229	2.94	83,490	96,506	111,551

자료 : 통계청, 고용·임금,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07~2015년 (산업분류 9차)

- 행정구역내 각 업종별 연면적 중 상업용지 내에 입지하는 연면적 비율은 53.22%로 조사됨
- 상업용지로의 점진적 업종유도 등 장래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업종별 상업용지 수용비율은 현황조사결과와 비율에 107%를 적용하여 판매 55.4%, 업무 61.7%, 관광 66.2%, 보건 43.9%로 설정함

[표 3-1-19] 업종별 상업용지 내 종사자 비율 (단위 : ㎡, %)

구 분	업종별 연면적 현황(A)	상업용지 내 연면적 현황(B)	비율(C=B/A)	적용 (C*107%)
합 계	29,958,505	15,943,261	53.22	
판 매	17,223,507	8,909,724	51.73	55.4
업 무	8,528,085	4,921,364	57.71	61.7
관 광	1,859,162	1,149,623	61.84	66.2
보 건	2,347,751	962,550	41.00	43.9

자료 : 업종별 연면적은 2015년 대구광역시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연면적

- 업종별 종사자 1인당 상면적은 업종별 연면적과 종사자수를 활용하여 산정함
- 판매 업종 102㎡/인, 업무업종 57㎡/인, 관광업종 210㎡/인, 보건업종 32㎡/인으로 업종별 종사자 1인당 상면적을 설정함

[표 3-1-20] 업종별 종사자 1인당 상면적 (단위 : ㎡, %)

구 분	업종별 연면적(A)	종사자수(B)	1인당 상면적(C=A/B)	비 고
합 계	29,958,505	396,810	75	
판 매	17,223,507	167,228	102	
업 무	8,528,085	148,502	57	
관 광	1,859,162	8,851	210	
보 건	2,347,751	72,229	32	

자료 : 통계청, 고용·임금,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시도별 산업별 종사자 수(2015년 기준)

- 건폐율은 현황분석결과 판매·업무업종은 61.9%, 관광·보건업종이 57.1%이나 대지 내 공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판매·업무업종은 50.0%, 관광·보건업종은 40.0%(휴양 및 요양 등 감안)으로 조정함
- 층수는 현황분석결과 4.3층으로 조사되어 4~5층으로 설정함
- 공공용지율과 혼합률은 「상업용지 이용객 점유면적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에서 활용한 부도심 지표를 적용하여 각각 40%와 20%로 설정함

$$Ca = \frac{n \times u \times a}{N \times r \times (1 - P) \times (1 - t)}$$

Ca : 상업용지 소요면적
 n : 목표연도 업종별 종사자수
 u : 상업용지내 종사자 수용비율
 a : 업종별 종사자 1인당 상면적
 N : 평균총수
 r : 건폐율
 P : 공공용지율
 t : 혼합률

[그림 3-1-8] 상업종사자 점유면적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방법

❖ 산정결과

- 종사자 점유면적에 의한 상업용지 소요면적은 21,280km²로 산정됨

[표 3-1-21] 종사자 점유면적에 의한 상업용지 소요면적 (단위 : 천인, m², 층, %, km²)

구 분	총 종사자	수용비율	상업용지 내 종사자	점유면적	건폐율	층 수	소요면적
합 계	502,505		278,539				21.280
판 매	191,693	55.4	106,198	102	50.0	4	11.284
업 무	189,793	61.7	117,102	57	50.0	5	5.562
보 건	111,551	43.9	48,971	32	40.0	4	2.721
관 광	9,468	66.2	6,268	210	40.0	4	1.714

4) 공업용지

- 기정계획에서 공업용지의 소요면적은 취업자 점유면적 방식을 활용하였음
- 금회계획에서는 기정 방식보다 객관적 자료 확보가 가능한 종사자 점유면적 방식을 추가하여 2가지 방식으로 소요면적을 검토함

※ 조사대상 구분

- 취업자 : 주간에 임금 등을 위하여 1시간 이상 일한 자
- 종사자(근로자) : 일정한 직업이나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

가) 취업자 점유면적에 의한 소요면적

❖ 산정방법(그림 3-1-9 참조)

- 2차 산업 취업자는 과거 추세를 연장한 결과인 317,000인으로 설정함
- 공업용지 내에 취업자의 비율은 현황자료 확보가 곤란함으로 기정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지표인 85%를 유지함
- 취업자 1인당 부지 원단위는 현황분석결과를 반영하여 116m²로 설정함

- 산업용지 공공용지율과 혼합률은 현황분석결과 30%와 15%로 지정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지표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정 도시기본계획에서 활용한 공공용지율 30%, 혼합률 15%를 유지함

$$Ia = \frac{Po \times a}{(1 - e) \times (1 - t)}$$

Ia : 공업용지 소요면적
 Po : 공업용지내 종사자(85%)
 a : 종사자 1인당 부지 원단위
 e : 공공용지율
 t : 혼합률

[그림 3-1-9] 취업자 점유면적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방법

❖ 산정결과

- 취업자 점유면적에 의한 공업용지 소요면적은 52.522km²로 산정됨

[표 3-1-22] 취업자 점유면적에 의한 공업용지 소요면적 (단위 : 천인, m²/인, km²)

2차산업 취업자	공업용지 내 비율	공업용지 내 취업자	원 단위	공 공 용 지 율	혼 합 률	소 요 면 적
317,000	85.0	269,400	116.0	30	15	52.522

나) 종사자 점유면적에 의한 소요면적

❖ 산정방법(그림 3-1-8 참조)

- 종사자수 산정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각 업종별 종사자 변화 추세를 적용한 결과 171,203인으로 예측됨
- 업종별 부지원단위는 「산업입지지원단위 산정연구」에서 제시한 산업 중분류에 의한 업종별 종사자 점유면적을 적용함

❖ 산정결과

- 종사자 점유면적에 의한 공업용지 소요면적은 55.668km²로 산정됨

[표 3-1-23] 종사자 점유면적에 의한 공업용지 소요면적 (단위 : 인, m²/인, km²)

구 분	종 사 자	공업용지내	소요면적
합 계	171,203	145,523	55.668
제조업	154,592	131,403	52.878
서비스업	16,611	14,119	2.791

5)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 산정된 용지별 소요면적 중 각 용지별 특성반영이 용이하고 미래 예측의 정확성, 실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정함
 - 시가화예정용지는 소요면적 중 시가화용지를 제외한 면적으로 설정
 - 목표연도 용지별 소요면적은 주거용지 147.485km², 상업용지 21.280km², 공업용지 55.668km²로 총 소요면적 224.433km²를 설정함

[표 3-1-24] 용도별 소요면적 설정

(단위 : km²)

구 분	소요면적 (A)	시가화용지 (B)	시가화예정용지 (A-B)
합 계	224.433	180.985	43.448
주거용지	147.485	122.387	25.098
상업용지	21.280	18.756	2.524
공업용지	55.668	39.842	15.826

-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에 활용된 기법 중 소요면적 산정에 활용한 사유
 - 주거용지 : 주택공급과 연계함으로 미래예측의 정확성 및 실현성 제고가 가능한 주택 유형별 공급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방식을 적용
 - 상업용지 : 상업 종사자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한 종사자 점유면적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방식을 적용
 - 공업용지 :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는 산업 종사자의 근무형태 반영이 가능한 종사자 점유 면적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방식을 적용함

[표 3-1-25] 용도별 소요면적 적용 사유

(단위 : km²)

구 분	소요면적	적 용	적용사유
주거용지	거주밀도	105.188	147.485 주택공급과 연계로 미래예측의 정확성, 실현성 제고
	주택호수	172.865	
	1인당부지면적	124.823	
	주택유형별공급	147.485	
상업용지	이용객점유면적	23.542	21.280 상업종사자통계청자료활용가능 ※상업용지이용객점유면적통계청자료없음
	종사자점유면적	21.280	
공업용지	취업자점유면적	52.522	55.668 취업자보다는장기간근무하는산업종사자의근무형태반영 ※취업자는조사대상주간에1시간이상일한자 ※종사자는일정한직업종사하는자
	종사자점유면적	55.668	

- 기정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한 용지별 소요면적과 비교한 결과 총면적은 10.833km²가 증가함
- 주거용지는 4.785km², 상업용지는 1.480km², 공업용지는 4.568km²가 증가됨
- 2015년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소요면적의 평균 80%내외(주거 82%, 상업 86%, 공업 73%)까지 달성 되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따른 미래여건 변화 대응측면에서 소요면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26] 용지별 소요면적 설정

(단위 : km²)

구 분	기정계획	증 감	변경(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합 계	213.600	증) 10.833	224.433	180.200(80.0%)
주거용지	142.700	증) 4.785	147.485	121.064(82.0%)
상업용지	19.800	증) 1.480	21.280	18.261(86.0%)
공업용지	51.100	증) 4.568	55.668	40.875(73.0%)

6)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시가화예정용지

- 2030년까지 필요한 용지는 총 224.433km²이며, 주거용지가 147.485km², 상업용지가 21.280km², 공업용지가 55.668km²임
- 2030년까지 필요한 용지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가화용지는 180.985km²이며, 주거용지는 122.387km², 상업용지는 18.756km², 공업용지는 39.842km²임
- 시가화예정용지는 계획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에 확보가 필요한 용지로 총 43.448km²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중 주거용도 25.098km², 상업용도 2.524km², 공업용도 15.826km²가 필요함

[표 3-1-27] 용도별 시가화예정용지

(단위 : km²)

구 분	소요면적	시가화용지 ¹⁾	시가화예정용지	비 고
합 계	224.433	180.985	43.448	
주거용지	147.485	122.387	25.098	
상업용지	21.280	18.756	2.524	
공업용지	55.668	39.842	15.826	

주1) 시가화용지는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용지와 2015년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을 반영한 면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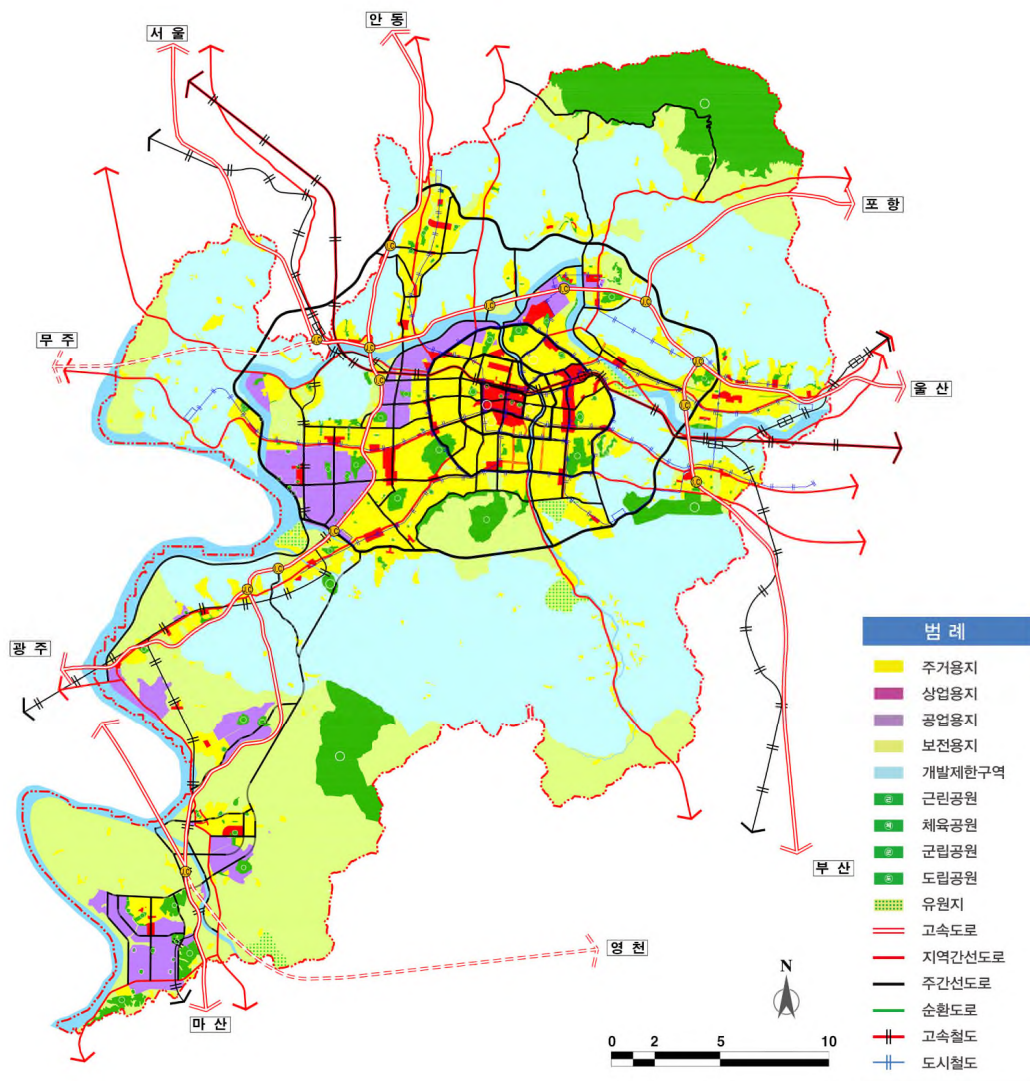
❖ 단계별 시가화에정용지

- 시가화에정용지 43.448km²는 각 단계별 배분 인구를 감안하여 1단계에서 10.497km², 2단계에는 14.727km², 3단계에는 18.224km²로 계획함

[표 3-1-28] 단계별 시가화에정용지

(단위 : 인, km²)

구 분		합 계	1 단계 (2016~2020)	2 단계 (2021~2025)	3 단계 (2026~2030)
인 구			2,571,000	2,651,000	2,750,000
시가화 예정용지	합 계	43.448	10.497	14.727	18.224
	주거용지	25.098	6.065	8.506	10.527
	상업용지	2.524	0.609	0.857	1.058
	공업용지	15.826	3.823	5.364	6.639



[그림 3-1-10] 토지이용구상도

3.1.3. 실천전략

- 토지이용계획의 실천전략은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관리 기본원칙」과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침」으로 구성함
-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기본원칙은 도시 공간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공간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함
- 도시관리계획에 지침 제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침은 용도지역 관리 및 조정 기준을 제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가. 토지이용관리의 기본원칙

1) 기본방향

- 신규 토지수요는 기성시가지 재생 및 유허토지를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물량은 시가화예정용지 총량의 범위 내에서 활용함
- 시가화예정용지 활용은 지역현안사업, 시정책사업 등 공공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함
- 시가화예정용지는 장래 성장방향 및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고, 각 단계별 총량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개발계획을 통하여 활용함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를 확보함

2) 시가화용지 관리

❖ 대상지역

-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가 가능한 지역임
 -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도시기본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지정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용지로 계획된 지역

❖ 시가화용지의 변경 기준

- 시가화용지 소요면적의 범위 내에서 용도간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 허용함
- 개발용도가 완화된 용도(공업 → 주거 → 상업용도)로 변경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적정규모의 공공기여도를 제공하여야함
- 시가화용지의 변경은 도시 균형발전,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의 적합성, 토지이용계획의 목적 달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함

❖ 용도별 관리방향

- 주거용지
 - 기반시설의 용량 및 주변지역 여건과 조화를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
 - 도시의 발전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기성시가지 재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발지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
 - 저탄소 녹색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보행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조성
- 상업용지
 -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별 위계와 수요가 충족될 수 있고 상업활동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 상업용지의 중심지 기능의 약화 및 도시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선형의 노선식 상업용지의 신규 지정은 지양
 - 도심, 부도심 등 중심지 위계별 주거와 상업의 비율을 차등화하여 상업기능 활성화 및 공동화 현상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복합개발을 유도
 - 중심지의 기능 및 역할과 공간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심지별 특화를 유도하고, 부족한 기능의 점진적인 도입을 유도
- 공업용지
 - 부족한 산업용지 해소와 근로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공업용지의 재정비를 통하여 수요를 관리
 - 신규 공업단지는 인구 변화 추세, 산업개발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각 부문별 계획을 감안하여 지정
 - 도시의 경제·사회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도시문제에 대처를 위하여 산업과 연계된 직주근접형 생활공간을 조성을 유도

3) 시가화예정용지의 관리

❖ 대상지역

- 도시의 장래발전에 대비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도시 개발축, 도시특성 등 도시여건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활용함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전반적인 토지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선정함
-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함
-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는 시가화용지와 보전용지를 제외한 지역이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세부용도 및 구체적 위치를 결정함

❖ 시가화에정용지의 활용 기준

- 개발가능 용도지역으로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로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 유도함
-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공간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활용함
-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가능지 포함을 최소화하고, 포함된 지역은 자연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함
- 개발의 정당성과 타당성 및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가 포럼, 시민 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함
- 시가지 외연적 확산은 지역현안사업 및 대구시 정책사업을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함

4) 보전용지 관리

❖ 대상지역

- 보전용지는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 및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함
 -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중 시가화에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등
 - 도시전체의 공원·녹지 연결체계 구축,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제외), 문화자원보존지구,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등 자연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보전용지의 관리

- 훼손지 복원과 보전원칙 적용
 - 양호한 도시환경을 유지·관리하면서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양호한 토지자원을 보전하고 훼손된 토지는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반을 마련함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시민에게 제공하는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공간이므로 보존을 원칙으로 함
- 보전용지내 개발가능지의 체계적 관리
 -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가능지로 분석된 토지는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보전을 원칙으로 함
 - 적정규모의 개발가능지는 시정책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면서 개발을 추진함
 -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 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은 보전용지로 편입하여 체계적 관리를 강화함

나. 도시관리계획 지침

- 도시관리계획 지침은 용도지역의 관리 원칙과 용도지역 조정기준 및 용도지역별 관리방향을 설정함

1) 용도지역 관리 원칙

❖ 용도지역별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당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 될 수 있도록 관리함
-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 도시공간구조 등의 실현을 위한 개별 도시관리계획은 용도 지역의 지정목적 및 기준 등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함

[표 3-1-29] 용도지역 지정 목적

구 분	지 정 목 적
주거지역	• 거주자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
상업지역	• 상업, 업무 및 편익을 증진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

❖ 지역의 특성을 고려

- 구릉지, 수변, 역사문화자산 주변 등과 같은 지역은 장소성과 역사성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기존 용도지역의 유지를 원칙으로 함
- 기성시가지 내 정비사업 추진 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정 밀도와 높이계획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토지이용계획의 유연성 제고

- 도시기능이 점차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어 상충기능은 엄격하게 분리하고 연관기능은 융복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간관리를 추진함
- 융복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의 유연성을 제고함

❖ 기반시설 여건과 연계한 밀도 관리

- 생활권별 인구배분 및 토지이용의 소요면적 산정 시 적용한 생활권별 인구밀도(총밀도)를 적용함
- 기성시가지 재활성화 사업 추진 시 적정규모의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함
- 직주 근접 생활공간의 확산을 위해 중생활권을 중심으로 특화 및 보행 중심의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유도함

❖ 중심기능의 강화

- 공간구조구상에서 계획한 중심지 기능 및 역할과 기반시설 용량 및 공간적인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중심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
- 중심지 기능 형성에 취약하고, 변화된 통행패턴에 불부합한 노선형 상업지역의 신규 지정 지양 및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함
- 도심, 부도심과 성장유도거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권과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추 관리기능이 특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역세권의 활성화 유도

- 역세권은 철도, 대중교통의 연계가 용이하여 유동인구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특화된 기능이 입체적 복합적인 집적을 유도하여 직주근접형 도시공간구조를 조성함
- 각 역세권별 특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권장용도, 밀도, 높이 등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실현성을 강화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지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화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의 집적을 유도하여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자연환경의 공공성 회복

- 과거의 개발우선 정책 추진은 도시 내의 풍부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가중시켜 도시환경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였음
- 소득 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점차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연환경의 관리에 공공성을 강화함(녹지네트워크 강화, 바람길 관리 강화, 친환경 개발사업 유도 등)

2) 용도지역 조정 기준

가) 용도지역의 지정 요건

❖ 법령 제·개정 및 관련계획에 의한 조정 필요

-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대구시 차원의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진 관련계획에서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

❖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

- 대구시가 추진하는 도시관리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완료 및 개발계획의 확정으로 주변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경우
- 반복되는 수해 등 재난방지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재해방지 등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시행)

-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부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별 블록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개발이익 환수 제약, 주변과의 부조화 우려가 높으므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용도지역 변경은 지양함
- 기성시가지내 소규모 미개발 잔여지 및 방치된 공가 및 이전 후적지 등 저이용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주생활환경의 조성을 유도하는 경우
- 도시의 입체화 복합화 추세를 감안하여 지하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이용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의 시설물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입체적 공간을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용도지역의 조정 방법

- 용도지역 조정은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도시개발사업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합리적인 공공기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
- 공공기여는 생활권 계획 등 지역 단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 밀착형 시설의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 종류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함
- 용도지역 조정범위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하며, 주변 용도지역과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용도지역의 관리방향

❖ 주거지역

- 2030년 목표인구 275만인을 위한 주거용지는 147.485km²이며, 기 결정된 주거용지는 122.387km²이므로 잔여면적 25.098km²는 용지수요를 감안하여 개발사업으로 공급함
- 주거지역의 관리는 중 세분 기조를 유지하며, 기반시설과 조화되는 정주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함
- 인구증가로 인하여 증가된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용지 확보는 기존 공급처리시설의 활용이 용이한 개발가용지를 활용하여 계획적으로 공급함
- 보전용지(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 등)에서의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공익적 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
- 직주근접 생활공간을 조성을 위한 연관기능의 유입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용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
- 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복합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

❖ 상업지역

- 2030년 목표인구 275만인을 위한 상업용지는 21.280km²이며, 기 결정된 상업용지의 면적이 18.756km²이므로 잔여면적이 2.524km²는 용지수요를 감안하여 개발사업을 통하여 공급함
- 노선형 상업지역은 간선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변과 부조화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신규지정은 지양함
-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최소 10%로 규정하고 있어, 중심지 기능 저하가 우려됨으로 과다한 주거기능의 유입 억제를 위한 관리를 강화함
- 상업지역의 신규지정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기존 중심지와 토지이용의 연속성을 고려함
- 중소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소규모 지역 상권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한 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공업지역

- 2030년 목표인구 275만인을 위한 공업용지는 55.668km²이며, 기 결정된 공업용지는 39.842km²이므로 잔여면적 15.826km²는 용지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사업으로 공급함
- 산업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존 산업공간과 유기적 연계 및 도시발전 방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입지를 검토함
- 공업지역의 타 용도로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적정 공공기여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
- 공업지역의 공급은 산업용지 수요와 재정비 사업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공급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함
- 공업지역은 공간구조, 토지이용 현황, 공장비율, 밀도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함
- 공업지역 내 오피스텔용도 등 용도지역 지정 목적과 산업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상충되는 기능의 유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보전용도(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녹지축 연계 등을 위하여 타 용도 지역으로 조정을 최소화함
-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용도 유입의 억제를 강화함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적극 관리함
-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경계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3.2. 기반시설계획

3.2.1. 교통계획

가. 현황분석

1) 광역교통

❖ 고속국도

- 고속국도는 현재 서울~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국도 등 6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음
- 대구~무주고속도로와 현풍~영천고속도로는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미개설된 상태임

[표 3-2-1] 고속국도 현황)

구 분	노 선 명	구 간	차로수	비 고
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	서울~대구~부산	4~10	
	중앙고속국도	부산~대구~춘천	4	
	대구~부산간고속국도	동대구JCT~대동JCT	4	중앙고속국도
	대구~포항간고속국도	대구~포항	4~6	
	광주~대구고속국도	광주~남원~대구	4~6	
	중부내륙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지선)	마산~대구~양평 (현풍IC~금호JCT)	4 (4~10)	

자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국토교통부, 2010.12.),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국토교통부, 2017.1.)

❖ 항공교통

- 현재 동구 지저동에 대구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2002년 5월 이전에 준공되었으며, 국제선과 국내선이 운행 중임
- 처리능력은 국내선터미널이 연간 257만명, 국제선터미널이 118만명, 화물터미널은 연간 1.8만톤 처리가 가능하며, 활주로와 유도로가 2본씩 있으며, 계류장은 6대 주기가 가능함
- 최근 저비용항공사(LCC) 신규취항과 (부)정기 운항노선의 지속적인 신·증설에 따라 여객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시설확충 등 대책 필요한 실정임
- 현재 통합신공항이 대구의 북부지역인 군위·의성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통합신공항 입지에 따른 접근체계 정비が必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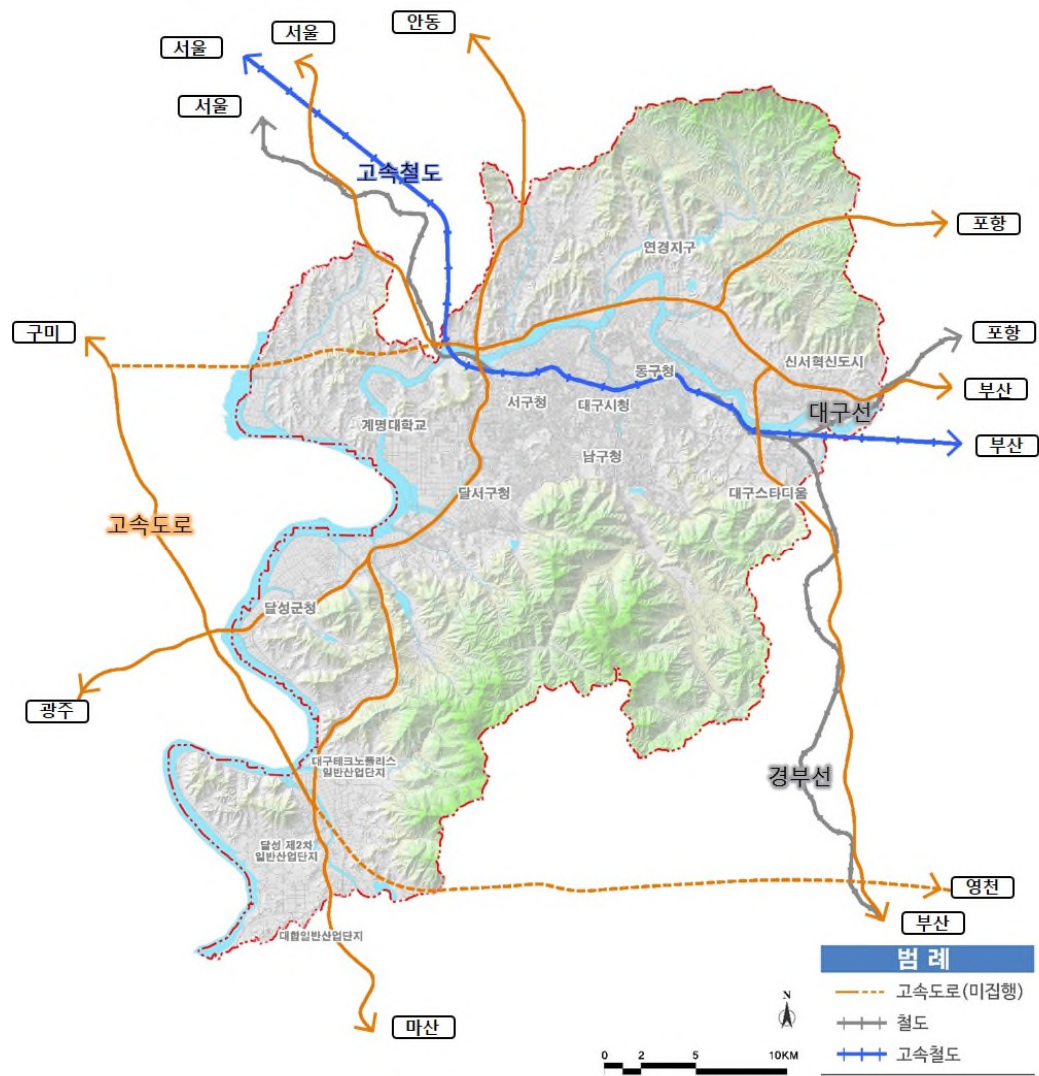
❖ 철도

- 관내 철도는 현재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대구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는 서울~부산까지 전 구간 개통되어 있음
- 경부선은 전 구간 전철화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대구선은 복선전철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구미~대구~경산을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표 3-2-2] 철도현황

노 선 명	전체노선		대구광역권		비 고
	기종점	연 장	구 간	연 장	
경부고속철도	서울~대구~부산(423.8km)				복선
경 부 선	서울~부산	441.7km	칠곡군~청도군	85.8km	복선
대 구 선	가천~영천	290.0km	가천~영천	29.0km	단선, 복선

자료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국토교통부, 2016.6.)



[그림 3-2-1] 광역교통시설 현황도

2) 도시교통

❖ 도시내 간선도로

- 도시내 간선도로는 4개 순환선 및 14개 방사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4개의 순환선 중 3차와 4차 순환선 일부 미개통구간은 개설사업이 추진 및 계획중에 있음
- 14개 방사선도로는 11개 노선이 개설 또는 부분개설된 상태이며, 청도선은 황금고가교~노변동구간, 의령선은 대암리구간이 미개설 상태에 있음
- 군위선, 하빈선, 진량선은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개설이 추진 중에 있음

[표 3-2-3] 방사선도로 현황

노선명	기점	종점	연장(km)	경유지
안동선 (국도5호선)	만평네거리	동명	9.0	만평네거리~팔달교~태전교~동명
청통(팔공산)선 (지방도909호선)	복현오거리	백안동	17.2	복현오거리~불로동~백안동
영천선 (국도4호선)	효목네거리	안심	11.0	효목네거리~화랑교~안심
경산선 (국도25호선)	만촌네거리	영대교	7.7	만촌네거리~고산~영대교
청도(각남)선 (국지도30호선)	중동교	팔조령	15.3	중동교~파동~가창~팔조령
창녕(마산)선 (국도5호선)	두류네거리	한정리	34.7	두류네거리~월배~화원~현풍~한정리
성주선 (국도30호선)	두류네거리	성주대교	18.0	두류네거리~성서~강창~성주대교
왜관선 (국도4호선)	만평네거리	지천	4.5	만평네거리~팔달교~지천
고령선 (국도26호선)	위천교차로	성산대교	1.1	위천교차로~성산대교
청도선 (유니버시아드로)	황금고가교	경산	6.6	황금고가교~노변동~경산 (황금고가교~노변동구간 미개설)
의령선 (국지도67호선)	창리	대암리	6.6	창리~국가산단~대암리 (대암리구간 미개설)

자료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국토교통부, 20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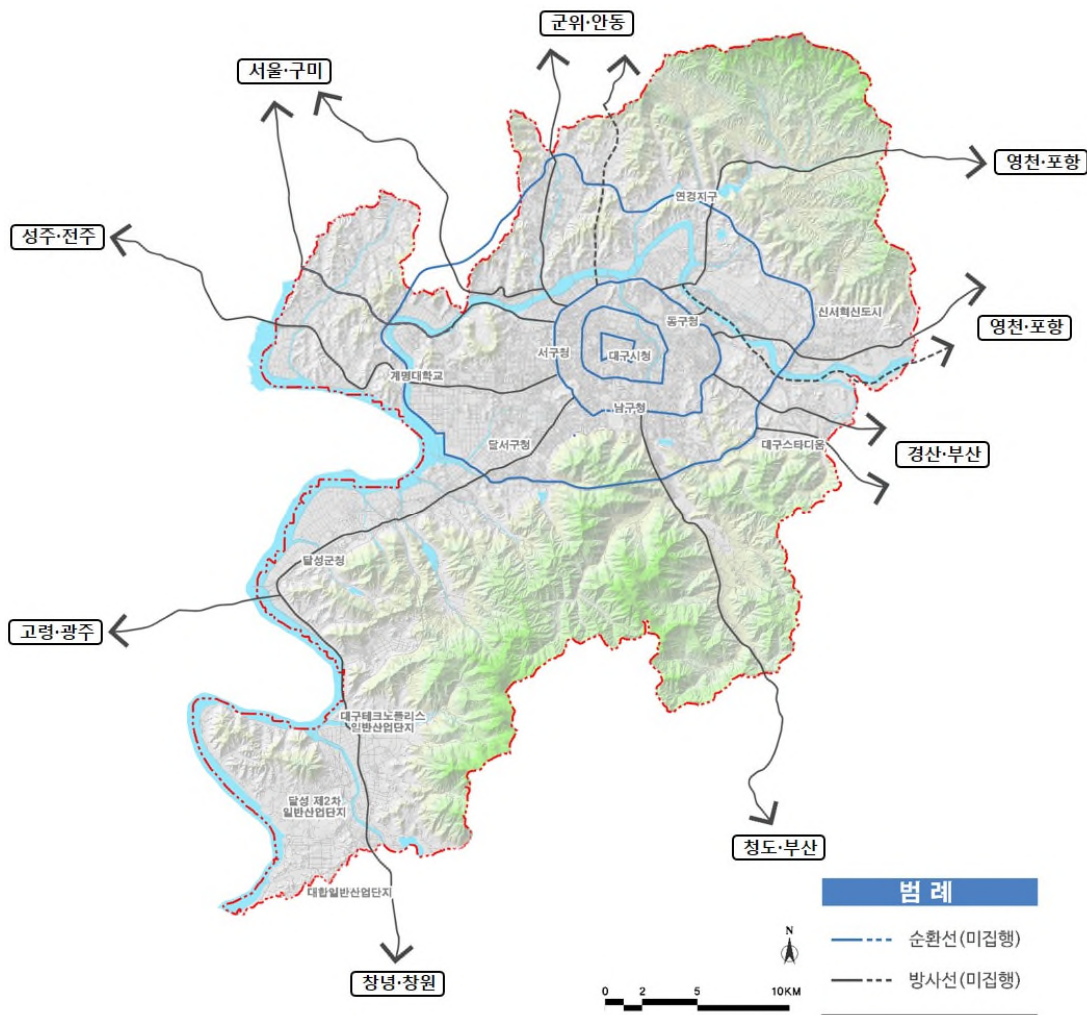
❖ 순환도로

- 도시고속화도로는 현재 신천대로, 앞산순환도로, 테크노폴리스로, 중부내륙고속국도 지선 등이 개통되어 이용 중에 있음
- 외곽순환고속화도로인 4차순환선은 부분개통되어 이용 중에 있으며, 미개설구간에 대한 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낙동강변도로와 금호강변도로는 미개설상태에 있음
- 미집행노선에 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함과 더불어, 교통량 집중으로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의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개선대책이 요구됨

[표 3-2-4] 순환도로 현황

노선명	주요 경유지	폭 원 (m)	연 장 (km)	현 황(km)		비 고
				개 설	미개설	
합 계		25~60	111.8	63.5	48.3	
제1차	달성네거리~신남네거리~ 삼덕네거리~동인네거리	25~50	6.5	6.5	-	
제2차	원대오거리~반고개네거리~ 공고네거리~북침산네거리	25~30	14.6	14.6	-	
제3차	노원네거리~두류네거리~ 만촌네거리~북현오거리	35~40	25.2	23.8	1.4	군사시설지 미개설 (A3 비행장)
제4차	칠곡 읍내동~안심~파동~ 월배~성서~지천	35~60	63.6	29.1	34.5	안심~지천, 성서 (공사중)

자료 :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대구광역시, 2010.1.)



[그림 3-2-2] 도시간선도로망 현황도

3) 기타교통시설

❖ 도시철도

- 도시철도 1호선~3호선의 3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음
- 1호선은 화원·명곡~안심 구간(연장 28.4km)에 32개역이 위치하고 있음
- 2호선은 문양~영남대 구간(연장 31.4km)으로 총 29개역이 입지함
- 3호선은 칠곡경대병원~용지 구간(연장 23.1km)으로 총 30개역이 위치하고 있음
- 도시철도 환승은 1호선과 명덕역, 2호선과 신남역에서 가능함



[그림 3-2-3] 대구도시철도 운행노선도

❖ 기타 교통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최근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준공으로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 및 남부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여 통합운영 중임
-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과 북부 및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운영 중에 있음

❖ 녹색교통 및 친환경 교통을 위한 교통체계 정비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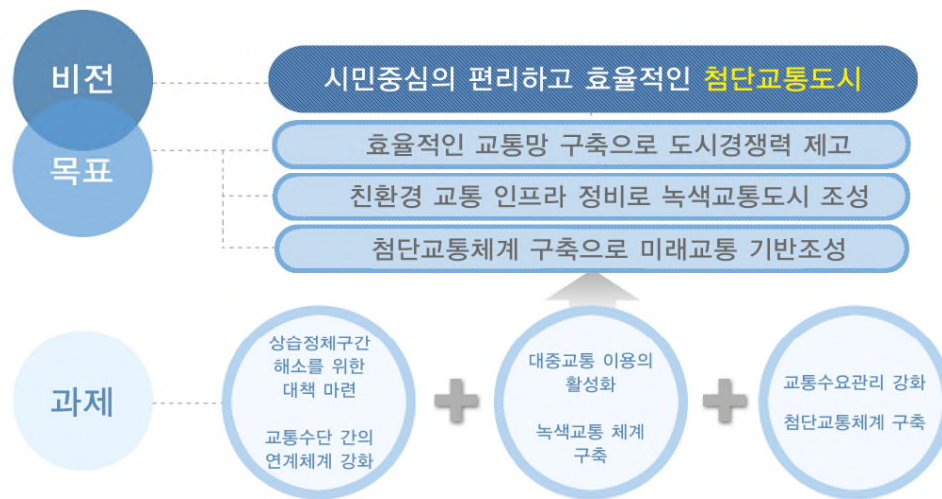
-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및 운영개선사업이 미흡함
- 녹색교통을 위한 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함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증가에 대비한 기반시설 및 제도가 미비함

나. 기본방향

1) 비전

❖ 시민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도시

- 신기후변화체제에 대응을 위하여 비전은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 도시」로 설정함



2) 목표

❖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 미집행시설을 조기 집행하고 시설간 연결 및 운영 불합리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함
- 과제 1 : 상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 과제 2 : 교통수단 간의 연계체계 강화

❖ 친환경 교통 인프라 정비로 “녹색교통도시 조성”

- 신기후변화체제의 대응과 차량 중심의 교통 억제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녹색 교통도시를 조성함
- 과제 3 :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 과제 4 : 녹색교통 체계 구축

❖ 첨단교통체계 구축으로 “미래교통 기반조성”

- 교통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통수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첨단교통체계의 구축과 미래에 적합한 교통 기반 조성을 확대함
- 과제 5 : 교통수요관리 강화
- 과제 6 : 첨단교통체계 구축

다. 실천전략

1) 교통망계획

가) 광역교통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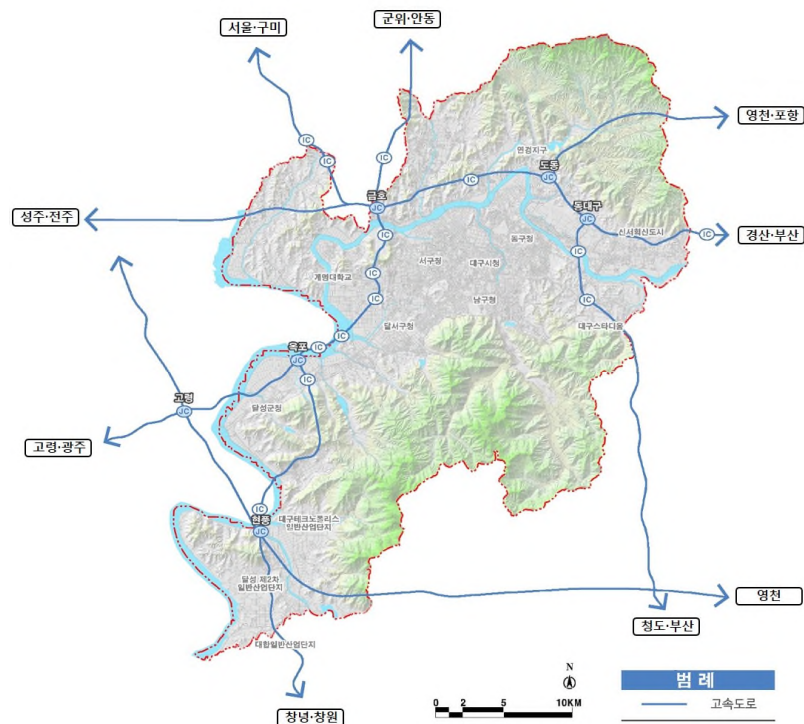
❖ 고속국도는 기 확정된 계획과 관련계획 내용을 반영

- 고속국도는 기집행된 6개 노선과 상위계획에 포함된 2개 노선을 반영함

[표 3-2-5] 고속국도 계획

구 분	명 칭	차로수	구 간	비 고
개 설	경부고속국도	6~10	서울~대구~부산	영천~경주~건천 확장공사 중
	중앙고속국도	4~6	부산~대구~춘천	상습정체구간 확장 추진 중
	대구~부산간고속국도	4	동대구CT~대동JCT	-
	대구~포항간고속국도	4	대구~포항	-
	광주~대구간고속국도	4	대구~남원~광주	-
	중부내륙고속국도 (중부내륙지선)	4~6 (4~15)	마산~대구~양평 (현풍I.C~금호J.C)	현풍~창원 6차로 확장 추진 (상습정체구간 확장, 유천IC 신설)
미개설	대구~무주고속국도	4	대구~무주	계획 중
	현풍~영천간 고속국도	4	대구~청도~영천	외곽순환체계(장기구상 노선)

자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국토교통부, 2010.12.),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국토교통부, 20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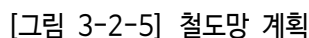
[그림 3-2-4] 고속국도망 계획도

- 통합신공항 건설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대구공항의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연계 교통수단을 확충함

- 국가계획 등에 기반영된 대구산업선, 대구~광주철도, 광역철도 계획을 반영함
-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내 교통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광역 교통수요를 도로에서 철도중심으로 전환함

구 분	사 업 내 용	연 장(km)	비 고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KTX 2단계 사업(칠곡군 신리~수성구 만촌동)	22.7	-
경 부 선	서울~대전~대구~부산	441.7	-
대 구 선	대구선 복선 전철화(동대구~영천)	63.4	공사중
대구산업선	서대구~국가산단~ 대합산단(단선전철)	40.1	3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구광주선	대구~광주(단선전철)	191.6	
공항철도	서대구역~신공항	-	구상중

3



나) 도시교통망

❖ 지역간선도로

- 도시 간선도로망은 4개 순환선과 14개의 방사선도로 계획을 반영함

[표 3-2-7] 도시 간선도로망 계획

종류	노 선 명	연 장 (km)	주 요 경 과 지	비 고
순환선	합 계(4개 노선)	111.8		
	제1차(도심부순환)	6.5	달성네거리~신남네거리~삼덕네거리~동인네거리	-
	제2차(도시내부순환 및 도심접근)	14.6	원대오거리~반고개네거리~계명네거리~명덕네거리~수성시장네거리~공고네거리~북침산네거리	-
	제3차(도시내부순환 및 방사선연결)	25.2	노원네거리~두류네거리~앞산네거리~황금네거리~만촌네거리~북현오거리	일부구간 미집행
	제4차(도시외곽지 연결 고속화도로)	63.6	칠곡읍내동~안심~파동~월배~성서~지천	미집행구간 공사중
방사선	합 계(14개 노선)	170.9		
	안동선(국도5호선)	9.0	만평네거리~팔달교~태전교~동명	-
	군위선(국지도79호선)	9.0	노원네거리~조야교~국우동~시계	미집행
	청통(팔공산)선(지방도919호선)	17.2	북현오거리~불로동~백안동	-
	영천선(국도4호선)	11.0	효목네거리~화랑교~안심	-
	진량선(금호강변도로)	13.3	큰고개오거리~입석동~동호동~금호동	미집행
	경산선(국도25호선)	7.8	만촌네거리~고산~영대교	-
	청도선(유니버시아드로)	6.6	황금고가교~노변동~경산	일부구간 미집행
	청도(각남)선(국지도30호선)	15.9	중동교~파동~가창~팔조령	-
	창녕선(국도5호선)	34.7	두류네거리~월배~화원~현풍~한정리	-
	고령선(국도26호선)	1.1	위천교차로~성산대교	-
	의령선(국지도67호선)	7.2	창리~대암리	일부구간 미집행
	성주선(국도30호선)	18.0	두류네거리~성서~강창~성주대교	-
	하빈선(국지도67호선)	15.6	평리지하차도~서재~하빈	일부구간 미집행
	왜관선(국도4호선)	4.5	만평네거리~팔달교~지천	-

자료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국토교통부, 20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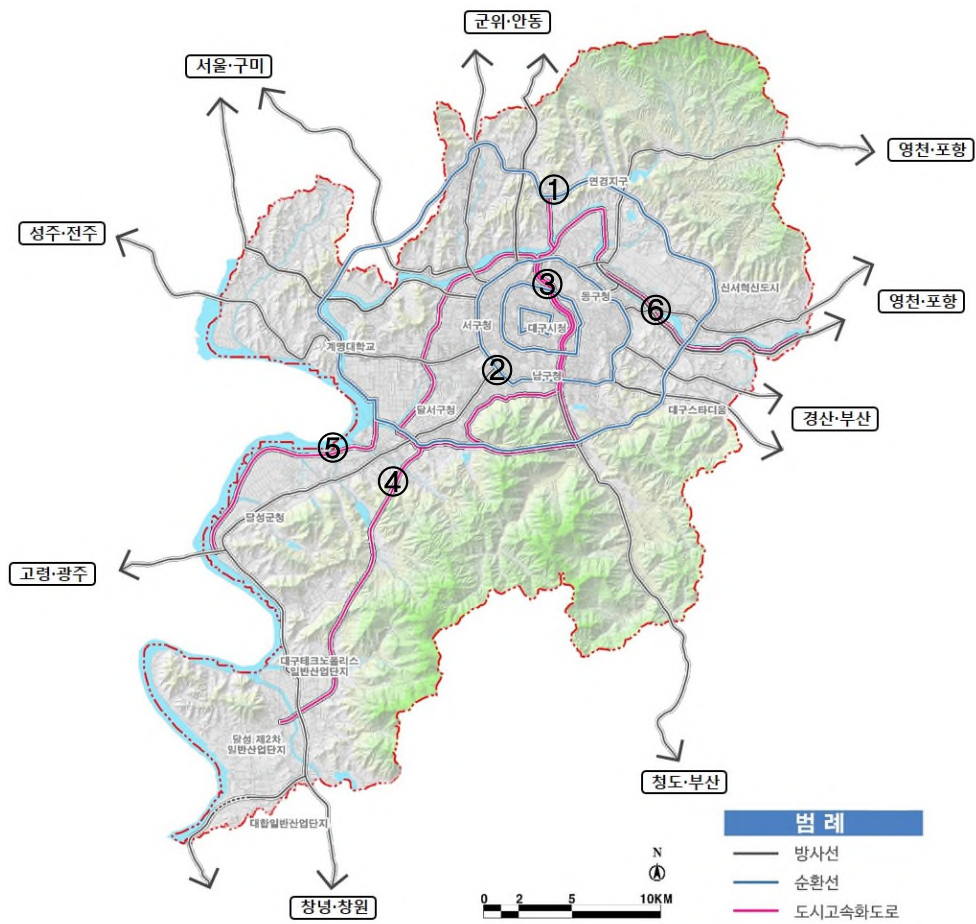
❖ 도시고속화도로

- 도시내 도시고속화도로는 기계화된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 중인 노선과 미집행된 계획노선을 반영하여 6개 노선으로 계획함

[표 3-2-8] 도시고속화도로 계획

구 분	노 선 명	연장(km)	주 요 경 과 지	비 고
내부도시 고속도로	① 외곽순환 고속화도로	63.6	칠곡읍내동~안심~파동~월배~ 성서~지천(4차순환선)	미집행 구 간 공사중
	② 내부순환 고속화도로	35.5	신천대로~중부내륙고속국도지선~ 4차순환선(상화로)~앞산순환도로	일부집행
	③ 남북고속화도로	19.5	가창~신천동로~호국로	일부집행
산업벨트 연계 고속도로	④ 테크노폴리스로	12.8	대곡동~옥포반송리~테크노폴리스	집 행
	⑤ 낙동강변도로	15.3	성서공단~위천	미집행
	⑥ 금호강변도로	20.7	유통단지~공항교~대림	미집행

자료 :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대구광역시, 2010.1.)



[그림 3-2-6] 도시도로망 계획도

2)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 정체구간의 폭원 확장 및 미집행 신설노선의 조기집행 추진

- 상습정체구간은 가로용량 부족 및 우회교통량 증가가 원인이므로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의 용량을 증대하여 해소 가능함
- 지역간 교통의 도심 통과교통 최소화 및 서남부지역 산업단지와 동해안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외곽순환 고속국도로 계획한 현풍~청도~영천간 고속국도의 조기 집행을 추진함

[표 3-2-9] 고속국도 확장 및 조기개설 필요구간

구 분	명 칭	차로수	구 간	비 고
개 설	중앙고속국도	4~6	부산~대구~춘천	상습정체구간 폭원확장 (가산IC~금호JC, 동대구JC~동대구IC)
	중부내륙지선	4~15	현풍I.C~금호J.C	상습정체구간 폭원확장(서대구IC~ 금호JC), 유천IC 신설
미개설	현풍~청도~ 영천간 고속국도	4	대구~청도~영천	외곽순환체계 구축(장기구상 노선)

❖ 도시고속화도로 건설로 통과차량의 시가지 유입 억제

- 도시 내 장거리 이동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기계화된 내부 도시고속도로 3개 노선과 산업벨트 연계 고속도로 3개 노선을 수용함
- 내부순환고속화도로는 기집행된 시설 중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대로~중부내륙고속국도지선~4차순환선(상화로 구간)~앞산순환도로를 연결하여 계획함
- 남북 고속화도로는 신천동로와 호국로를 연계함
- 산업벨트 연계 고속도로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집행), 낙동강변 도로(미집행), 금호강변 도로(미집행) 등을 반영함

3) 교통수단 간의 연계체계 강화

❖ 통합신공항과의 연계성 강화

- 통합신공항이 군위·의성 등 북부지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신공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이 대두됨
- 통합신공항과의 연결체계는 현재 중앙고속도로와 방사선도로 중 안동선(국도 5호선), 군위선(국지도 79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철도 3호선이 북구 학정동까지 연결됨
- 통합신공항과의 원활한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공항철도의 신설, 도시철도 연장, 미집행된 군위선의 조기집행 및 상습정체구간인 중앙고속도로의 확장, 동부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선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함

❖ 철도역과 대중교통수단의 환승기능 강화

- 도시간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도시 경쟁력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장거리 교통수단인 철도와 도시내부 교통수단의 원활한 연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동대구역,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동부 및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합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동대구 부도심형성을 가속화하고 있음
- 아울러 서대구 KTX역, 대구권 광역철도 등과 연계한 서대구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여 성장유도거점을 확보하고자 함
-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철도와 대중교통수단의 연계기능의 강화를 위한 환승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

[표 3-2-10] 광역철도망 계획

구 분	사업내용		연장(km)	비 고
대구권 광역철도망구축	대구 광역권 전철 1단계 (구미~대구~경산)		61.9	추진중
	대구 광역권 전철 2단계	김천~구미	22.9	장기계획
		경산~밀양	44.7	

자료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국토교통부, 2016.6.), 대구장기종합발전계획(대구광역시, 2014.12.)

[표 3-2-11] 복합환승센터 계획

구 분	내 용	연 계 환 승 수 단	비 고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동부 시외버스터미널, 남부 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통합	KTX, 경부선철도, 대구권광역철도, 도시철도 1호선,엑스코선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추진)	광역복합환승센터 (운영중)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북부 시외버스터미널,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통합	KTX, 대구권광역철도, 도시철도 순환선, 시외버스, 고속버스	복합환승센터

자료 : 복합환승센터 개발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16.7.)

4)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 신교통수단의 도입

- 기존 대중교통망과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함
- 차량시스템은 대중교통 수요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노선 별로 선정함

❖ 환승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대규모 환승수요가 발생하는 결절점에 대중교통 환승센터, 환승정류장을 설치함
- 중·장거리 통행자를 위한 환승주차장을 확충함

❖ 대중교통수단 및 운행체계의 개선

- 버스노선체계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함
- 대중교통 고급화를 통한 대중교통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용률 향상을 도모함
- 정확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안내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함

❖ 도시철도 건설 확대

- 도시철도는 현재 운행 중인 1호선, 2호선, 3호선 외 대구시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반영한 4개 노선과 장기구상 1개 노선을 추가하여 계획함
 - 1호선 하양연장선 : 안심역~하양역까지 8.8km 건설
 -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 관계삼거리~신서혁신도시까지 13.0km를 신설
 - 엑스코선 : 이시아폴리스~유통단지~궁전맨션 삼거리까지 10.9km를 신설
 - 순환선(기정 4호선) : 순환선 기능을 고려하여 성서지역 우회구간을 축소하고 신평리네거리~두류네거리~현충로 구간으로 변경하여 25.8km를 신설
 - 이시아폴리스~K2~혁신도시 연결노선을 장기구상노선으로 계획
- 순환선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서대구KTX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일부구간의 노선을 조정함

[표 3-2-12] 도시철도망 계획

구 분	노선명	기 점	종 점	연장 (km)	주요경과지	비 고
합 계		8개 노선	-	155.10	-	-
운행 노 선	1호선	설화명곡	안심	30.92	상인네거리, 반월당, 동대구역	지하철
	2호선	문양	영남대	32.33	두류네거리, 반월당, 만촌네거리	지하철
	3호선	칠곡	범물	23.95	만평네거리, 명덕네거리, 황금네거리	모노레일
건설 계 획 노 선	1호선 하양연장	안심	하양	8.70	경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광역철도
	3호선 혁신도시연장	범물 (용지)	신서 혁신도시	12.40	-	모노레일
	엑스코선	수성구민 운동장	이시아 폴리스	10.90	동대구역~북현오거리~엑스코	모노레일
	순환선	큰고개	큰고개	25.80	큰고개오거리~만평네거리~ 두류네거리~현충로~ 황금네거리~만촌네거리~ 큰고개오거리	순환선기능 강화 서대구복합 환승 연계
장기구상 노 선	K2연계노선	이시아 폴리스	혁신도시	8.00	K2	-

자료 : 대구시 중장기 철도망 구축계획(안)

5) 녹색교통 체계 구축

❖ 보행친화적인 도로공간 구축

- 보도의 보행장애 시설물 재배치 및 정비, 횡단보도 복원·확충 및 신호주기 개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보행공간 확대 등을 통하여 양호한 기초 보행환경을 구축함
- 보행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불필요한 보행육교를 철거하며 보도 턱낮춤 및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설치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고함
- 주거지 내 차량통행 제한 등을 통해 주거지내 보행환경을 개선함

❖ 무장애 교통환경의 구축

-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까지의 접근성·안전성 향상을 위해 장애없는 공간을 확대함
- 교통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의 무장애 교통환경을 조성함

❖ 교통안전대책의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로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개선, 주·정차 위반차량 감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학교주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함
- 고령자 밀집지역은 차량속도 제한 및 안전시설물 설치, 횡단보도 신호시간 조정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개선함
- 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으로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함
-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 시인성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및 차로 도색,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및 추가 설치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성을 강화함

❖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 자전거 도로망을 위계별로 정비하고 자전거 통행권 보장 및 안전성을 강화하여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함
- 자전거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공공기관, 학교 등에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휴게시설, 벤치, 식수대,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전용도로 구조물 확충(자전거 경사로 설치 등) 등 기반시설을 정비함
-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U-Bike) 및 공공자전거(U-ITS) 시스템 도입으로 생활 속의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유도함

6) 교통수요관리 강화

❖ 교통수요의 관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기 운영 중인 승용차 요일제, 기업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 주차수요의 관리 강화

- 토지이용 및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차금지 조정 및 주차요금을 현실화함
- 불법 주정차의 단속 강화, 주차정보시스템 구축확대를 통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방지를 강화함

❖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

-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Green Parking), 주차장 공동이용제, 학교 및 공원 지하주차장 개발, 민자주차장 개발 등을 통하여 부족한 주차장의 지속적인 공급을 확대함

7) 첨단교통체계 구축

❖ 교통운영체계 효율화사업의 지속적 확대

- 교통신호 및 도로운영체계 개선을 통하여 신호체계 합리화, 보행문화 개선, 통행질서 확립 등 교통선진화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함
-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연계한 신호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함

❖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UTIS) 추진

- 관내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과 연계하여 대구광역권까지 연속적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사업을 추진하여 내부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첨단 교통체계를 구축함

❖ 도시고속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확충

- 도시고속화도로의 혼잡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확충하여 이동성을 확보하고, 연결되는 하위도로의 정체를 최소화 함

❖ ITS서비스의 고도화

- 고부가가치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통합환승정보를 제공함
- 통합 교통전자지불 시스템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함
- 개별통행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하여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함

❖ 대구통합교통정보센터 건설

- 시스템이용의 불편사항 해소 및 관련 ITS산업의 발달에 따른 보다 과학화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함
- 인력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 내 통합은 곤란한 상황이므로 개별 시스템 확대 구축 후, 대구통합교통정보센터로 통합을 추진함
- 운영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통합이 필요함

3.2.2. 물류계획

가. 현황분석

❖ 차량중심의 물류

-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 사업에서 장래의 물동량 변화 추세는 발생 물동량이 0.23% 증가하고 도착 물동량이 1.17%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표 3-2-14] 물동량 예측

(단위 : 천톤/년, %)

구 분		2015	2020	2025	2030	증가율
합 계	발 생	33,821	33,885	34,225	34,997	0.23
	도 착	25,556	27,237	28,753	30,439	1.17
도 로	발 생	33,701 (99.65)	33,758 (99.63)	34,086 (99.59)	34,849 (99.58)	0.22
	도 착	25,160 (98.45)	26,824 (98.45)	28,306 (98.45)	29,966 (98.45)	1.17
철 도	발 생	112	116	125	131	1.07
	도 착	388	402	433	456	1.07
항 공	발 생	8	11	14	17	4.88
	도 착	8	11	14	17	4.88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2016.2

❖ 물류시설 부족

-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에서 물류시설의 수요를 2025년에 478,279㎡로 예측하였으며, 이 중 일반물류시설은 441,305㎡, 내륙 컨테이너시설은 36,974㎡가 필요함
- 기 확보된 물류시설은 일반물류시설은 114,410㎡가 확보되어 있으나, 2025년에 363,869㎡가 필요함

[표 3-2-15] 물류시설 과부족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20		2025	
		수 요	과부족	수 요	과부족
합 계	114,410	460,336	-345,926	478,279	-363,869
일반물류시설 ¹⁾	114,410	425,759	-311,349	441,305	-326,895
내륙 컨테이너 시설	-	34,577	-34,577	36,974	-36,974

자료 :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 (대구광역시, 2015.10)

주1) 일반물류시설은 화물 취급장과 집배송시설을 포함

❖ 기존 물류시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설정비 필요성 대두

- 기 설치된 물류시설은 3개소 114,410㎡로서 달서구, 북구, 동구에 각각 1개소 분포하고 있음
- 기존 시설들의 특징을 검토한 결과 택배물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취급장 및 집배송시설의 증설이 필요함

[표 3-2-16] 물류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면 적	위 치	특 징
대 구 화물터미널	70,022	달서구 월성동 110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과 창고시설은 임대로 운영 • 사무실은 알선업체가 대부분을 차지 • 시설 이용률 포화로 외부 주차장 이용
대구북부 화물터미널	9,878	북구 매천동 618-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시설 정비 필요 • 주선업 중심의 개별화물자동차 중심 •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용차량과 승용차 혼재
동대구 화물터미널	34,510	동구 용계동 6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주차가 전체 주차수용능력을 초과 • 택배물량의 증가에 효과적인 대처 한계

자료 :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 (대구광역시, 2015.10.)

❖ 상가·점포 밀집지역의 주차 및 조업공간 확보 필요

- 대구시에 기 입지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127개소이며, 점포수는 총 16,362개소임
- 전통시장 중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장은 50개소로 39.37%에 불과한 실정으로 방문객 및 조업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선진물류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확충의 필요성 대두

- 공동물류센터는 2008년 대구 중서부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조성한 4,455㎡ 규모 1개소에 불과함
-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물류의 운송 및 하역, 보관, 포장 등의 공정에서 자체처리의 비율이 각각 76.14%, 94.74%, 90.5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3자 물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

[표 3-2-17] 물류시설 수요

(단위 : 업체, %)

구 분	응답업체	자체처리	위 탁	3자물류	비 고
운송 및 하역	859	654(76.14)	60(6.98)	304(35.39)	중복응답
보 관	722	684(94.74)	12(1.66)	34(4.71)	"
포 장	632	572(90.51)	17(2.69)	50(7.91)	"

자료 :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대구광역시, 2015.10.)

❖ 농수산물 도매시장

-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3개소가 운영 중임

[표 3-2-18]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단위 : ㎡)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	북구 매천동	166,693	
달성농수산물 물류센터	달성군 화원읍	35,700	
축산물 도매시장	북구 검단동	37,579	

자료 :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대구광역시, 2015.10.)

❖ 화물공영차고지

- 화물공영차고지는 2개소가 운영 중임

[표 3-2-19]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황

(단위 : ㎡, 대)

구 분	위 치	면 적	주차능력	비 고
금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북구 금호동	29,408	305	
신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동구 신서혁신지구 내	22,200	250	

자료 :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대구광역시, 2015.10.)

❖ 기후변화협약,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환경규제 강화

-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회수제품, 폐기물 처리 등 회수물류 (Reverse Logistics)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물류분야에 있어 순환자원과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물류 인프라 조성 및 연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적·자원 재생형 녹색물류체계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 전자상거래 급속 확산, 택배 물동량 증가

- TV, 인터넷, 모바일네트워크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유통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음
- 전자거래 환경의 확산으로 기업과 소비자(B2C) 간의 거래를 넘어 개별생산자와 소비자(C2C) 간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택배산업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 택배시장은 지난 20년간 물류산업의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대형 택배업체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및 IT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시장의 급성장으로 택배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면서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

나. 기본방향

1) 비전

❖ 미래형 스마트 물류허브도시

- 대구는 지리적으로 내륙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도로를 이용한 화물수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친환경과 녹색수송, 안전, 무인·로봇 등 물류 서비스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미래형 스마트 물류허브도시」로 비전을 설정함



3

부문별
계획

2) 목표

❖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물류산업은 지역 경제활동의 원동력이므로 물류시설과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 과제 1 : 물류시설 정비
 - 과제 2 : 물류시스템 정비

다. 실천전략

1) 물류시설 정비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시설의 정비

- 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분류를 위한 작업시설과 화물 운송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화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배송 센터 조성, 분산된 물류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물류단지 조성, 화물차량의 원활한 접근을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추진함

❖ 물류연계체계의 강화

- 대구는 내륙 도시로 도로의 활용 비중이 높고, 물류의 도심통과 유도 시 교통지체가 높음
- 도로의 정체 해소를 위한 순환도로망의 조기 개통으로 통과교통의 도심 유입을 억제하고 철도화물의 수송분담률 제고를 통한 친환경 물류체계를 추구함

2) 물류시스템 정비

❖ 선진물류기법의 도입 확대

- 공동물류는 물류표준화, 물류효율화, 교통문제 해소, 경영전략, 환경문제 대응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단순화물 운송체계에 정보화, 공동물류 등 선진화된 물류기법을 도입함

[표 3-2-20] 공동물류의 장·단점

구 분		내 용
장 점	물류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효율성의 증대, 운송 물량의 변동폭 축소 • 특정한 노하우에 투자, 서비스의 질과 유연성의 향상에 따른 고객서비스의 향상
	생산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에 필요한 자본재 투입의 감소, 보관장소에 유연성 제공 • 잉여자원을 고부가가치사업에 투자, 물류비의 예산할당이 용이 • 물류관리비용이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다른 물류 관리 전략 비교 용이
	유통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담당 직원 선발 및 교육 부담과 비용 절감 • 운수업 면허나 운전시간 관련규제 무관, 자신의 업무영역에 보다 더 집중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통제에 상실로 고객의 직접적인 접촉 불가능, 기밀 정보 유출 우려 •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 불가능, 자사내부의 물류 노하우 축적의 상실

자료 : 제3차 물류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 실천계획

❖ 도심물류기능의 확대

- 도심은 다양한 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상점가 물류센터, 빌딩 물류센터 등 도심물류기능을 확대함
 - 상점가 물류배송센터 주요지점의 물류수송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화물자동차의 조업공간, 친환경 배송 수단 등을 확대
 - 빌딩 물류센터 화물자동차 주·정차 시간의 최소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빌딩 내 밀폐식 물류센터 및 공동 택배 집하장을 운영

❖ 친환경 물류체계의 강화

-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의 감축 필요성이 증대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물 및 화물차 관리를 통하여 친환경 물류체계를 강화함

3.2.3. 정보·통신계획

가. 현황분석

❖ 정보격차 문제의 증대

-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보접근 어려움 및 교육의 부재로 정보격차가 커지고 있음
- 정보화 마을, 공공기관의 정보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 실적이 미약하고 기반여건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 정보화의 역기능 증가

- 정보통신의 발달은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 및 파괴, 개인정보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사이버 테러 우려가 높아지므로 공공과 민간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빅데이터 활용수준이 미약

-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도시생활 전체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해짐
- 기 구축된 자료의 구성에 대한 표준화가 미약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행정계획 및 민간사업에 활용이 곤란함
- 자료의 제공에 있어 사생활 보호 및 보안을 이유로 민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임

❖ 인터넷 이용자는 증가추세

- 인터넷 이용자는 2008년 1,780천명에서 년평균 2.94%가 증가하여 2015년 현재 2,181천명으로 시민의 91.1%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

[표 3-2-21] 인터넷 이용자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인터넷 이용자(천명)	1,780	1,780	1,800	1,790	1,850	2,040	2,219	2,181	2.94
인터넷 이용률(%)	74.1	74.7	75.9	76	76.5	84.7	92.1	91.1	

자료 : 국가 통계포털, 교통·정보통신, 인터넷 이용자수, 해당년도

❖ 우체국시설수는 광역화로 인해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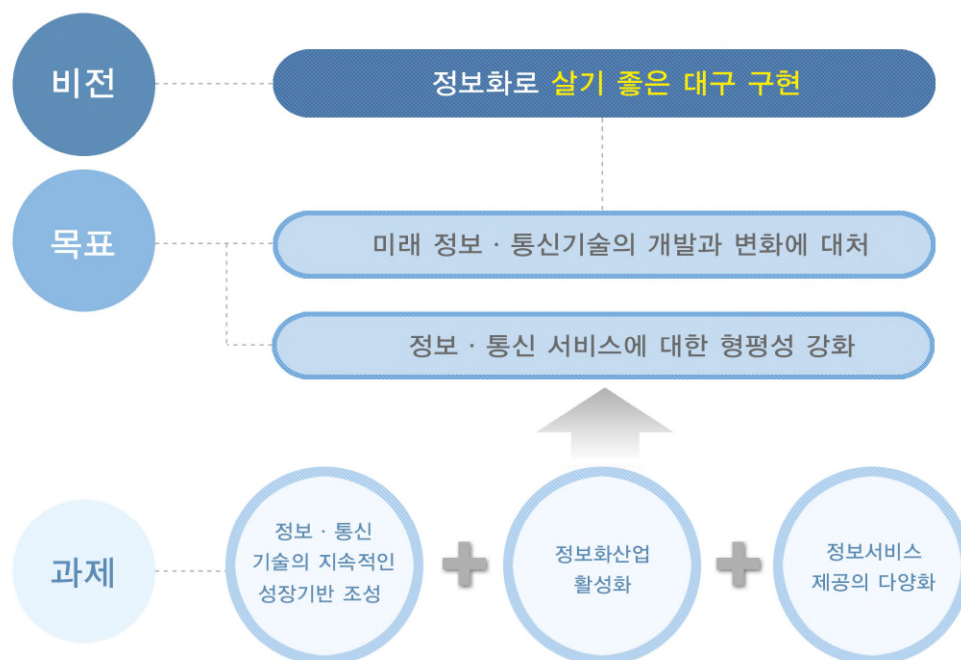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체국수와 일반 및 특수 우편물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포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나. 기본방향

1) 비전

❖ 정보화로 살기좋은 대구 구현

- 인터넷의 발전으로 SNS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비전은 「정보화로 살기 좋은 대구 구현」으로 설정함



2) 목표

❖ 미래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변화에 대처

-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화 산업을 활성화함
 - 과제 1 :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
 - 과제 2 : 정보화산업 활성화

❖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강화

- 정보·통신 서비스의 접속 환경에 따른 불공정 경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을 강화함
 - 과제 3 : 정보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다. 실천전략

1)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

❖ 정보·통신인프라의 정비

- 행정시스템의 고도화 및 시민참여형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한 행정과 시민 간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여 미래지향적 도시환경을 조성함

❖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

- 보안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
- 공공주도의 정보관리 원칙을 확립하여 정보화의 역기능을 예방함

2) 정보화산업 활성화

❖ 정보수집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

- 도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방법 및 관리를 위한 표준 전산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 수집되었거나 전산처리 중인 정보의 일관성 유지
- 보유하고 있는 각종 도시 관련 정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기존 정보체계 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광역 기초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함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체계 확립

- 행정 및 정책수립을 위한 실질적 검증 데이터로 활용가능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인터넷 웹을 통하여 도시종합정보시스템에 자유로운 접근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3) 정보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 정보제공의 다양화

- 시민생활에 필요한 지역정보 및 문화, 관광, 보건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정보제공에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

❖ 정보접근성 제약의 해소

- 우체국, 전신전화국, 정보네트워크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정보통신시설을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권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을 증진함

3.2.4. 스마트시티

가. 현황분석

1) 구군별 스마트시티 지역역량 및 지역개발성 현황

- 구군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주행차 운행기반 구축 등 스마트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표 3-2-22] 구군별 지역역량 및 지역개발성

구 분	특 성	지역 개발성 및 서비스 적합성
중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나, 거주환경은 열악함 •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조업의 분포가 높아 창업 활성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제인이 12.4%로 시·구·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외국인인 3.1%, 10세~64세는 3%로 대구지역 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 • 창업 독려를 위한 ICT창업기반 마련 • 도시문제 해결관점에서 방법·안전 스마트 신호등 서비스
동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 도시계획의 한 산업, 주거 복합도시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제인이 11.3%, 외국인이 6.7%, 10세~64세 인구는 13.5%를 차지 • 주거환경 고급화(첨단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기반 구축
서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산업기반 미미 •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성에서 여성경제인 8.4%, 외국인 9.5%, 10세~64세 8.5%의 비율을 나타냄. • 교육+ICT기반 구축 • 구정의 복지·행정 강화에 스마트기반 도입
남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근린환경이 양호하며, 여성경제인구의 비율이 높음 • 저부가가치 소비형 서비스업의 분포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성에서 여성경제인 6.5%, 외국인 4.2%, 10세~64세 6.3%의 비율을 나타냄. • 도시 생활공간 개선 첨단화를 위한 스마트기반 구축
북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산업이 가장 집중되어 있고 창업이 활발함 • 대구지역 중 가장 많은 사업체가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성에서 여성경제인 16.8%로 지역 내 6위, 외국인 18.2%, 10세~64세 18%의 비율로 지역 내 3위 수준을 나타냄. • 생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도입
수성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비율이 높음 • 교육여건 및 근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성에서 여성경제인 14.9%로 지역 내 3위, 외국인 5.7%로 지역 내 6위, 10세~64세 18.5%의 비율로 지역 내 2위 수준을 나타냄. • 소비유통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교통, 도시생활환경에 ICT융복합)
달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창업이 활발함 • 상대적 외국인, 젊은 층 분포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제인은 22.7%를 차지하며 특히, 외국인 33.7%, 10세~64세 25%로 대구지역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산업단지 내 자율주행차 운행 기반 구축(Car sharing)
달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생활환경 조성으로 거주환경 양호 •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규창업이 활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성에서 여성경제인 6.9%, 10세~64세 7.3%이며, 외국인의 경우 18.8%로 지역 내 2위 수준을 나타냄 • 제조산업 클러스터 첨단화

2)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 현황

❖ 기반조성

- SKT MOU 및 IoT 전용망(LPWA) 전국최초 개통('16년 5월), 대구시 구·군 사업소 379개소 자가통신망 구축(~'18년 12월), 첨단산업 R&D센터 집적(IoT센터, 드론센터, 3D센터/'16년 12월)
- (디지털 트윈) 대구시 전역 3차원 도시공간 정보시스템 구축('17년) 및 고 정밀 도시 모델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추진('18년)
- (도시 빅데이터) 빅데이터기반의 통계분석시스템 구축('16년), 대구시 서비스인구 분석정보시스템 구축('17년), D-클라우드 구축('16~'18년),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 고도화(~'18년)

❖ 생활환경

- (스마트 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안전, 편의, 친환경 서비스 9종 구축('17년)
- (상수도 원격검침) 국내 최초 국제표준의 IoT전용망을 활용한 완전 무인 상수도 원격검침 서비스 구축
- (스마트 수목원) 대구 수목원에 VR(아마존 열대우림) 및 AR(모바일 숲 해설사) 콘텐츠를 적용하여 시민 서비스 구축

❖ 미래형 자동차교통

-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테크로폴리스 진입도로 및 시내도로에 자율주행 실증도로 및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21년)
- (스마트 파킹) 주차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구축('18년)
- (스마트 교통) 빅데이터기반 신호체계최적화를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버스운행 관리시스템(BMS) 정보안내기 1,124개소 구축, 지능형 통합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

❖ 에너지

-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430개소 대상 AMI, EMS, DR, TOC 구축('16~'18년/444억)
-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134개소 대상 Hybrid ESS, 융복합 분산전원 시스템 구축('16~'18년/490억)

3)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 전담조직 신설 및 추진전략 수립

- 전담조직 신설('2017년 1월) 및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수립('2016년 11월)

❖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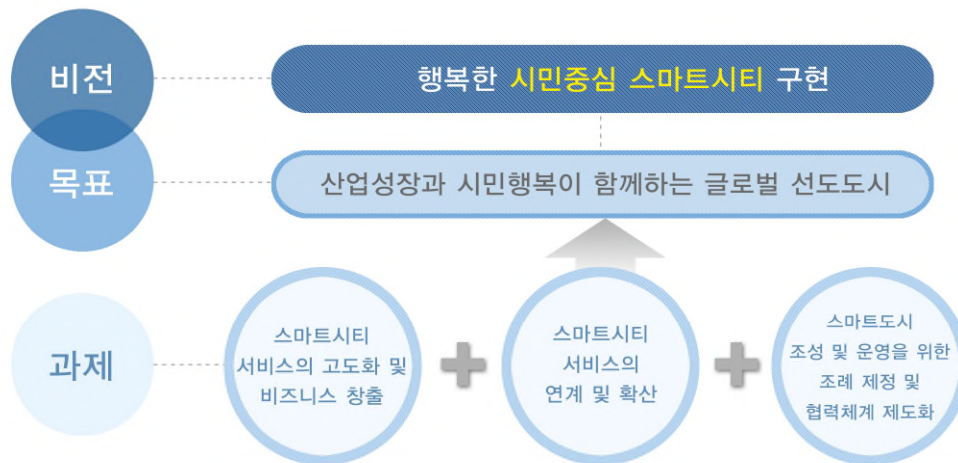
-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지속적인 고도화 및 新비즈니스 모델 사업 추진

나. 기본방향

1) 비전

❖ 행복한 시민중심 스마트시티 구현

- 산업성장과 연계한 미래첨단도시 플랫폼 구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행복한 시민 중심 스마트 시티 구현」으로 비전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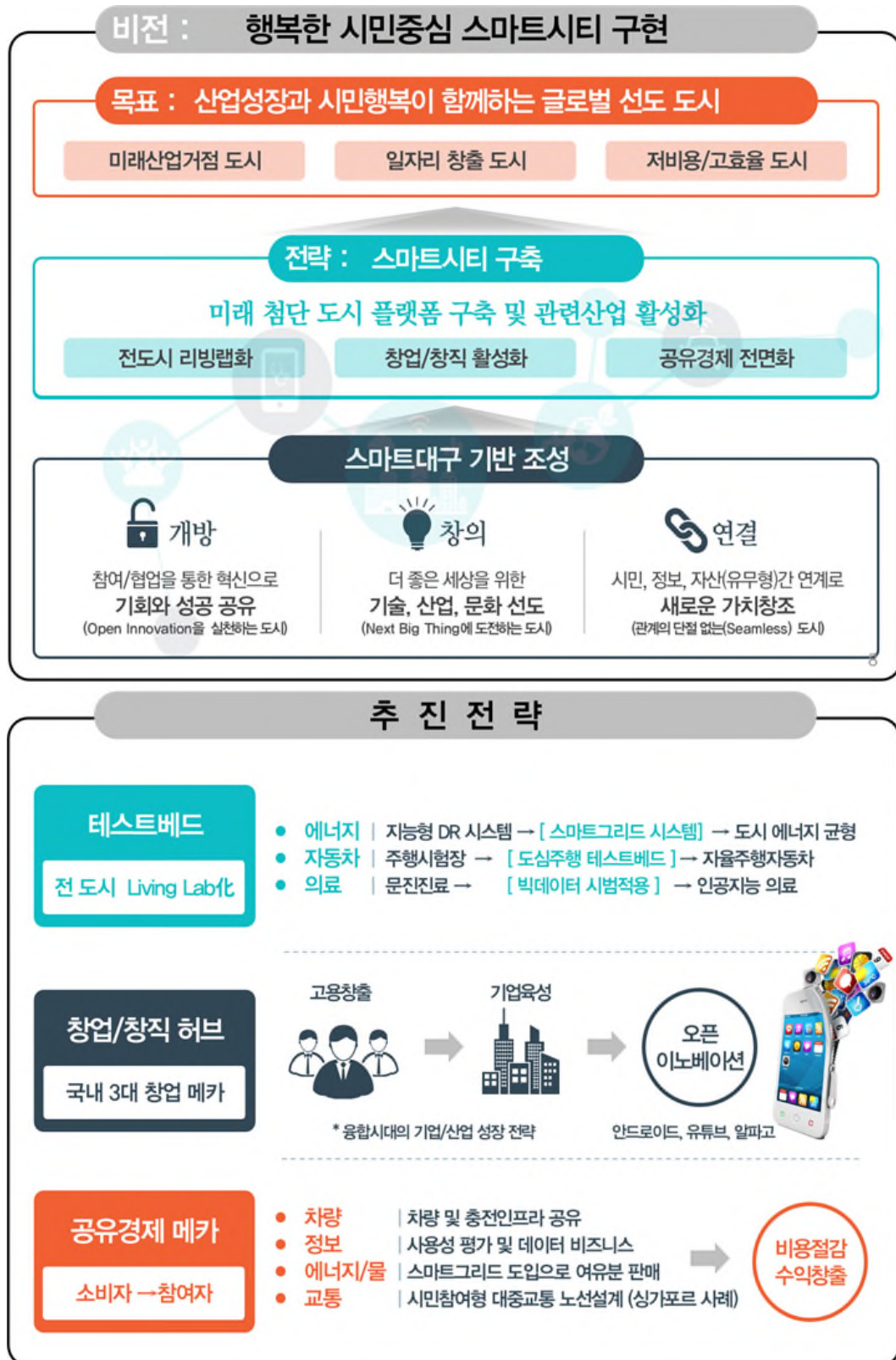


2) 목표

❖ 산업성장과 시민행복이 함께하는 글로벌 선도도시

- 시민 행복은 도시경제의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달성이 가능하므로 스마트시티를 통하여 창조융합의 강화, 시민참여 확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과제 1 : 스마트시티 서비스고도화 및 비즈니스 창출
 - 과제 2 :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및 확산
 - 과제 3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협력체계 제도화





[그림 3-2-8] 전도시의 리빙랩화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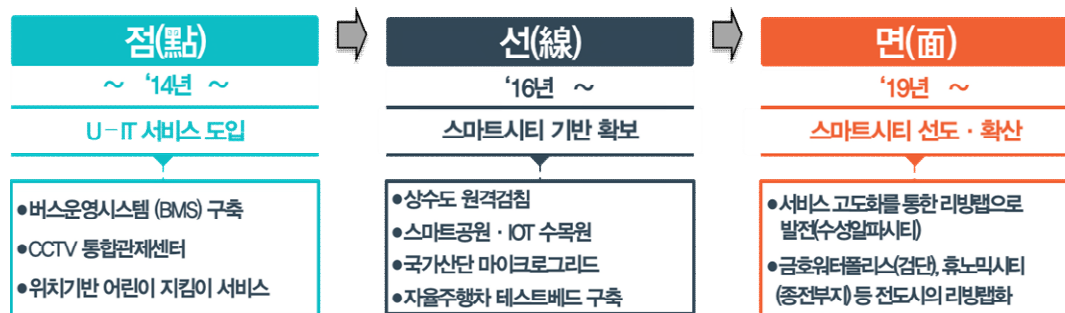
다. 실천전략

❖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고도화 및 비즈니스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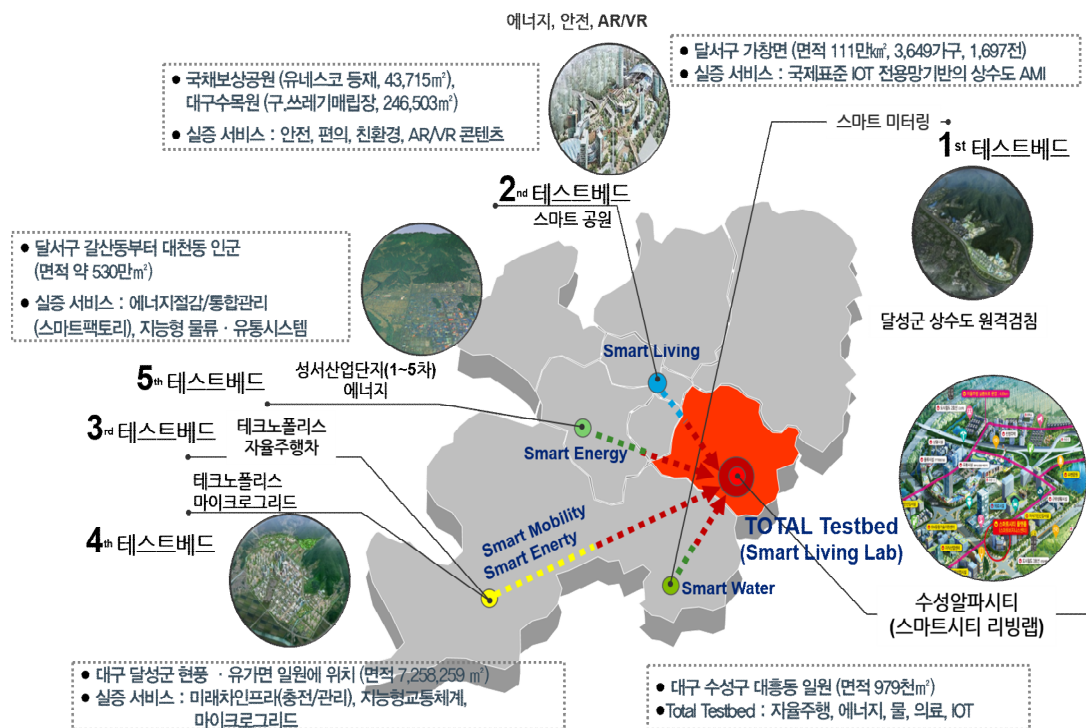
- 교통, 안전, 행정 등 기존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인프라를 고도화함
- 미래형자동차, 물, 에너지, 의료, IoT를 중심으로 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

❖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연계 및 확산

-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한 거점 리빙랩(수성알파시티) 성과를 바탕으로 전도시의 리빙랩화를 추진함
- ‘수성알파시티’ 리빙랩 성과를 바탕으로 진화된 스마트시티를 향후 금호워터폴리스, 대구 공항 이전터 등으로 확대하여 전 도시의 리빙랩화를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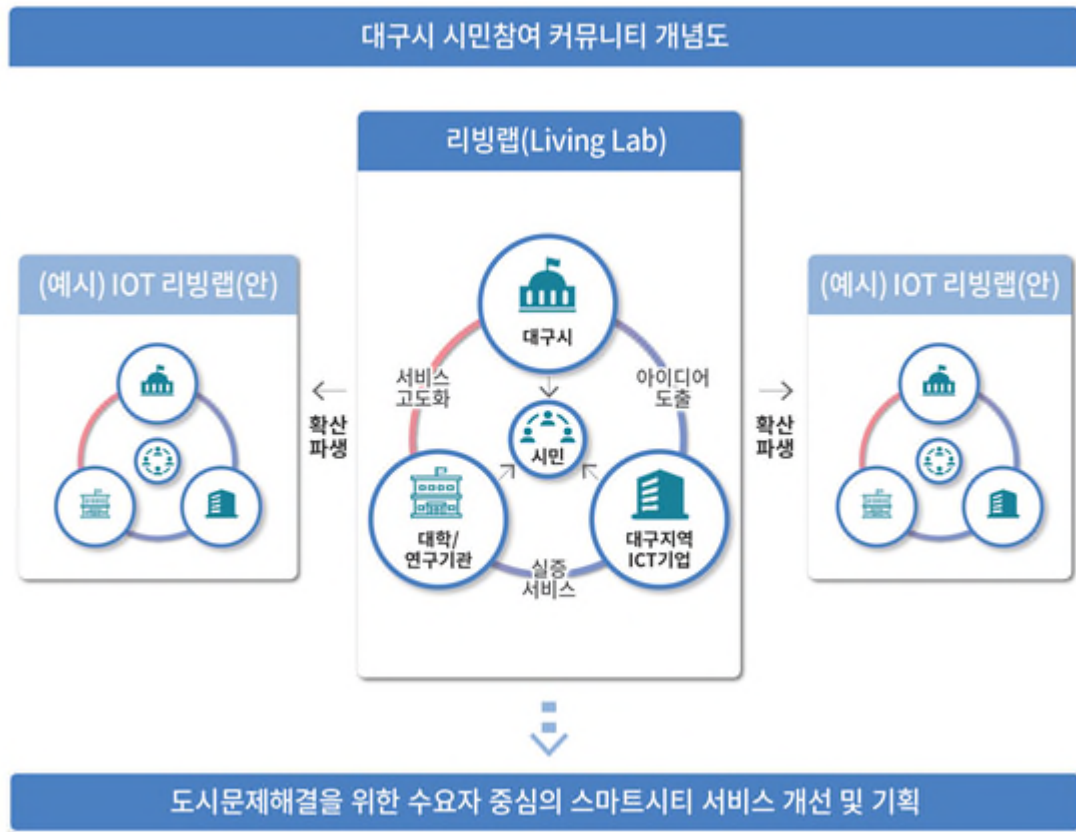
[그림 3-2-9] [확산전략] 점→선→면 확산



[그림 3-2-10] [연계 및 확산 계획] 점→선→면 확산

❖ 스마트시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협력체계 제도화

- 사업 초기에는 민간을 포함한 T/F를 구성하고, 확산기에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고도화함
- 사업 단계별, 유형별,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하여 서비스, 기반시설을 비롯하여 데이터 생산/활용/유통, 자원조달 분야별로 협력을 강화함



[그림 3-2-11] [스마트시티 커뮤니티] 시민참여촉진 및 환류체계 구축

❖ 자원조달 및 운용방안

- 공공, 민관협력, 민자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자원조달 방안을 마련함
- 국비사업 유치와 스마트시티사업과 병행된 기존 사업을 추진하여 대구의 전 도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고 관련 조례를 강화함
- 민간투자 유치 확대로 민간 주도의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을 유도함



3.3. 도심 및 주거환경

3.3.1. 도시재생계획

가. 현황분석

❖ 분석지표

- 쇠퇴지역 도출을 위한 분석은 인구사회 분야 10개항목, 산업경제분야 12개항목, 물리환경 분야 8개항목을 활용함

구 분	지 표	비 고
인구사회	• 노령화지수, 인구변화율, 평균교육년수, 독거노인가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수, 가정 위탁아동수, 고령인구 수, 노년부양비, 세입자 가구 비율, 경제활동인구	10개항목
산업·경제	• 종사자수, 사업체당 종사자수, 제조업종사자 비율, 고차산업 종사자 비율, 재정자립도, 지방세액, 지가변동률, 1인당 의료보험료, 도소매업 종사자수, 총사업체수, 총사업체 수 증감율, 총종사자 증감율	12개항목
물리·환경	•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소형주택비율, 공가율, 부동산 공시지가, 노후건축물 비율, 8m 미만 도로접도율, 과소필지 비율	8개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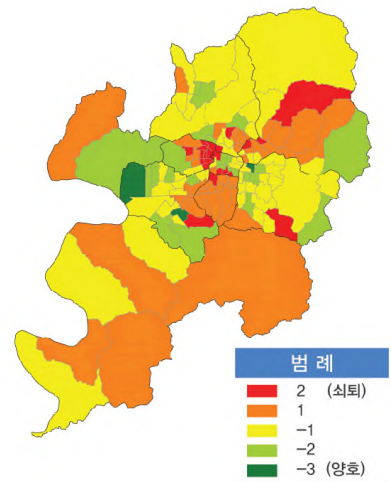
자료 :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대구광역시, 2016.12.)

❖ 도시경제기반형 복합쇠퇴지수가 높은 지역

- 전체 139개 읍면동 중 도시경제기반형 복합쇠퇴지수가 1등급 이상인 지역은 총 64개 동임
- 1등급 이상인 동이 많은 구는 서구가 14개동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13개동, 동구 12개동, 북구가 8개동이 분포됨

[표 3-3-1] 도시경제기반형 복합쇠퇴지수

구 분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합 계
중 구	-	4	3	1	4	12
동 구	-	1	7	9	3	20
서 구	-	1	2	4	10	17
남 구	-	-	-	12	1	13
북 구	-	4	11	6	2	23
수성구	1	5	15	1	1	23
달서구	2	6	9	4	1	22
달성군	-	1	3	5	-	9
합 계	3	22	50	42	22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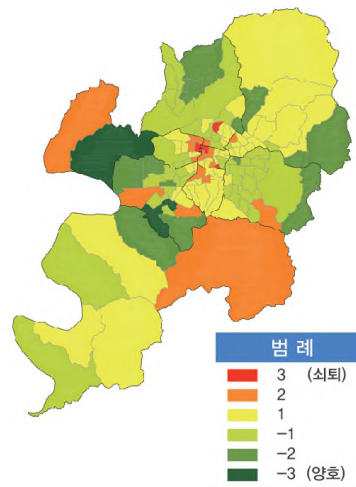
자료 :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대구광역시, 2016.12.)

❖ 근린재생형에서 쇠퇴가 가장 심한 지역

- 전체 139개 읍면동 중 근린재생형 복합쇠퇴지수가 1등급 이상인 지역은 총 72개 동으로 전체의 약 52%를 차지함
- 1등급 이상인 동이 많은 구는 동구가 15개동으로 가장 많고, 서구와 남구가 각 13개동, 중구가 10개동, 북구가 8개동이 분포함

[표 3-3-2] 근린재생형 복합쇠퇴지수

구 분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합 계
중 구	-	-	2	5	3	2	12
동 구	-	3	2	14	1	-	20
서 구	-	-	4	6	6	1	17
남 구	-	-	-	10	3	-	13
북 구	-	4	11	6	1	1	23
수성구	-	3	17	2	1	-	23
달서구	2	7	8	3	2	-	22
달성군	1	1	2	3	2	-	9
합 계	3	18	46	49	19	4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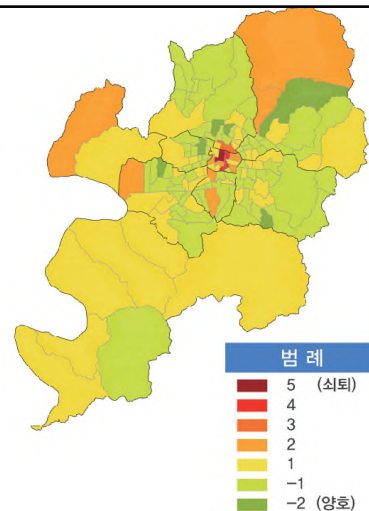
자료 :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대구광역시, 2016.12.)

❖ 도시 복합잠재력이 높은 지역

- 복합잠재력 1등급 이상은 전체 139개동 중 53개동으로 38%를 차지함
- 잠재력 1등급 이상이 가장 많은 구는 중구로 11개동이며, 달서구 8개동, 달성군 8개동, 동구 7개동, 수성구 7개동이 분포함

[표 3-3-3] 도시 복합잠재력 분석

구 분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 계
중 구	-	1	4	4	1	1	1	12
동 구	2	11	5	2	-	-	-	20
서 구	4	11	2	-	-	-	-	17
남 구	-	9	2	2	-	-	-	13
북 구	2	15	5	-	1	-	-	23
수성구	1	15	7	-	-	-	-	23
달서구	1	13	7	1	-	-	-	22
달성군	-	1	7	1	-	-	-	9
합 계	10	76	39	10	2	1	1	139



자료 :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대구광역시, 2016.12.)

나. 기본방향

1) 비전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젊은 대구

- 시민이 살고 싶은 공간을 스스로 제안하고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노후한 장소들을 젊고 새롭게 만들어 젊은이가 일하고 머무르고 싶어 하는 도시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젊은 대구」로 설정함



2) 목표

❖ 지역균형발전 도모

- 신·구시가지 균형 및 신개발지·노후주거지의 조화로운 도시공간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성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함
 - 과제 1 : 균형발전을 선도할 6대재생권역 설정
 - 과제 2 : 장소 맞춤형 재생전략 마련

❖ 도시활성화 제고

- 창조경제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을 일으키는 거점으로 육성함
 - 과제 3 :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 과제 4 : 재생사업을 선도하는 창조거점 설정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재생을 추진함
 - 과제 5 : 원활한 재생을 위한 재생역량 강화

다. 실천전략

1) 균형발전을 선도할 6대 재생권역 설정

❖ 기본원칙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함
- 대규모 이전후적지, 유헴지를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함
- 사회적·문화적 동질성 및 재생자원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자원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6대 재생권역과 2개의 도시재생 특정지역 설정

- 도심 외곽 개발에 대응하여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6대 재생권역을 설정함
- 외곽 신규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역의 기능 상실 및 쇠퇴 우려가 높은 지역 2개소를 도시재생특정지역으로 설정함

[표 3-3-4] 재생권역 설정

구 분		권역특성	잠재력
재 생 권 역	도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의 중심지로 상업 업무 문화의 중심지 • 유동인구가 가장 많음 • 공가율 및 노후도 등 물리적 쇠퇴가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차서비스 및 상업시설 집적지 • 문화유산 활용 관광객 유치 가능
	동대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구역세권 개발 • 노후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후적지 발생 • 금호강을 활용한 수변여가활동 용이
	서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산업단지 3개소 분포 • 공가, 노후화, 고령화 지수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여가공간 입지 • 서대구 KTX 역사 입지
	남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년대 조성된 대규모 단독주택지 밀집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4개교가 입지 • 다수의 특화거리 분포
	수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년대 조성된 대규모 단독주택지 밀집 • 기반시설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를 대표하는 지역명소 입지 • 문화예술 시설이 풍부
	월 배 화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구획과 택지개발이 혼재 • 기반시설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촉매역할 자산 분포 • 자연체험 자산 풍부
도 시 재 생 특 정 지 역	불 로 봉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시아폴리스 주변 • 산업경계 등의 쇠퇴가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유·무형자산 보유 • 기 추진사업과 연계로 파급효과 창출
	현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테크노폴리스 주변 • 노령인구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풍면 도시활력 증진사업 • 현풍백년도깨비 시장 협동조합

자료 :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대구광역시, 2016.12.)

❖ 권역별 발전전략

- 6개 재생권역과 2개의 도시재생특정지역의 입지특성과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반영하여 발전방향을 설정함

[표 3-3-5] 권역별 발전전략

구 분	특 징	발 전 전 략	주 요 사 업
도심권	• 상업, 업무문화의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많음	•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활력 가득한 도심부 중심성 회복	• 공연예술, 스포츠 활성화, 도심 관광 활성화, 도심골목 및 전통 시장 육성
동대구권	• 경북도청이전,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다수의 이전후적지 발생	• 영남권 교통·업무·상업을 담당하는 동대구광역 중심지 형성	• 동대구역세권개발, 이전후적지 개발, 금호강변 여가공간 정비, 마을공동체 운영
서부권	• 노후산업단지가 분포하며, 시가지의 심각한 노후화와 영세화가 진행 중임	• 대구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한 서대구 산업경제 신거점 육성	• 노후산단 재생, 서대구 역세권 개발, 이전후적지 문화공간 조성, 불량주거지 정비
남부권	• 도로는 양호하나,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비중이 높음	• 맛과 멋이 흐르는 특색 있는 지역예술 거점 형성	• 공연예술문화지구 조성, 지역 문화거점 조성, 마을 공동체 활성화
수성권	• 도로등기반시설이잘갖추어져 타권역대비 양호한 쇠퇴도를 보임	• 연인과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도심형 가족여가공간 조성	• 가족 여가공간 조성, 특화거리 장소성 강화, 단독주택 주거지 유지
월배화원권	• 신규개발이 현재도 진행 중인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지를 형성	•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로운 하루, 도시 속 휴가공간 조성	• 이전후적지 여가공간 정비, 마을공동체 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도모
블로봉무동	• 산업, 경제등의 쇠퇴가 진행 중인 지역	• 이시아폴리스와의 연계기능 강화	• 국제패션디자인지구와 연계 강화, 마을공동체 육성
현풍면	• 노령인구비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함	• 테크노폴리스지구 및 주변 사업과의 기능 연계 강화	• 테크노폴리스 연계강화,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브랜드 강화, 현풍·친수공간

자료 :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대구광역시, 2016.12.)

2) 장소 맞춤형 재생 전략 마련

❖ 기본원칙

- 쇠퇴기능의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해야 할 공간적 의미를 감안하여 재생방향을 설정함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도록 유형 및 기능을 부여함
- 지역의 자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경제, 문화, 주거 분야에 특화된 재생방향을 설정함

❖ 재생유형별 재생방향 선정

- 사업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재생방향을 설정함

[표 3-3-6] 재생유형별 재생방향

구 분	재 생 방 향	비 고
도시경제기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 또는 기존 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도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공공의 선투자를 통하여 민간투자를 유발하여 민·관 합동으로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주변지역과의 상생 도모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등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의 기능증진과 회복 • 상주인구 및 방문객 증가 촉진을 위한 사업 활성화 	
일반근린재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소득 창출 	

자료 :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대구광역시, 2016.12.)

3)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 기본원칙

- 복합쇠퇴지구 및 복합잠재력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등급화함
- 상위 및 관련계획, 이전후적지 포함여부, 연계가능 사업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함

❖ 28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 도시경제기반형 3개소,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6개소, 일반근린재생형 19개소를 설정함

[표 3-3-7]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구 분		대 상 지	비 고
도시경제기반형		• 노후산단재생(서대구, 3공단일원), 역세권 재생(동대구역), 이전적지 활용 재생(경북도청)	3개소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원 도 심	• 도심역사문화지구, 교동시장, 칠성시장 일원	3개소
	지역중심지역	• 동춘유원지, 대구교도소 이전후적지, 두류정수장 일원	3개소
일 반 근린재생형	특화자원 중심	• (구)구암서원, 불로고분군, 고미술거리, 공연문화거리, 들안길 먹거리 타운	5개소
	주 거 환 경	• 대명1동, 범어2동, 지산1동, 송현1동, 송현2동	5개소
	노후주거지	• 남산동, 효목2동, 내당2·3동, 비산1동, 비산2·3동, 봉덕3동, 대현동, 화원읍, 현풍면	9개소

자료 :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대구광역시, 2016.12.)

4) 원활한 재생을 위한 재생역량 강화

❖ 제도적 기반의 강화

- 재생사업의 전담조직 확대 및 전문화 및 역량을 강화함
- 부서간 협업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주민맞춤형 지원체계의 확대

- 창의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전문화함
- 센터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연합교육시스템 도입 등 지원체계를 확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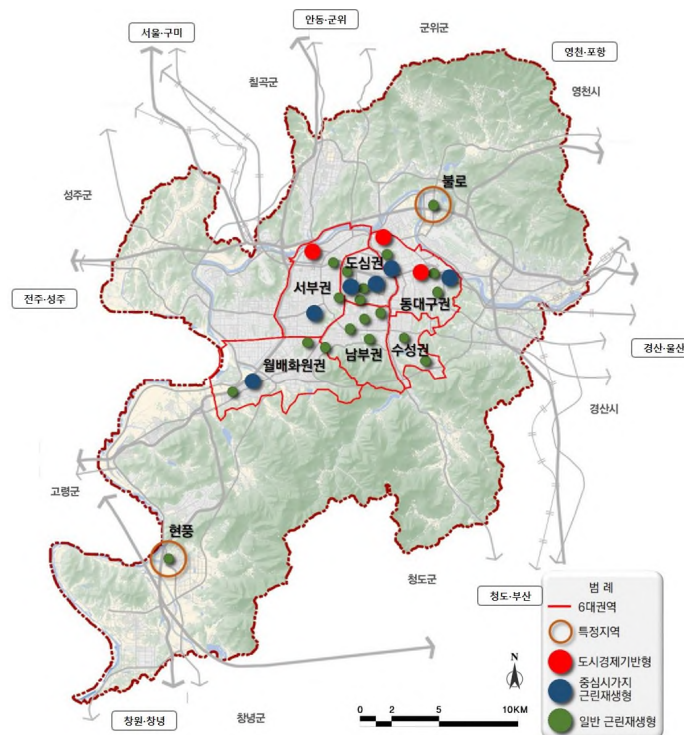
5) 재생사업을 선도하는 창조거점 설정

❖ 기본원칙

- 한정된 자원의 최적배분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10년간 재생사업을 우선 추진할 거점을 선정함
- 광역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 및 사업수행 가능성을 고려함

❖ 창조거점 설정

- 재생 창조거점은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도시경제기반형 2개소,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3개소, 일반근린재생형 8개소를 설정함



[그림 3-3-1] 창조거점 설정도

[표 3-3-8] 창조거점

구 분	대 상 지	비 고
도시경계기반형	• 노후산업단지, 경북도청 이전후적지	2개소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 대구교도소 이전후적지, 교동시장, 동춘유원지	3개소
일반근린재생형	• 효목2동, 비산1동, 비산2·3동, 대명문화지구, 대명2동, 대현동, 상동, 송현1동	8개소

자료 :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대구광역시, 2016.12.)

❖ 창조거점별 발전방향

- 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13개 창조거점별 발전방향을 설정함

[표 3-3-9] 창조거점별 발전방향

구 분	면 적(k㎡)	발 전 방 향
노후산업단지	9.3	• 업종고도화를 통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 서대구역세권 개발 촉진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추진
경북도청 이전후적지	3.5	• 도청이전 후적지와 연계된 포괄적인 종합재생사업 추진 • 창조경제단지, 동대구역, 검단들과 연계된 경제벨트 형성
대구교도소 이전후적지	1.2	• 화원 전통시장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거점 형성 • 천내천 수변공원 조성
교동시장	0.3	•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IT 융합거점 조성 • 청년창업 활성화 및 특화거리 상권 재생
동춘유원지	0.7	• 노후 놀이시설 및 가로환경 정비 • 수변여가공간 활용 등으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간 재탄생
효목2동	0.6	• 동구시장 연계 노후 주거지 재생
비산1동	0.4	• 원고개 일원 노후 주거지 재생 •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 형성 및 재생 추진
비산2·3동	0.6	• 달성토성연계 노후 주거지 재생
대명문화지구	2.2	• 주거환경 재생 및 복지사업 확대 • 문화 예술 기반 강화
대명2동	0.5	• 고미술 거리 연계 특화거리 중심 재생
대현동	0.4	• 경북도청 이전후적지와 연계한 노후주거지 재생
상 동	0.6	• 들안길 특화거리와 연계한 단독주택지 환경 재생
송현1동	1.0	• 단독주택 밀집지역 공동이용공간 중심 재생

자료 :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대구광역시, 2016.12.)

3.3.2. 도심 및 시가지 정비

가. 현황분석

❖ 기성시가지 형성 특징을 감안한 시가지 정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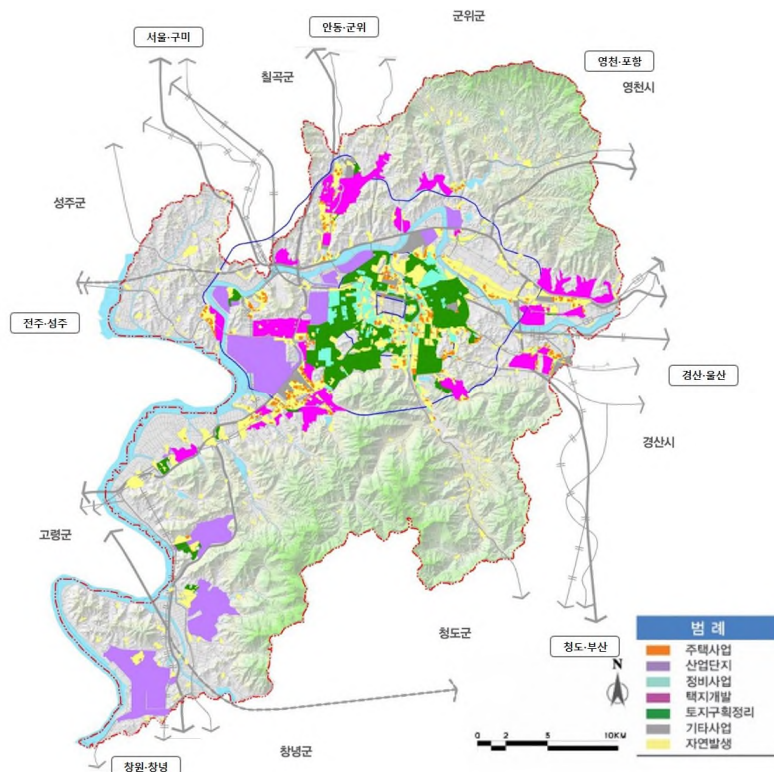
- 대구의 시가지는 대구읍성을 중심으로 외연적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공간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자연발생형 시가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및 주택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대규모로 조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개별 블록별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및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택지개발사업지구는 4차순환선 내외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변의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임
- 산업단지 중 금호강변에 입지한 3공단 등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추진한 특징이 있고, 외곽의 산업단지는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주생활환경 조성 및 연계된 시가지 관리가 필요함

[표 3-3-10] 시가지 형성 특징

(단위 : km², %)

구 분	면 적	구성비
합 계	180.200	100.00
자연발생	64.200	35.63
토지구획	33.000	18.31
도시개발	3.746	2.08
정비사업	9.101	5.05
주택사업	8.284	4.60
택지개발	24.846	13.79
산업단지	37.022	20.54

※ 자연발생 : 자연발생형 시가지
 ※ 토지구획 :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 도시개발 : 도시개발사업 지구
 ※ 택지개발 : 택지개발사업 지구



❖ 기성시가지 내 과밀 해소방안 강구 필요

- 시가지 내에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지구는 총 272개 지구로 택지개발지구가 39개 지구, 주택사업지구가 94개 지구, 정비사업지구가 7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방식)은 3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발)은 35개 지구가 분포하고 있음
-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주택지의 인구밀도는 평균 310인/ha이며, 택지개발사업은 271인/ha이나, 주택사업은 492인/ha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방식은 620인/ha임
- 인구밀도의 과다는 기반시설 부족 및 생활환경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사업 및 정비사업의 인구밀도 하향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표 3-3-11] 개발사업유형별 인구밀도 현황

(단위 : km², 호, 인, 인/ha, 지구)

구 분	면 적	세대수	인 구	인구밀도	지 구
합 계	40.331	401,156	1,252,038	310	272
택지개발	29.997	224,065	811,821	271	39
주택사업	2.814	55,321	138,324	492	94
정비사업	4.840	73,013	179,989	372	73
주거환경(공동)	0.746	18,495	46,243	620	31
주거환경(현지개발)	1.934	30,262	75,661	391	35

자료 : 대구시 내부자료

❖ 상업용지의 중심지기능 강화 필요

- 도시의 업무 및 판매기능 등 중심지 기능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업용지를 18.261km² 결정하였으나 상업용지내 건축물은 주택이 36.7%를 차지하고 있음
- 상업지역내 고층의 주상복합건축물이 입지하여 중심지 기능 약화,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및 기반시설 부족의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상업용지가 중심지 기능을 원활히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 및 판매용도의 건축물의 입지 촉진을 위한 시가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관형성을 고려한 층수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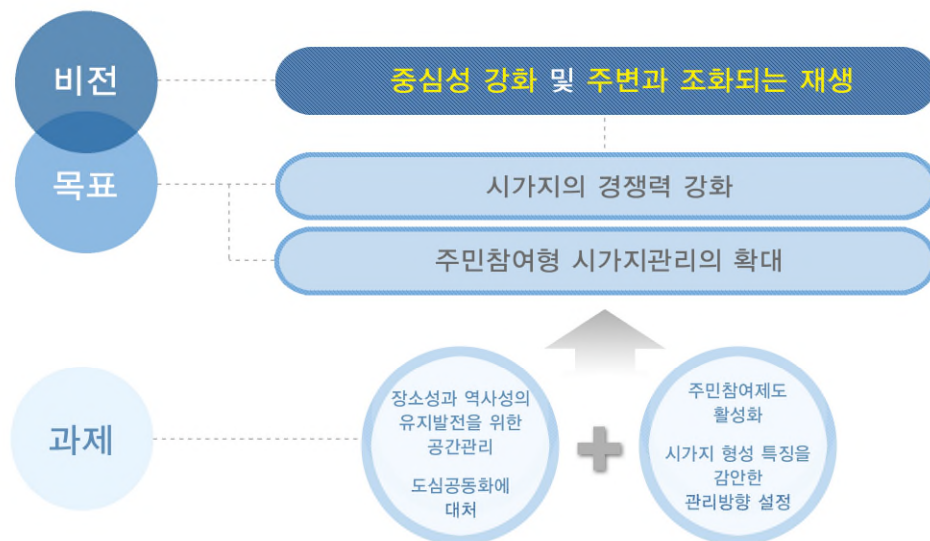
- 대구 읍성 내부지역은 중심상업지역 및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의 단독, 한옥 주택지 등이 3층 이상으로 신축할 수 없어서 주거환경이 쇠퇴하고 있음
- 도심부 내 외곽주거지의 높이가 역전되어 도심부는 20~30층, 외곽부는 40~50층이 입지해 중심지와 주변주거지와 경관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됨
- 중심지의 다양한 기능의 집적 유도 및 경관적인 조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가지 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나. 기본방향

1) 비전

❖ 중심성 강화 및 주변과 조화되는 재생

- 기성시가지는 시민생활의 편리성을 충족하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대구만의 독창적인 특징이 유지발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도심 및 시가지 재생의 비전은 각 생활권의 「중심성의 강화 및 주변과 조화되는 시가지 재생」으로 설정함



2) 목표

❖ 시가지의 경쟁력 강화

- 도심 및 기성시가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입기능의 조화 유도 및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시가지의 경쟁력을 강화함
- 과제 1 : 장소성과 역사성의 유지발전을 위한 공간관리
- 과제 2 : 도심공동화에 대처

❖ 주민참여형 시가지관리의 확대

-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기회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참여형 시가지 관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과제 3 :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 과제 4 : 시가지 형성 특징을 감안한 관리방향 설정

다. 실천전략

1) 장소성과 역사성의 유지발전을 위한 공간관리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인구 밀도관리계획 수립

- 인구밀도는 개발용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시민들의 합의가 없는 밀도관리계획의 수립은 실현성이 상실될 수 있음
- 밀도관리의 필요성과 밀도관리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밀도관리계획을 수립함
- 인구밀도는 국토교통부 권장사항인 150인/ha(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제시된 용적률 150% 적용시 인구밀도)를 반영하여 생활권별로 관리함

❖ 이전후적지, 유휴지 등을 활용한 생산·편익시설 확충

- 기성시가지 내에는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새로운 기능 및 편익시설의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 후적지 및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
- 이전 후적지를 활용하여 직·주근접형 기능의 유입으로 기성시가지의 재생 촉진을 유도함

❖ 도심의 중심성을 높이는 상업·업무 기능 강화

- 대구도심의 평균 용적률이 231.2%로 대도시 도심부 평균 용적률 300%보다 낮아 용적률 제고가 필요함
- 도심부 기반시설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상업·업무·주거기능을 복합화하고 상업기능 비율을 현 10%에서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함

2) 도심공동화에 대처

❖ 커뮤니티의 형성 강화

- 서성로, 북성로 주변 최저고도지구가 해제되었으므로 실질적인 1~2층 재건축이 가능하여 도심환경정비의 실제적 방안을 추진함
- 옛 사보이호텔 주변 가로는 쇠퇴한 노선 상가로 되어 쇠락한 환경을 주변조합과 합동으로 도심형 재건축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며, 경사감염과 조화된 건축물로 유도함
- 읍성내 동·서문을 연결하는 경사감염길은 녹지대를 확보하여 동서녹지축으로 조성함
- 커뮤니티지원시설이 부족하여 생활지원시설 확보가 필요함

- 도심의 쇠퇴한 환경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정비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강화함

❖ 사회적 기업의 도입 확대

-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영업수익을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거나 사회적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 및 지역 문제에 공동 대응을 통하여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과정 중에 사회적 기업의 도입 및 지원을 확대함

❖ 도심 TOD 도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보행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위주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역세권 주변의 복합개발을 권장함
- 도심은 가급적 보행위주 녹색교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대 및 도심 외곽에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하여 도심내부로는 가급적 차량 접근을 통제 하도록 함

3)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 마을 거버넌스 활성화

-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마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유도하여 공동체의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인 지원을 탈피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도시대학 등 도시문제 접근을 위한 교육기회 및 지원 확대

- 도시문제는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를 갖고 있어 특정 분야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은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됨
- 기 운영 중인 도시대학 등을 활성화하여 도시문제에 대한 문제점 이해 및 해결책 마련, 집행을 위한 체계화된 접근 방법을 사전에 교육함

❖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 주민참여제도로서는 주민제안과 공람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각종 사업시행 시 주민에 대한 개별통보를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함

4) 시가지 형성 특징을 감안한 관리방향 설정

❖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정비예정구역 추가 지정 제한

-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단독주택은 주차공간 부족 등 기반시설 여건 및 경관 부조화 유발 등의 사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고 있음
-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넓게 형성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적용하여 관리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호수밀도 관리 강화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공동주택 방식을 적용한 지역의 사업은 완료 및 공사 중에 있어 별도 관리는 불필요함
- 현지개량방식은 개별주택의 개량률이 사업지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50%내외 수준이므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호수 밀도 관리를 강화함

❖ 자연발생형 시가지의 기반시설 정비 및 주변경관과 조화 유도

- 농촌 취락지 중 일부 지역은 다양한 기능 유입 촉진을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고층 공동주택 유입으로 경관부조화를 유발하고 있어 높이 관리를 강화함
- 2차순환선 내·외부 지역은 근대역사·문화유산이 산재된 지역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경관 부조화 방지 및 문화자산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관리를 강화함

❖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지구는 당초 개발목적의 유지 발전

-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역은 당초의 개발 목적의 유지를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은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함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관리 강화

-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후 기간 경과로 인해 실효된 지역은 실효고시 후 용도지역으로 만 관리되고 있어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음
-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개별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적정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도시문제 발생의 소지가 높은 지역임
- 토지이용정보 시스템에 별도 항목으로 해제지역임을 명시하고, 개별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3.3.3. 주거환경계획

가. 현황분석

❖ 원룸중심의 다가구 및 아파트중심의 주택공급에 대처

- 단독주택의 변화추세가 201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에 일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현상은 주택유형의 분류의 再산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이후 단독주택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주거유형의 다양화 및 선호 주거양식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단독주택지의 유지관리가 필요함
-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서 1인세대의 지속적인 증가와 단독주택의 소규모 필지에 개별 건축이 용이함에 따라 원룸 형태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음
- 단독주택지의 기반시설 부족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므로 주택공급과 연계된 기반시설 공급 및 주변과의 조화 유도를 위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표 3-3-12] 주택유형별 현황

(단위 : 호,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합 계	853,893	871,127	886,842	904,557	917,459	934,506	952,792	943,431	1.43
단 독	80,132 (9.38)	79,396 (9.11)	67,336 (7.59)	98,917 (10.94)	97,456 (10.62)	95,560 (10.23)	94,512 (9.92)	81,301 (8.62)	0.21 (-1.21)
다가구	258,499 (30.27)	261,372 (30.00)	269,306 (30.37)	279,560 (30.91)	290,137 (31.62)	296,993 (31.78)	305,963 (32.11)	279,831 (29.66)	1.14 (-0.29)
아파트	427,104 (50.02)	442,291 (50.77)	464,960 (52.43)	473,733 (52.37)	476,456 (51.93)	487,719 (52.19)	497,016 (52.16)	509,068 (53.96)	2.54 (1.09)
연 립	7,731 (0.91)	7,731 (0.89)	5,084 (0.57)	5,084 (0.56)	5,460 (0.60)	5,625 (0.60)	5,832 (0.61)	9,381 (0.99)	2.80 (1.35)
다세대	45,993 (5.39)	45,983 (5.28)	47,099 (5.31)	47,263 (5.22)	47,950 (5.23)	48,609 (5.20)	49,469 (5.19)	53,098 (5.63)	2.07 (0.63)
기 타	34,434 (4.03)	34,354 (3.94)	33,057 (3.73)	-	-	-	-	10,752 (1.14)	-1.32 (-16.52)

자료 : 대구광역시, 주택통계연감, 해당년도

❖ 공동주택의 소규모 개발에 따른 과밀 해소방안 고려

- 선호주거양식이 아파트로 변화되고 있으며, 아파트의 공급은 연평균 2.54%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공급된 주택사업 84개소에 대한 호수밀도는 평균 221호/ha로 분석됨
- 공동주택 부지규모별 호수밀도의 경우, 2만㎡ 이하의 소규모 블록은 240호/ha인 반면에 3만㎡ 이상 블록은 217호/ha로 조사됨
- 이러한 현상은 소규모 블록에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주변의 경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배치하고, 정주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음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공동주택의 개발은 적정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해 주택사업 등의 규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표 3-3-13] 공동주택 규모별 현황

(단위 : 지구, ㎡, 호, 호/ha)

구 분	지구수	면 적	세대수	호수밀도
합 계	84	2,499,090	55,321	221
2만㎡이하	23	364,459	8,763	240
3만㎡이하	26	650,238	14,346	221
3만㎡이상	35	1,484,394	32,212	217

자료 : 대구시 내부자료, 시가지 형성특징별 밀도

❖ 주택보급률은 103% 내외에서 정체

- 주택 수 산정을 2008년에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주택보급률이 2007년 99.2%에서 2008년 103.0%로 변화되었음
- 주택보급률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0.2%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0.13%의 완만한 증가 추세임

[표 3-3-14] 주택보급률 현황

(단위 : 천호,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¹⁾	
										'08~'15	'08~'14
가구수	823.4	829.3	834.6	868.3	881.7	893.5	905.5	917.7	928.5	1.51	1.70
주택수	816.9	853.9	871.1	886.8	904.6	917.5	934.5	952.8	943.4	1.82	1.58
보급률	99.2	103.0	104.4	102.1	102.6	102.7	103.2	103.8	101.6	-0.20	0.13

자료 : 통계청, 건설·주택·토지, 건설, 주택보급률, (신) 주택보급률

주1) 주택보급률의 증가율은 2008년부터 2014년 까지를 적용(주택보급률 산정 방식 변경)

❖ 이사수요는 10% 내외에서 연평균 2.2%의 감소 추세

- 대구시 내 총 이동건수는 2001년 15만건에서 2015년 13.2만건으로 연평균 0.89%의 감소 추세를 보임
- 인구 이동의 패턴이 구·군내의 이동은 0.25%의 감소 추세이며, 구·군간의 이동도 1.25%의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시·도간의 이동은 0.24%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3-3-15] 이사수요현황

(단위 : 호, 건, %)

구 분	세대수	이동건수	이동률	구·군내	구·군간	시·도간
2001	815,709	149,726	18.36	66,872	92,786	-9,932
2005	865,766	150,461	17.38	73,549	92,860	-15,948
2010	934,598	133,486	14.28	65,561	78,749	-10,824
2015	982,360	132,080	13.45	64,603	77,754	-10,277
증가율	1.34	-0.89	-2.20	-0.25	-1.25	0.24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인구이동, 국내인구이동통계, 이동건수

❖ 매년 멸실주택은 0.4%가 발생

- 매년 멸실되는 주택은 3천호 내외였으나 2015년 5,670호로 급증됨
- 주택멸실률은 2010년 이후 0.4% 내외를 보였으나, 2015년에 0.6%로 증가하여 주택 멸실비율은 연평균 8.26%의 증가 추세를 나타냄

[표 3-3-16] 멸실주택 현황

(단위 : 호, %)

구 분	합 계	단 독	다가구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기 타
2010	0.39	2.55	0.28	0.20	0.47	0.07	-
2011	0.37	1.99	0.38	0.05	-	0.08	-
2012	0.35	2.09	0.39	-	0.53	0.02	-
2013	0.40	2.52	0.29	0.07	0.28	0.17	-
2014	0.38	1.86	0.55	0.00	0.14	0.26	-
2015	0.60	3.24	0.58	8.05	0.93	0.03	-
멸실비율 증가율	8.26	4.89	15.33	-30.04	76.33	66.67	-

자료 : 통계청, 건설·주택·토지, 주택, 주택보급률, 주택멸실현황 해당년도

❖ 임대주택공급이 37,677세대라서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필요

- 전체 세대수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68%로서 주거안정을 위한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
- 대구광역시 내 임대주택은 2015년 현재 총 55,780호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4.87%임

[표 3-3-17] 임대주택 공급 현황

(단위 : 호,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세대수	904,470	934,598	940,770	948,652	960,265	970,618	982,360	
비 율	4.63	4.68	5.03	5.08	5.24	5.17	5.68	
합 계	41,931	43,725	47,279	48,176	50,276	50,184	55,780	4.87
40㎡이하	25,636	25,651	27,412	26,759	28,660	28,530	32,127	3.83
40~60㎡	11,762	13,933	15,866	16,080	17,161	17,204	18,620	7.96
60~85㎡	4,267	3,861	3,593	4,856	3,863	4,048	4,431	0.63
80㎡초과	266	280	408	481	592	402	602	14.58

자료 : 통계청, 건설·주택·토지, 주택, 임대주택 통계, 임대주택 재고현황, 해당년도

❖ 신규주택 공급은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이 주도하는 형태임

- 신규주택은 2010년 9,230호에서 2015년 40,349호를 공급되어 연평균 34.32%의 증가 추세임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9.43%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세대와 다가구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3-18] 신규주택 공급 현황

(단위 : 호, %)

구 분	합 계	단 독	다가구	아파트	연 립	다세대
2010	9,230	650	5,275	3,138	-	167
2011	27,231	545	16,413	9,348	315	610
2012	22,349	1,138	10,246	9,872	331	762
2013	26,857	693	9,839	15,331	159	835
2014	29,269	903	11,689	15,638	70	969
2015	40,349	974	14,885	23,379	316	795
증가율	34.32	8.42	23.06	49.43	0.08	3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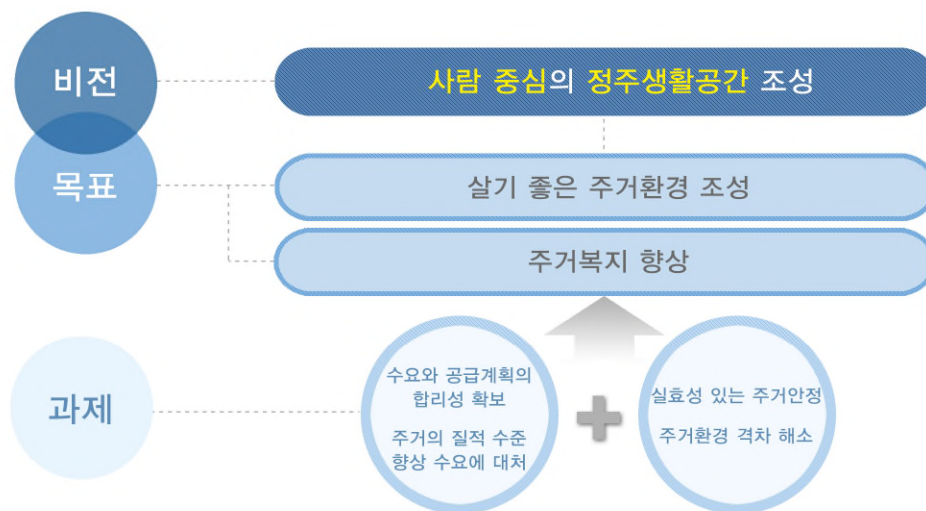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건설·주택·토지, 주택, 주택건설실적통계, 주택유형별 건설실적(다가구 구분), 해당년도

나. 기본방향

1) 비전

❖ 사람 중심의 정주생활공간 조성

- 주거공간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사람 중심의 쾌적성 향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비전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친환경,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산업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사람중심의 직주근접형 정주생활공간 조성」으로 설정함



2) 목표

❖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선호 주택 및 환경을 감안한 안정된 주택수요와 공급을 위한 관리 및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요구에 적극 대처함
- 미래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관리방향을 설정하여 유지 관리함
 - 과제 1 : 수요와 공급계획의 합리성 확보
 - 과제 2 :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 수요에 대처

❖ 주거복지 향상

- 주거 수요계층의 재정적 여건 및 요구 환경 수준을 감안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과도한 주거환경 격차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거복지수준을 향상함
 - 과제 3 :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 과제 4 : 주거환경 격차 해소

다. 실천전략

1) 수요와 공급계획의 합리성 확보

❖ 주택필요 가구수 설정

- 가구수는 <표 2-2-36>의 인구 및 가구 지표에서 설정된 1,088,368호를 적용함(1인 가구는 266,925호, 일반가구는 821,443호)
- 주택필요 가구수는 주택필요가구 비율의 증가추세를 적용하여 총 가구수의 98.6%인 1,073,326호로 설정함

[표 3-3-19] 가구수

(단위 : 호, %)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가구수(A)	982,360	1,015,975	1,048,387	1,088,368
주택필요가구비율(B)	94.5	95.9	97.2	98.6
주택필요가구(A×B)	928,500	973,963	1,019,364	1,073,326

❖ 주택보급률

- 주택보급률 변화 추세가 2015년에 급감하여 증가율이 -0.20%로 분석되나, 2014년까지의 증가 추세가 0.13%로 편차가 발생됨
- 미래 예측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위해 주택보급율의 변화 추세는 2014년까지의 증가 추세를 적용하여 2030년 대구시 주택보급률을 106%로 설정함

[표 3-3-20] 주택보급률

(단위 : %)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주택보급률	103.90	104.60	105.30	106.00

❖ 주택멸실률

- 주택멸실률은 연평균 증가율 8.26% <표 3-3-16>를 적용하여 2030년 대구시 멸실주택의 비율을 1.98%로 설정함

[표 3-3-21] 주택멸실률

(단위 : %)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주택멸실률	0.60	0.89	1.33	1.98

❖ 주택유형별 비율

- 주택의 유형별 비율은 각 주택유형의 과거 변화추세 <표 3-3-12>를 연장하여 설정함
 - 단독주택은 통계자료의 불일치(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유형분류를 조정)를 감안하여 2011년 이후의 변화추세 적용(증가율 -1.51%)
 -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구성비의 변화 추세를 적용

[표 3-3-22] 주택 유형별 비율

(단위 : %)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단 독	8.62	7.98	7.83	7.43
다가구	29.66	28.76	30.43	30.69
아파트	53.96	56.05	54.77	54.98
연 립	0.99	1.05	1.02	1.03
다세대	5.63	5.71	5.75	5.79
기 타	1.14	0.45	0.19	0.08

❖ 주택수요 설정

- 주택보급률 <표 3-3-20>, 주택멸실률 <표 3-3-21> 등을 적용한 결과 2030년 대구시의 주택수요는 1,159,806호로 산정됨

[표 3-3-23] 주택수요

(단위 : 호, %)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가구수 (A)	928,500	973,963	1,019,364	1,073,326
주택보급률(B)	101.60	103.10	104.70	106.00
필요주택수 (C=A×B)	943,431	1,018,826	1,073,215	1,137,337
멸실률(D)	0.60	0.89	1.33	1.98
멸실주택 (E=C×D)	5,670	9,104	14,260	22,469
주택수요 (C+E)	-	1,027,930	1,087,475	1,159,806

❖ 주택유형별 수요설정

- 2030년 대구광역시 총 주택수요량 1,160천호 <표 3-3-23>에 대해 주택유형별 비율 <표 3-3-22>을 적용하여 주택유형별 수요를 설정함

[표 3-3-24] 주택유형별 수요량 (단위 : 호)

구 분	2015년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합 계	943,431	1,027,930	1,087,475	1,159,806
단 독	81,301	82,009	85,128	86,163
다가구	279,831	295,643	330,945	355,993
아파트	509,068	576,114	595,645	637,607
연 립	9,381	10,753	11,095	11,934
다세대	53,098	58,737	62,571	67,197
기 타	10,752	4,674	2,091	912

❖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 주택유형별 공급은 2015년 주택현황을 기준으로 각 단계별 수요량 <표 3-3-24>을 반영하여 산정
- 2015년 주택현황과 각 단계별 주택수요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주택유형별로 총 216천호의 주택을 공급함

[표 3-3-25]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단위 : 호)

구 분	합 계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합 계	216,375	84,499	59,545	72,331
단 독	4,862	708	3,119	1,035
다가구	76,162	15,812	35,302	25,048
아파트	128,539	67,046	19,531	41,962
연 립	2,553	1,372	342	839
다세대	14,099	5,639	3,834	4,626
기 타	-9,840	-6,078	-2,583	-1,179

2)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 수요에 대처

❖ 주거지역내 부족한 기반시설의 점진적 확충

- 주거지역내 기반시설 중 도로가 20.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민들의 휴식 및 대면 공간은 부족함(1인당공원면적 : 9.9㎡, 1인당 문화시설 면적 : 6.3㎡)
-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하여 시설 이용객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도모함
- 각 소생활권별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유도함

❖ 주택 특징을 감안한 커뮤니티공간의 확충

- 공동주택과 단독, 다가구 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은 주거유형 및 공간구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한 차별화가 필요함
- 공동주택은 기존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고 기능의 변화를 유도함
-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은 커뮤니티 기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커뮤니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함
-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공공에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ex: 도시 닥터)

3)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 부담가능 범위를 고려한 주택 공급

- 도시지역 내에 주택 공급은 수요자의 부담 가능성을 감안하기보다는 공급자의 의지를 반영한 공급이 일반화된 실정임
- 대단위로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에서 점차 개별 주택수요자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강화함

❖ 자립형 주거복지의 실현

- 복지정책을 시혜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기 시행된 복지정책은 사회적 반발로 인하여 축소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시혜성 복지에서 탈피하여 훈련 프로그램 등의 확대로 자립형 주거복지를 실현함

4) 주거환경 격차 해소

❖ 주택개량사업의 확대

- 현행 기성시가지의 정비사업 방식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철거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기성시가지의 장소성과 역사성의 유지발전에 부정적임
- 향후 기성시가지의 정비사업은 시설의 보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수복재개발 방식을 적극 도입함

❖ 정비사업의 공공역할 강화

- 현행 정비사업이 정비계획의 수립 권한을 공공에서 갖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이 민간 제안을 공공이 수용하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음
- 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 민간 제안 중심의 계획 수립에서 탈피하여 공공의 역할을 강화함

3.4. 환경의 보전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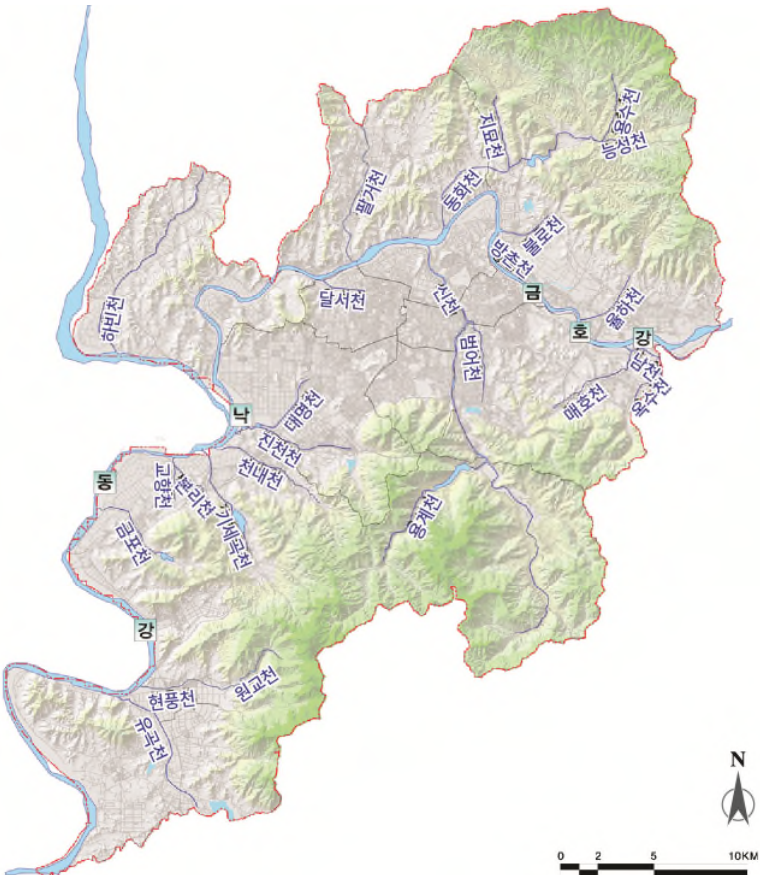
3.4.1. 수환경

가. 현황분석

- ❖ 도시 내에 적극적 활용이 가능한 하천이 다수 분포
-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금호강의 총연장은 99.47km이며, 지방하천이 24개소 176.55km임
- 지방하천 24개소 중 시가지를 관류하는 하천은 11개소이며, 비시가지를 관류하는 하천은 13개소임

[표 3-4-1] 하천현황

구 분		하 천
시가지관류하천 (11)	개거(8)	매호천, 옥수천, 불로천, 팔거천, 율하천, 숙천, 현풍천, 신천
	복개(3)	범어천, 달서천, 진천천
비시가지관류하천(13)		남천, 동화천, 지묘천, 용수천, 능성천, 하빈천, 용계천, 차천, 천내천, 기세곡천, 금포천, 본리천, 교항천



[그림 3-4-1] 하천분포 현황도

❖ 자동측정망 측정값이 환경기준을 대부분 충족

- 행정구역 내를 관류하는 하천에 수질 자동측정망은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낙동강, 금호강 및 지방하천에 각각 5개소씩 설치되어 있음

[표 3-4-2] 측정망 현황

구 분	측정망
낙동강(5)	달성, 화원나루, 고령, 논공, 현풍
금호강(5)	금호강2A, 금호강3, 금호강4, 금호강5, 금호강6
기 타(5)	하빈천, 차천, 팔거천, 청통천, 칠곡

- 자동측정망의 측정값을 분석한 결과 측정망 15개 지점에서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하천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달서천 1개소 2.2km가 완료되었으며, 방촌천, 매호천, 천내천 3개소 15.2km가 추진 중에 있음
-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범어천, 신천, 동화천, 팔거천 4개소 13.83km가 완료되었으며, 불로천 1개소 3.5km가 추진 중에 있음
-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대명천, 진천천에 3.9km 구간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낙동강은 낙동강 하천 기본계획에서 하천의 지구별 관리계획을 보전(일반, 특별, 완충), 친수(근린, 친수), 복원지구로 세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표 3-4-3] 하천정비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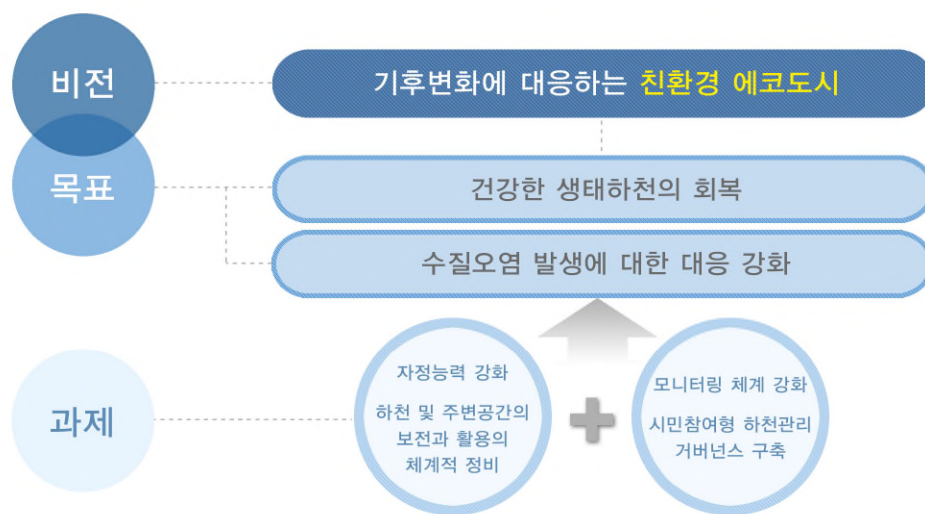
사업구분	하천명	사업구간	연 장	사업기간	비 고
고향의강	달서천	평리교~금호강합류	L=2.2km	'12.1~'16.10	완 료
	방촌천	방촌동~금호강합류	L=5.2km	'13.1~'19.12	공사중
	매호천	삼덕동~남천합류점	L=3.2km	'11.1~'17.12	공사중
	천내천	본리리~성산리	L=6.8km	'13.1~'17.12	공사중
물순환형	대명천	성당못~진천천합류점	L=1.1km	'11.1~'20.12	공사중
유지용수	진천천	유천교하류~낙동강합류점	L=2.8km	'13.1~'17.12	공사중
생태하천 복 원	범어천	두산오거리~범어동신천합류	L=2.3km	'11.1~'16.3	완 료
	신천	상동교~금호강	L=8.7km	'09.1~'15.12	완 료
	동화천	공산댐하류~지묘동	L=1.7km	'10.1~'13.3	완 료
	팔거천	거동교~대동교	L=1.13km	'09.10~'14.7	완 료
	불로천	도동~금호강합류	L=3.5km	'10.1~'17.2	공사중

나. 기본방향

1) 비전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에코도시

- 물은 인간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으로서 자연환경의 유지를 위한 주요한 원소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질 환경의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수환경의 자정 능력의 범위 내에서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전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에코도시」로 설정함



3

부문별
계획

2) 목표

❖ 건강한 생태하천의 회복

- 생태적으로 양질의 환경기준을 달성하고 도시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함
 - 과제 1 : 자정능력 강화
 - 과제 2 : 하천 및 주변공간의 보전과 활용의 체계적 정비

❖ 수질오염 발생에 대한 대응 강화

- 과거에 설치된 합류식 관거의 정비부족 및 하수관거의 인접에 따른 오·폐수 유입의 가능성이 높아 오염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깨끗한 수질의 유지를 위하여 오염원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질 오염 대응을 더욱 강화함
 - 과제 3 : 모니터링 체계 강화
 - 과제 4 : 시민참여형 하천관리 거버넌스의 구축

다. 실천전략

1) 자정능력 강화

❖ 하천 유지수 확보

- 지역의 기상 특징이 하절기에 집중강우로 하천 유지수 확보에 많은 제약이 있고, 하수관로가 합류식 비율이 높아 우수를 활용한 유지수 확보에 제약이 높아 하천 수질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 하천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용수의 이송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역행하는 점을 감안, 상류에 적정 저류공간을 확보 및 분류식 관거 도입을 확대하여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함

❖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의 조성 확대

- 복개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하천의 생태계를 생물서식처 및 도시환경 정화 등을 수행하는 생태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함
-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훼손된 생태계가 다시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하천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 하천 수질개선

- 「2020년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계획」의 지표를 적용하여 2030년도 수질(BOD)을 낙동강 1.7mg/ℓ, 금호강 2.6mg/ℓ 으로 설정함

[표 3-4-4] 하천 수질(BOD) 지표

(단위 : mg/ℓ)

구 분	2015	2020 ¹⁾	2025	2030	비 고
낙동강	2.6	1.9	1.8	1.7	-
금호강	4.3	2.8	2.7	2.6	-

주1) 2020년도 지표는 2020년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계획을 적용

2) 하천 및 주변공간의 보전과 활용의 체계적 정비

❖ 하천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강화

- 하천의 자연환경의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보전지구(일반, 특별, 완충), 복원, 친수(근린,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낙동강은 2016년에 세분된 지구로 고시를 완료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지역 내의 하천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을 통하여 하천의 특성이 반영된 보전, 복원, 친수지구의 관리를 강화함

❖ 친환경적인 자연과 생태계를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 확보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시가지가 콘크리트로 피복되어 도시환경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도시 내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의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천을 활용한 치수기능과 생태 서식처 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자연에 가까운 친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쾌적한 정주생활환경을 조성함

3)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생태계 모니터링 체계의 정비

- 돌발적 수질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하천 오염도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함
- 하천 생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 배출원 및 배출관거의 관리 강화

- 폐수 배출 업소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하수처리장의 운영을 통해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성시가지와 접한 금호강 수계의 오염물질 발생 비율이 높아 배출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금호강은 노후산단의 분포가 높고, 합류식 관거의 노후화에 따른 유출의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 배출원 및 배출관거의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함

4) 시민참여형 하천관리 거버넌스 구축

❖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의 구축

- 지자체 주도의 하천 환경관리정책은 주민들의 동의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집행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성공적인 하천협업체 활동 확산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하천관리청, 지역 전문가가 하천 생태복원사업의 주요한 결정에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여 생태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유역 전반에 걸친 생태적 가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함

통합 수 자원 관리				
수질	하천	댐·호수	생태환경	수량 (이수·저수)
물 관리 업무, 조직체계 분산	전문성 필요	물분쟁, 기후변화	다양한 이해관계자	다원화된 법·제도
통합관리 거버넌스	전문화된 인력 및 조직	과학적인 의사결정	유역규모의 관리활동	통합관리 정책, 법률규제

3.4.2. 대기환경

가. 현황분석

❖ 대기질은 환경기준을 충족

- 한국 환경관리공단의 대기환경연보에 의하면 대구의 대기질은 환경기준 대비 이산화황은 15%, 이산화질소는 70%, 오존은 43.3%, 일산화탄소는 4.4%, 미세먼지는 92% 수준으로 분석됨
- 증가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오존으로 기준내에 포함되고 있으나, 2.11%로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표 3-4-5] 대기환경 현황

(단위 : ppm, $\mu\text{g}/\text{m}^3$, %)

구 분	기 준	2000	2005	2010	2015	기준대비 비율	증가율
이산화황(SO ₂)	0.02	0.009	0.006	0.005	0.003	15.0	-7.06
이산화질소(NO ₂)	0.03	0.029	0.023	0.025	0.021	70.0	-2.13
오존(O ₃)	0.06	0.019	0.022	0.022	0.026	43.3	2.11
일산화탄소(CO)	9.0	0.9	0.8	0.5	0.4	4.4	-5.26
미세먼지(PM-10)	50	63	55	51	46	92.0	-2.07
강우산도		5.8	5.3	4.6	5.2	-	-0.73

자료 : 한국 환경관리공단 Air Korea, 대기환경 연보, 해당년도

❖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정체현상을 보이거나, 4종 업종은 증가 추세

-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연평균 0.55%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 282개 업체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배출시설의 종류별 변화추세는 4종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4종은 연평균 6.7%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표 3-4-6]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업체)

구 분	합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00	1,901	37	169	146	310	1,239
2005	1,930	33	153	160	779	805
2010	1,783	26	68	106	750	833
2015	2,065	25	49	83	820	1,088
증가율	0.55	-2.58	-7.92	-3.70	6.70	-0.86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찬 바람 생성지는 외곽의 산지에 분포

- 대구는 분지형 지형으로 시가지는 다양한 활동으로 인하여 주변의 녹지대 보다 주간에는 높은 기온을 나타내며, 일몰 후 주변의 녹지지역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도로 및 신천을 통하여 시가지로 유입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찬 공기 생성은 일몰 후 복사열 냉각이 시작되는 시점인 20시부터 시작되어 다음날 일출 전인 04~06시 사이에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찬 공기 형성 및 공급지역은 대부분 시외곽지의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으로서 현 토지이용상 개발로부터 보호되고 있어 찬 공기의 형성과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음

❖ 찬 공기 유동지역은 신천 등 선형으로 분포

- 찬 공기 유동지역은 외곽에서 형성된 찬 공기가 효과적으로 시가지내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통로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형태상 대체로 선형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신천과 금호강임
- 신천은 대구지역의 남북측 찬 공기 유동의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신천을 따라 동서방향으로의 시가지로 찬 공기 유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바람길 형성을 감안한 건축물 배치 필요

- 찬 공기 기능 축적 및 유동지역은 가로변 녹음수의 부재, 녹지연계성 저하, 건축물 (담벼락)에 의한 바람의 차단으로 인하여 미기후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바람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건물군 배치 및 밀집에 의한 신선한 공기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바람길을 감안한 용적률 관리, 지형의 경사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 녹지 연계망 강화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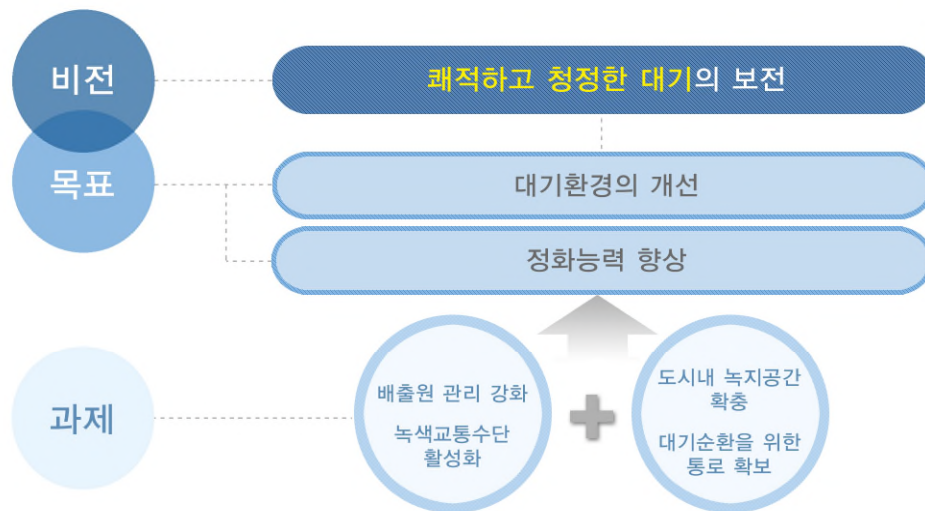
신천바람길을 고려한아파트 배치 예시

나. 기본방향

1) 비전

❖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의 보전

- 대구는 분지형 지형으로 외곽에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어 외부의 청정자연환경이 시가지 내부로 유입에 제약이 높은 지역임
- 시가지 내 고층 건축물 및 인공 포장의 분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기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의 보전」을 비전으로 설정함



2) 목표

❖ 대기환경의 개선

- 오염원의 저감 및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및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의 유지 발전을 도모함
 - 과제 1 : 배출원 관리 강화
 - 과제 2 :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 정화능력의 향상

- 대도시는 인구 및 산업의 밀집과 자연환경요소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화능력을 초과하는 현상을 보임
- 도시내 녹지공간 확충 및 대기순환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여 정화 능력을 향상시킴
 - 과제 3 : 도시내 녹지공간 확충
 - 과제 4 : 대기순환을 위한 통로 확보

다. 실천전략

1) 배출원 관리 강화

❖ 모니터링 체계 강화로 오염원의 관리 강화

- 대기오염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이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오염원의 분포가 높은 지역에 대한 측정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대기오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초자료의 확보 및 실시간 대처를 위한 측정망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함

❖ 오염원 저감기술의 지원 확대

- 대기질의 유지관리 정책은 과거의 오염원 억제 중심에서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점차 오염원 저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산업 여건 및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신기술의 공급 및 재정사업에 한계가 있음
- 청정 대기환경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오염원의 저감을 위한 신기술의 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함

❖ 미세먼지의 관리 강화

- 미세먼지는 2015년 현재 $46\mu\text{g}/\text{m}^3$ 으로 기준치인 $50\mu\text{g}/\text{m}^3$ 보다 낮은 수치이나 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 및 분지형 지형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 미세먼지의 관리목표는 「2020년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계획」의 목표년도 2020년 지표를 적용해서 $43\mu\text{g}/\text{m}^3$ 으로 설정함

[표 3-4-7] 미세먼지 지표

(단위 : $\mu\text{g}/\text{m}^3$)

구 분	2015년	2020년 ¹⁾	2025년	2030년	비 고
미세먼지	46	45	44	43	-

주1) 2020년도 지표는 2020년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계획을 적용

2)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

- 도시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대기환경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교통에 의한 오염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적극 확충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환승시스템 강화

- 대중교통수단은 점차 전기 및 천연가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이 편리하게 환승하는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여 도시대기질 향상을 추진함

3) 도시내 녹지공간 확충

❖ 녹지공간의 연계 강화

- 도시 대기질에 미치는 요인이 과거에는 산업활동에 따른 오염원의 비중이 높았으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오염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로변에 녹지공간 연계 강화로 오염 발생원에서 오염원이 정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소규모 녹지공간의 확충

- 기개발지로 밀집된 도시지역 내에 적정규모의 녹지공간 확충은 재정적 여건 및 지장물 문제로 인하여 매우 실현성이 낮은 실정임
- 소규모의 자투리 토지를 활용한 도시 농업 육성, 생활권별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한 녹화를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정화 기능이 강화 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충함

4) 대기순환을 위한 통로 확보

❖ 신선한 공기 발생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 대구지역의 신선한 공기 발생지역은 신천 상류인 가창, 팔공산, 도원지 주변지역 등으로 기성시가지의 외곽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 도원지 주변지역과 같이 일부 지역은 고층 아파트 입지로 인하여 신선한 공기의 도심 유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외곽의 신선한 공기가 원활하게 시가지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외곽지역의 고층 개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바람길 확보로 대기의 원활한 순환 유도

- 기성시가지로의 신선한 공기 유입은 도심의 열섬현상 완화 및 대기의 원활한 순환으로 대기환경의 개선에 효과적인 수단임
- 대구는 도심을 관통하는 신천과 금호강이 신선한 공기의 바람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바람길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녹지 및 개발밀도를 관리함

3.4.3. 상수도

가. 현황분석

❖ 정수장 가동률 평균 59.42%에 불과

- 상수도 생산은 매곡 정수장 등 6개 정수장에서 1일 915천톤을 생산하고 있음
- 시설용량은 1,540천톤으로 가동율이 평균 59.42%에 불과하여 적정 가동률 75%에 비해 여유용량이 많음
- 매곡 정수장은 2015년에 장래 노후시설 개량 및 비상시 급수를 감안하여 100천톤/일로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공산정수장은 2012년도에 막여과 공사로 생산을 중단한 후, 2014년부터 생산을 재개하였음

[표 3-4-8] 정수장 현황

(단위 : 천톤/일, %)

구분	시설 용량	생산량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540	910 (55.49)	909 (55.43)	895 (54.57)	909 (55.43)	898 (54.76)	915 (59.42)	
매곡	700 (800)	449 (56.13)	446 (55.75)	426 (53.25)	435 (54.38)	433 (54.13)	431 (61.57)	용량축소
고산	350	199 (56.86)	197 (56.29)	199 (56.86)	193 (55.14)	181 (51.71)	208 (59.43)	
문산	200	85 (42.50)	93 (46.50)	111 (55.50)	119 (59.50)	113 (56.50)	97 (48.50)	
가창	50	27 (54.00)	31 (62.00)	35 (70.00)	38 (76.00)	36 (72.00)	35 (70.00)	
공산	40	26 (65.00)	18 (45.00)	-	-	10 (25.00)	20 (50.00)	
죽곡	200	124 (62.00)	125 (62.50)	124 (62.00)	125 (62.50)	125 (62.50)	123 (61.50)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상수도 보급률은 99.9%로서 관리의 강화가 필요

- 상수도 보급률은 2000년 99.2%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99.93%를 달성하고 있어 보급률 확대보다는 시설 관리의 효율성 강화가 필요함

[표 3-4-9] 보급률 현황

(단위 : 인, %)

구분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비고
2000	2,538,212	2,516,984	99.20	
2015	2,513,970	2,512,107	99.93	
증가율			0.05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1인 1일 급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상수도 시설 용량과 급수량을 활용한 1인 1일 급수량은 2000년 449 ℓ/인·일에서 2015년 308 ℓ/인·일로 낮아지고 있음
- 1인 1일 급수량의 감소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가구패턴의 변화 및 물 재이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됨

[표 3-4-10] 1인1일 급수량

(단위 : m³/일, ℓ/인·일, %)

구 분	시설용량	급수량	1인1일 급수량	비 고
2000년	1,810,000	1,129,184	449	
2015년	1,540,000	914,571	308	
증가율			-2.48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상수도 관로의 노후도가 높음

- 상수도관로 7,768km중 20년이상된 관로가 48.72%를 차지하며, 도시관은 85.57%, 송수관은 52.37%, 배수관은 45.88%, 급수관은 55.45%에 달하고 있음
- 송수관과 배수관 및 급수관은 정수된 수돗물을 이송하는 관로임을 감안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한 관로의 교체가 필요함

[표 3-4-11] 관로 노후도

(단위 : m, %)

구 분	합 계	20년이상	노후율	10~20년	10년이하
합 계	7,768,365	3,784,780	48.72	2,554,870	1,428,715
도시관	42,281	36,307	85.87	2,427	3,547
송수관	360,043	188,570	52.37	98,272	73,201
배수관	5,479,451	2,513,792	45.88	1,871,077	1,094,582
급수관	1,886,590	1,046,111	55.45	583,094	257,385

자료 : 2015 상수도 통계, 환경부

❖ 유수율은 년 0.2%의 정체현상을 보임

-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유수율은 2000년 88.5%에서 2015년 91.2%로 증가 추세를 보임

[표 3-4-12] 유수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00	2010	2015	증가율
유수율	88.5	87.4	91.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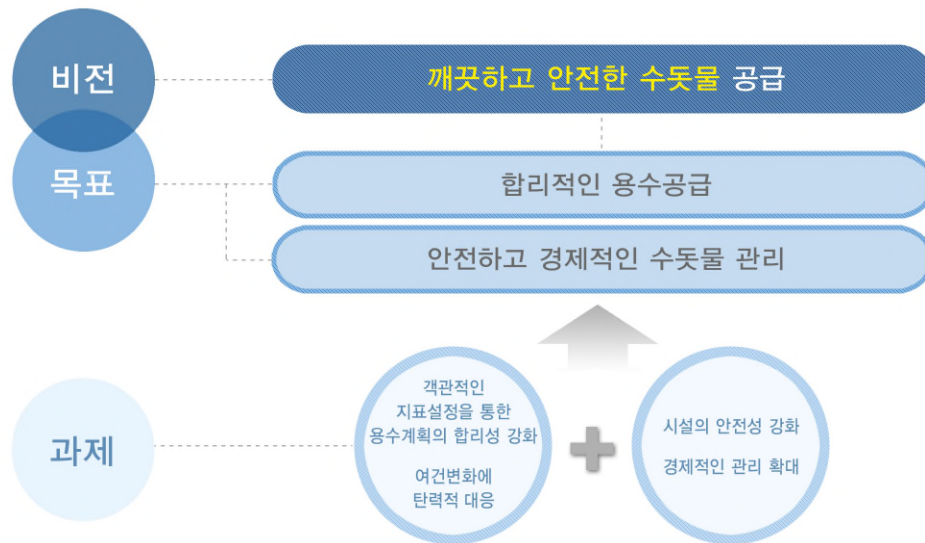
자료 : 상수도 통계, 해당년도

나. 기본방향

1) 비전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건강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의 확산으로 인하여 상수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비전을 설정함



3

부
문
별
계
획

2) 목표

❖ 합리적인 용수공급

- 지역의 실정과 여건변화에 적합한 용수 수요산정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함
 - 과제 1 : 객관적인 지표설정을 통한 용수계획의 합리성 강화
 - 과제 2 :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

❖ 안전하고 경제적인 수돗물 관리

- 기 입지한 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현대화, 자동화를 촉진하여 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경제적인 관리를 확대함
 - 과제 3 : 시설의 안전성 강화
 - 과제 4 : 경제적인 관리 확대

다. 실천전략

1) 객관적인 지표설정을 통한 용수계획의 합리성 강화

❖ 생활용수 산정

- 1인 1일 평균사용량은 변화추세를 적용함
- 유수율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유수율 목표 94%를 고려하여 각 단계별로 균등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배분함
- 평균 급수량은 평균 사용량에 유수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 첨두부하율, 보급률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적용함
- 최대 급수량은 평균 급수량에 첨두부하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표 3-4-13] 주요지표설정

(단위 : ℓ/인·일, %)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비 고
평균사용량	308	289	271	255	증가율은 -2.48%의 50%인 -1.24% 적용(표 3-4-11)
유수율	91.2	92.0	93.0	94.0	목표율 94% 달성을 위한 등배분(수도정비기본계획지표)
평균급수량	338	314	291	271	평균사용량×100÷유수율
첨두부하율	1.16	1.16	1.16	1.16	수도정비기본계획지표 적용
최대급수량	392	364	338	315	
보급률	99.93	100.00	100.00	100.00	수도정비기본계획지표 적용

- 주요지표를 활용하여 생활용수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목표연도인 2030년 일 평균 745.25천톤, 일 최대 866.25천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기 운영 중인 시설의 생산용량 1,540천톤/일 이므로 현 시설을 유지 관리함

[표 3-4-14] 용수수요량

(단위 : 인, %, ℓ/인·일, 천톤/일)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비 고
계획인구		2,513,970	2,571,000	2,651,000	2,750,000	
보급률		99.93	100.00	100.00	100.00	
급수인구		2,512,200	2,571,000	2,651,000	2,750,000	
원단위	평균	338	314	291	271	
	최대	392	364	338	315	
수요량	평균	849.13	807.29	771.44	745.25	
	최대	984.79	935.84	896.04	866.25	

❖ **공업용수 산정**

- 공업용수 수요량은 산업단지에 기 공급된 용량을 반영함(서대구 공단 4,300㎥/일, 3공단 7,430㎥/일 반영)
- 공단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은 실시계획의 용수수요량을 반영함
- 각 산업단지의 용수사용량 및 용수계획을 반영한 결과, 목표연도인 2030년 176,380㎥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공업용수의 공급은 현재 죽곡정수장과 광역상수도를 통한 공급을 유지하고, 대구 국가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신설 정수장을 반영함

[표 3-4-15] 공업용수 공급계획 (단위 : ㎥/일)

구 분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비 고
합 계		148,450	170,050	176,380	
죽 곡 정수장	소 계	122,210	134,020	134,160	
	염색일반	81,290	81,290	81,290	기존
	성서1,2,3,4차	25,600	25,660	25,780	기존
	성서5차	620	640	660	기존
	서대구	14,700	19,000	19,000	기존(재생)
	대구 제3공단	-	7,430	7,430	계획
광 역 상수도	소 계	19,010	21,570	21,570	
	달성1일반	12,490	12,490	12,490	기존
	달성2일반	350	360	360	기존
	구지공단	210	210	210	기존
	테크노폴리스	5,960	8,510	8,510	계획
신 설	대구국가산단	7,230	14,460	20,650	계획

자료 : 대구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2015.6. 대구광역시



2)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

❖ 수자원의 절약 확산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인구의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의 급증으로 수자원 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수자원의 절약을 위해서는 유수율 94%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절수기 도입 확대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유수율 94% 달성 정책 : 관로 누수 방지, 계량기의 정확성 향상, 부정급수 단속 등
 - 생활용수의 대부분은 수세식 변기와 수도꼭지를 통하여 소비되므로 절수 설비의 보급 확대

❖ 물의 재이용 확대

- 2011년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물재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빗물이용시설 확대, 중수도 확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물의 재이용을 유도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함
- 물을 재이용하여 청소용 및 변기용 용수량 등의 (한국수자원공사 생활용수 사용 용도별 분석결과 변경 가능 규모가 생활용수의 25%임) 감소를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함
 - 물 재이용시설 대상 : 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의 물사용량(상수+지하수의 10%,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물 사용량의 10%, 공장시설은 1일 폐수배출량 1,500㎥/일 이상 폐수배출업체의 물 사용량의 10%를 재이용을 적용

❖ 에너지 절감형 시설의 도입 확대

- 유가상승과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풍력, 태양광, 소수력, 연료전지, 바이오, 태양열, 지열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부각되고 있음
- 정수장 운영장비에 대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장비로의 점진적인 대체를 통하여 에너지 절감형 시설의 지속적인 도입을 확대함
- 정수장 침전시설 및 배수지 상부 등 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설치로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여 정수장 운영 전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감형 시설을 확대함



3) 시설의 안전성 강화

❖ 취수원의 안전성 강화

- 대구의 취수원은 낙동강의 하천수, 댐의 호소수(공산댐, 가창댐, 운문댐)를 활용하고 있음
- 공급 용수의 67.2%가 낙동강에서 공급되고 있으므로 낙동강의 오염에 따른 취수원의 안전성이 필요함
- 매곡정수장의 취수원인 하빈면 봉촌리 일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없이 수도법상 공장 설립제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취수원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기 추진 중인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광역권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공생의 방향을 적극 모색함

❖ 노후관로의 정비로 안전성 강화

-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송·배수로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50% 내외를 차지하는 노후 관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함
-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 목표의 총 상수도 연장 7,768km중 15.1%에 해당하는 1,176km의 노후관거를 정비함
- 열악한 지역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장기계획으로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에 주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관로의 노후도에 근거해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함

4) 경제적인 관리 확대

❖ 스마트워터그리드의 안정적 구축

- 스마트워터그리드는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공간적인 격차를 해소하여 글로벌 물 산업 및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임
- 상수도 통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시설관리소 및 6개 정수사업소에서 개별 관리되던 생산 및 공급과정이 자가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센터에서 실시간 관리를 하고 있음
- 스마트워터그리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 확보 시스템 구축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함

❖ 시설물의 Life Cycle을 감안한 체계적 관리

- 상수도 시설물의 Life Cycle의 개념은 상수도시설의 계획, 시공, 운영, 관리,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관리활동을 의미함
- 상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시 에너지사용의 적절성, 효율성,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환경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효율성 높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유도하여 물산업 육성 및 선진화에 기여함

3.4.4. 하수도

가. 현황분석

❖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량 전체를 고도처리함

- 하수도 보급률은 년평균 0.1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급률이 98.29%임
- 2000년 이후 고도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현재 공공하수처리구역내 발생량 전량을 고도처리를 하고 있음

[표 3-4-16]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천㎥/일)

구 분	총인구	하수종말처리구역			보급률
		합 계	생물학적(2차)	고도(3차)	
2000	2,538,212	2,440,887	2,392,031	48,856	96.17
2005	2,525,836	2,449,187	88,493	2,360,694	96.97
2010	2,532,077	2,482,492		2,482,492	98.04
2015	2,513,970	2,470,958		2,470,958	98.29
증가율		0.08			0.15

자료 :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하수처리시설 평균 가동률이 낮음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이 7개소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 하수도는 달성군 지역에 11개소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 하수처리시설 중 고도처리가 미 적용되는 시설은 가창 삼산, 하빈현내, 구지 도동 3개 지역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시행하고 있음
- 하수처리시설은 평균 가동률은 64.93%이며, 하수처리장은 64.93%, 마을 하수도는 54.67%로 일반적인 가동비율인 70~80%에 미달되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처리수 재이용률은 30.11%임

- 하수처리장의 연간 하수처리수의 양은 456,857천톤이 발생하며, 이 중 30.11%인 137,562천톤을 재이용하고 있음
- 처리수의 재이용 용도는 장내 용수 활용이 35.5%이고, 금호강과 신천의 유지용수 활용이 64.5%를 차지함
-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물은 총 11개소 3,837㎥/일임
- 빗물 재이용시설은 60개소가 설치되어 저류조의 용량은 9,916㎥임

[표 3-4-17]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단위 : 천톤/년, %)

시 설 명	처 리 수 양	처 리 수 재 이 용			재 이 용 률
		합 계	장내용수	하천유지용수	
합 계	456,857	137,562	48,830(35.50)	88,732(64.5)	30.11
신 천	185,622	41,884	7,633(18.22)	34,251(81.78)	22.56
서 부	137,721	11,624	11,488(98.83)	136(1.17)	8.44
달서천	67,717	60,072	23,271(38.74)	36,801(61.26)	88.71
북 부	37,206	3,739	3,718(99.44)	21(0.56)	10.05
안 심	13,484	12,028	1,591(13.23)	10,437(86.77)	89.20
지 산	7,670	7,670	584(7.61)	7,086(92.39)	100.00
현 풍	7,437	545	545(100.0)	-	7.33

자료 : 하수도통계연보 2015, 환경부

❖ 합류식 관거 비율이 높음

- 기 집행된 하수관거는 5,809km이며 이 중 합류식 관거는 59.83%인 3,476km이고, 분류식은 40.17%인 2,334km임
- 합류식 관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군은 남구(98.0%), 중구(95.3%), 수성구(78.0%)임

[표 3-4-18] 관거보급현황

(단위 : m, %)

구 분	시 설 연 장	합 류 식		분 류 식	
		시 설 연 장	구 성 비	시 설 연 장	구 성 비
합 계	5,809,392	3,475,769	59.83	2,333,623	40.17
중 구	319,083	304,059	95.29	15,024	4.71
동 구	781,589	437,258	55.94	344,331	44.06
서 구	558,014	537,587	96.34	20,427	3.66
남 구	380,916	373,303	98.00	7,613	2.00
북 구	925,687	535,105	57.81	390,582	42.19
수성구	963,573	752,019	78.04	211,554	21.96
달서구	1,088,682	253,488	23.28	835,194	76.72
달성군	791,848	282,950	35.73	508,898	64.27

자료 : 하수도통계연보 2015, 환경부

❖ 계획관거의 집행률이 높음

- 계획관거는 총 6,454km이며, 이중 집행된 관거가 90.0%이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서구(79.2%)임
- 합류식관거의 집행률은 94.14%이며, 분류식 관거의 집행률은 84.47%임

[표 3-4-19] 관거집행현황

(단위 : m, %)

구 분	관 거		집 행 률				
	계 획	집 행	합 계	합류식	분류식		
					계	오 수	우 수
합 계	6,454,865	5,809,392	90.0	94.14	84.47	71.80	100.00
중 구	324,775	319,083	98.2	98.16	100.00	100.00	-
동 구	951,319	781,589	82.2	87.27	76.47	65.54	100.00
서 구	704,608	558,014	79.2	95.77	14.26	14.26	-
남 구	449,154	380,916	84.8	96.03	12.6	8.53	100.00
북 구	974,307	925,687	95.0	100.00	88.93	81.53	100.00
수성구	1,074,805	963,573	89.7	98.00	68.81	55.97	100.00
달서구	1,091,548	1,088,682	99.7	100.00	99.66	98.85	100.00
달성군	884,349	791,848	89.5	75.36	100.00	100.00	100.00

자료 : 하수도통계연보 2015, 환경부

❖ 20년 이상 관거 비율이 높음

- 기 설치된 관로는 5,845km이며, 이중 20년 이상 된 관로는 68.09%인 3,980km임
- 20년 이상 노후 관로의 분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성구가 83.71%이며, 서구가 83.32%로 80%를 초과하고 있음

[표 3-4-20] 관로노후도 현황

(단위 : m, %)

구 분	합 계	20년이상		20-10년	10년이하
		연 장	비 율		
합 계	5,845,598	3,980,555	68.09	897,993	967,050
중 구	334,015	238,555	71.42	47,104	48,356
동 구	781,589	563,553	72.10	48,623	169,413
서 구	571,393	476,071	83.32	65,112	30,210
남 구	383,845	303,428	79.05	47,900	32,517
북 구	930,653	613,020	65.87	218,599	99,034
수성구	963,573	806,596	83.71	73,972	83,005
달서구	1,088,682	689,541	63.34	303,370	95,771
달성군	791,848	289,791	36.60	93,313	408,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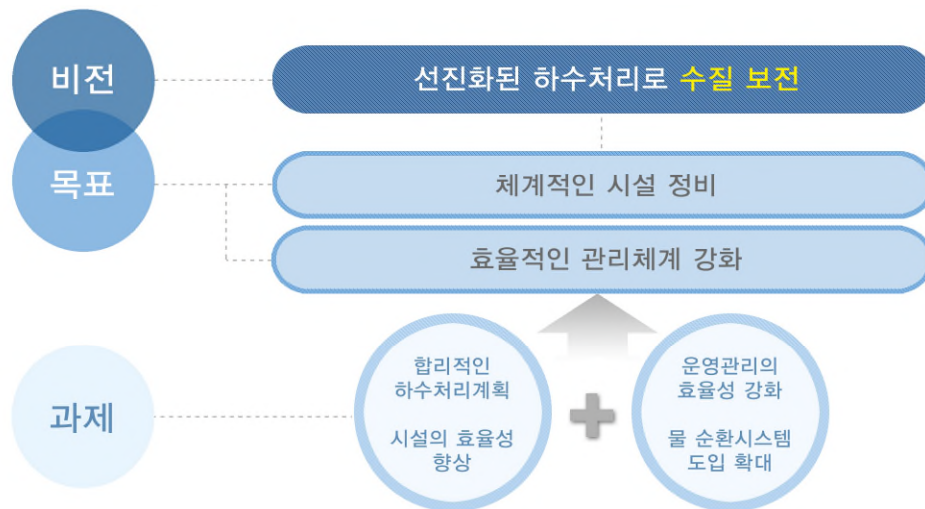
자료 : 하수도통계연보 2015, 환경부

나. 기본방향

1) 비전

❖ 선진화된 하수처리로 수질 보전

-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하수처리 기술 및 관리기법의 선진화 필요성이 대두됨
- 하수도 보급률이 98%를 달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 설치된 시설의 효율성 증대 및 변화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함
- 선진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하여 체계적인 시설 정비 및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전을 「선진화된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으로 설정함



3

부문별
계획

2) 목표

❖ 체계적인 시설 정비

- 하수발생량의 합리적인 산정을 통하여 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하고, 관로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 환경적으로 양호한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의 효율성 향상 방향을 수립함
 - 과제 1 : 합리적인 하수처리계획
 - 과제 2 : 시설의 효율성 향상

❖ 효율적인 관리체계 강화

- 하수도 시설의 운영관리의 효율성 강화 및 효율적인 물 순환체계의 강화함
 - 과제 3 : 운영관리의 효율성 강화
 - 과제 4 : 물 순환시스템 도입 확대

다. 실천전략

1) 합리적인 하수처리계획

❖ 주요지표 설정

- 2015년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98.29%에 달하며, 마을하수도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어 하수도 보급률은 2020년부터 100% 달성으로 설정함
- 생활용수량과 공업용수량은 상수도계획에서 설정한 급수량을 지표를 적용함
- 생활용수의 오수전환율은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오수전환율 90%를 적용함
- 지하수 등의 유입량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2005년 5월)」에서 제시한 오수량의 10%를 적용함

[표 3-4-21] 주요지표

(단위 : %, ℓ/인·일)

구 분		2015	2020	2025	2030
하수도 보급률		98.29	100.00	100.00	100.00
생활용수	평 균	849.13	807.29	771.44	745.25
	최 대	984.79	935.84	896.04	866.25
공업용수			148,450	170,050	176,380
오수전환율	생 활	90	90	90	90
지하수 유입률		10	10	10	10

❖ 하수 발생량 산정

- 기 설정한 발생량 산정을 위한 지표를 적용한 결과, 2030년 하수 발생량은 일평균 913천톤/일로 예상되며, 일 최대 1,033천톤/일로 예측됨
- 중수도, 빗물 재이용 등의 용량이 1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용량이 3,880m³/일에 불과하여 하수 발생량 산정에는 미반영함
- 분류식 관거의 도입에 따른 영향은 사업시행시기의 예측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하수 발생량 산정에 미반영함

[표 3-4-22] 하수발생량

(단위 : 천톤/일)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합 계	평 균	841	946	932	913
	일최대	975	1,073	1,055	1,033
오 수	평 균	841	799	764	738
	일최대	975	926	887	858
폐 수			147	168	175

❖ 하수처리시설은 현 시설을 유지하고 마을 하수도의 공급 확대

-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7개소와 마을하수도 11개소의 시설용량은 1,875.2천톤/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률인 80%를 적용할 경우 1,500.2천톤/일을 처리가 가능함
- 일 최대 오수량을 적용한 하수발생량이 1,033천톤/일이므로 기존 시설의 처리가능 용량인 1,500.2천톤/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 시설을 유지함
- 다만, 소규모 농촌 취락이 밀집한 하수처리구역 밖 취락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마을 하수도의 지속적인 공급을 추진함
- 마을하수도의 하수 발생량은 기존 취락의 규모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현재의 발생량을 유지함

[표 3-4-23] 하수처리장 용량 검토

(단위 : 천톤/일)

구 분	시설용량	처리가능 용량	하수발생량	필요시설규모	비 고
합 계	1,875.2	1,500.2	1,033.7	+466.5	
처리장	1,874.0	1,499.2	1,033.0	+466.2	
마을하수도	1.2	1.0	0.7	+0.3	

2) 시설의 효율성 향상

❖ 분류식 관거 도입 확대로 처리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

- 합류식 관거는 우수와 하수가 동시에 유입되어 하수처리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향상 및 비점오염 부하 저감을 위하여 기존의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함

❖ 마을하수도 정비

- 행정구역 전역을 하수구역에 편입하는 것은 여건상 곤란한 실정이므로 집단취락 분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마을 하수도의 도입을 확대함
- 하수도 처리구역 밖에 마을 하수도를 추가 설치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함

3) 운영관리의 효율성 강화

❖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하수도 시설은 사회 기간산업으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 하수의 지체 없는 배제 및 경제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함

❖ 효율적인 조직관리 강화

- 하수처리시설은 환경, 화공,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행정 등 여러 방면의 기술 분야가 참여하므로 운영조직의 효율성 향상은 하수처리효율향상 및 경제적 운영에 기여함
- 운영조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시설의 총괄 지휘 운영할 수 있는 중앙 집중제어 방식의 운영체계를 강화함

❖ 시설 통합 운영 체계 구축

- 하수처리장의 개별 운영은 운영인력의 과다 소요 등 비정상운영 가능성 증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각 처리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시설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함

4) 물 순환시스템 도입 확대

❖ 빗물관리 강화(LID : 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 개발)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성 지표면이 증가하여 빗물의 대부분이 하천으로 유출되므로 빗물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지하수 함량을 증대시켜 물환경 보전과 수자원 확보 등 환경 및 치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 내에 녹지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함
-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등 빗물과 관련된 시설들의 도입을 확대함
- 공공시설의 설치 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 시 개발계획 단계에서 빗물 관리시설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 빗물 관리를 강화함

❖ 물 재이용 확대

- 도시화의 진전은 용수의 수요량이 증가되는 반면 수질환경 오염 및 수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용수원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사용물의 재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수도 등 물 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률은 현재 30.11%이므로, 점진적인 재처리수의 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34%를 목표로 설정함

[표 3-4-24] 처리수 재이용률

(단위 : %)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처리수 재이용률	30.11	32.00	33.00	34.00

자료: 2020 환경 보전계획(대구광역시)

3.4.5. 폐기물

가. 현황분석

❖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 추세

- 총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3.1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은 0.67%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폐기물은 7.16%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건설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는 철거 중심의 기성시가지 재생사업이 증가함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되므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수복재개발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축소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함

[표 3-4-25] 쓰레기 발생량 (단위 : 톤/일, %)

구 분	2000	2005	2010	2014	증가율
합 계	8,142.30	10,937.90	11,535.70	12,488.30	3.10
생 활	2,642.10	2,635.00	2,584.80	2,899.40	0.67
사업장	2,814.50	2,447.50	2,350.90	2,682.10	-0.34
건 설	2,484.60	5,656.60	6,371.00	6,540.50	7.16
지 정	201.10	198.80	228.80	366.30	4.38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생활폐기물 1인 1일 배출량이 증가 추세

- 1인 1일 배출량은 2000년에 1.04kg/인일에서 정체현상을 보이다가 2009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부터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평균 증가율이 0.72%임
- 발생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감량 대책 등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

[표 3-4-26] 생활폐기물 1인1일 배출량 (단위 : kg/인일)

구 분	2000	2005	2009	2010	2013	2014	증가율
배출량	1.04	1.04	1.02	1.02	1.10	1.15	0.72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재활용 비율은 증가 추세이나, 생활폐기물 증가추세는 미미함

- 발생쓰레기 처리 방법 중 매립 0.65% 증가, 소각 2.09% 감소, 재활용 6.6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매립은 생활쓰레기가 0.88%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장 폐기물은 2.87%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쓰레기의 소각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의 선순환 구조의 형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표 3-4-27] 발생쓰레기 처리방법

(단위 : 톤/일,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	증가율
매 립	합 계	1,884.80	1,091.80	1,346.50	2,063.30	0.65
	생 활	1,242.00	821.00	804.50	1,097.80	-0.88
	사업장	560.70	236.40	468.80	832.80	2.87
	건 설	59.40	6.10	43.80	59.60	0.02
	지 정	22.70	28.30	29.40	73.10	8.71
소 각	합 계	577.20	513.20	489.70	429.70	-2.09
	생 활	409.10	337.00	334.90	352.90	-1.05
	사업장	120.50	138.20	85.30	7.80	-17.76
	건 설	30.10	19.70	46.10	36.30	1.35
	지 정	17.50	18.30	23.40	32.70	4.57
재활용	합 계	4,055.10	7,924.80	8,973.50	9,922.00	6.60
	생 활	991.00	1,477.00	1,445.40	1,448.70	2.75
	사업장	521.20	680.80	1,096.10	1,779.60	9.17
	건 설	2,395.10	5,630.80	6,281.10	6,444.60	7.33
	지 정	147.80	136.20	150.90	249.10	3.80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매립장 시설은 여유가 있음

- 매립장 시설은 방천리 일원에 853,400㎡ 규모로 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음
- 총 매립용량은 32,378,541㎡이며 35.68%인 11,553,846㎡가 매립에 활용하였으며, 향후 20,824,695㎡의 매립이 가능함

[표 3-4-28] 매립장 현황

(단위 : ㎡, m³)

구 분	총매립지면적	총매립용량	기매립량	잔여매립가능량
합 계	853,400	32,378,541	11,553,846	20,824,695
달성군	853,400	32,378,541	11,553,846	20,824,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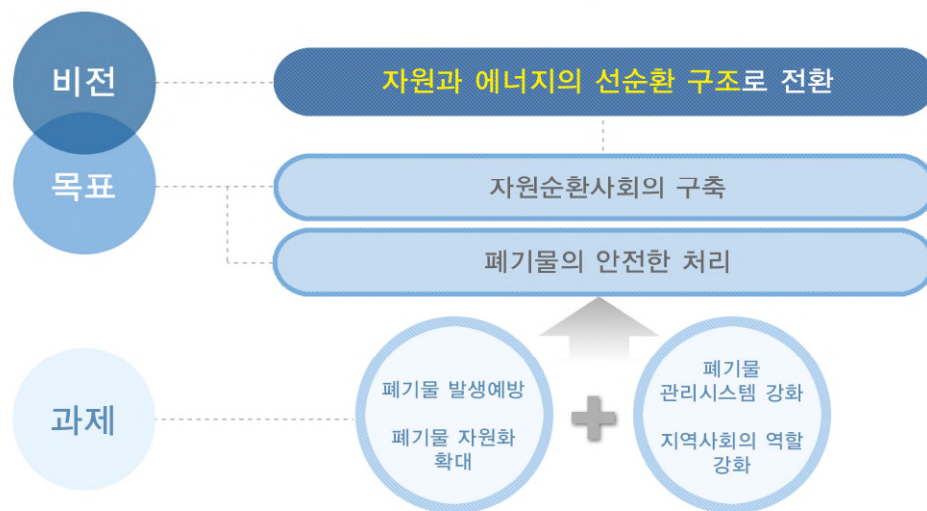
자료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2015년

나. 기본방향

1) 비전

❖ 자원과 에너지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이 처리를 중시하던 폐기물 관리시대에서 2000년대부터 재활용과 발생 억제를 중시하는 자원순환의 개념으로 전환됨
- 폐기물 발생의 예방 및 감량화, 재활용 및 재사용 확대, 에너지화 등을 위하여 비전을 「자원과 에너지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으로 설정함



3

부
문
별
계
획

2) 목표

❖ 자원순환사회의 구축

-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원으로 순환이용을 최대화 함으로써 매립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함
 - 과제 1 : 폐기물 발생예방
 - 과제 2 : 폐기물 자원화 확대

❖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 자연의 자정능력의 범위 내에서 폐기물이 자연환경으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폐기물의 배출 및 이동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강구함
 - 과제 3 : 폐기물 관리시스템 강화
 - 과제 4 : 지역사회 역할 강화

다. 실천전략

1) 폐기물 발생예방

❖ 폐기물 발생량 설정

- 생활폐기물은 1인 1일 배출량은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0.72%의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시계열적인 연속성이 없고, 2010년에 1.02kg/인·일까지 낮아진 현상을 감안하여 1.16kg/인·일로 설정함
-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감량화의 추진 및 통계자료의 불연속을 감안하여 사업장폐기물 3.2%, 건설폐기물 1.6% 증가 추세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설정함
- 목표연도인 2030년 폐기물 발생량은 14,482.3톤/일로 예측되며, 생활폐기물은 17.7%, 사업장폐기물은 27.9%, 건설폐기물은 54.4%로 설정함

[표 3-4-29] 폐기물 발생량

(단위 : 인, t/인·일, 톤/일)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인 구		2,513,970	2,571,000	2,651,000	2,750,000
1인1일배출량		1.18	1.18	1.17	1.16
발생량	합 계	12,685.1	13,057.1	13,769.5	14,482.3
	생 활	2,966.5	3,040.7	3,114.8	3,188.9
	사업장 ¹⁾	2,382.9	2,351.2	2,320.0	2,289.2
	건 설	6,995.7	7,665.2	8,334.7	9,004.2

주1) 사업장폐기물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변화 추세를 적용(통계자료 불연속). 건설폐기물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변화추세를 적용(재생사업 활성화 기간을 고려)

❖ 발생폐기물 처리계획

- 발생폐기물의 처리는 각 폐기물별 처리 비중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연도인 2030년 발생된 폐기물 14,482.3톤/일은 매립 8.55%, 소각 3.8%, 재활용 87.65%를 목표로 설정함

[표 3-4-30] 발생폐기물 처리계획

(단위 : 톤/일)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합 계	소 계	12,345.1	13,057.1	13,769.5	14,482.3
	매 립	2,207.4	1,407.0	1,324.8	1,238.1
	소 각	391.9	477.6	513.7	549.8
	재활용	9,734.4	11,172.5	11,931.1	12,694.3
	기 타	11.4	-	-	-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생 활	소 계	2,966.5	3,040.7	3,114.8	3,188.9
	매 립	1,176.0	778.7	704.3	625.3
	소 각	352.4	437.6	479.4	522.7
	재활용	1,438.1	1,824.4	1,931.2	2,040.9
사업장	소 계	2,382.9	2,351.2	2,320.0	2,289.2
	매 립	929.8	613.7	605.5	597.5
	소 각	7.0	9.4	9.3	9.2
	재활용	1,434.7	1,728.1	1,705.2	1,682.6
	기 타	11.4	-	-	-
건 설	소 계	6,995.7	7,665.2	8,334.7	9,004.2
	매 립	101.6	14.6	15.0	15.3
	소 각	32.5	30.7	25.0	18.0
	재활용	6,861.6	7,620.0	8,294.7	8,970.9

- 발생폐기물중 생활폐기물 매립용량만 방천리 매립장(여유량 20,824,695m³)을 활용함

2) 폐기물 자원화 확대

❖ 친환경 에너지 타운 도입

-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기피·혐오시설인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 및 가축분뇨 등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회수 집적시설임
- 기후변화 대처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신시가지나 매립장 및 기성시가지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타운을 도입함

❖ 폐기물 발생 예방

- 생활과 생산활동으로 인해 자원의 소비 및 폐기물의 발생은 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임
-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사용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예방함

❖ 폐기물 자원화 산업의 지원 강화

- 폐기물의 자원화는 폐기물을 원료로하여 범용성이 있는 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지칭하나, 혐오시설의 성격이 강하고, 기업규모 등이 열악하여 활성화가 낮은 실정임
- 폐기물의 자원화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감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자원화 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함

3) 폐기물 관리시스템 강화

❖ 폐기물 배출 세분화

- 폐기물은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및 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원활한 관리가 유지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되고 있으므로 배출자가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감안한 배출을 확대하고, 처리자는 자원의 재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함
-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각각의 처리방식에 의해 활용이 되고 있으나, 종량제 봉투내에 자원화 가능 폐기물의 분포 비율이 높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자원화 가능한 자재별 분리 배출이 가능하도록 분리 배출 기준을 세분화함

❖ 재활용품의 순환자원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순환자원거래는 폐기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최적의 맞춤형 거래장터를 형성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폐기물 배출자 및 재활용 센터가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재활용업체 및 기업이 수요자로 참여하는 구조임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 및 공급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모색함

4) 지역사회와의 역할 강화

❖ 정부정책 홍보 강화

-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정부는 과다포장 억제, 재활용 가능 자재 사용 등 생산단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상품 구입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소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의 억제를 유도함

❖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기회 확대

- 폐기물중 재활용 및 자원화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의 소비 및 배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함
- 종량제 봉투 내에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분포 비율을 낮추기 위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리배출 강화, 재사용 확대, 재활용을 통한 수익사업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함

3.4.6. 에너지

가. 현황분석

❖ 1차에너지와 최종에너지 모두 감소 추세

-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인 1차에너지는 연평균 0.56%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 최종에너지도 0.46%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4-31] 에너지 수급현황 (단위 : 1,000toe,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1차에너지공급	3,814	3,260	3,344	3,505	-0.56
최종에너지 소비	4,680	4,365	4,569	4,368	-0.46

자료 :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 해당년도

❖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 추세이나 전력 소비량은 증가 추세

-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0.22%, 석유는 3.11%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력은 2.77%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력 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전력자립도는 1.2%대의 낮은 자급률을 보였으나, 솔라시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18.84%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력 자립도 향상이 필요함

[표 3-4-32] 1인당 에너지소비량 (단위 : toe/인, bbi/인, kwh/인,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에너지	1.84	1.74	1.88	1.78	-0.22
석 유	8.38	6.2	6.01	5.22	-3.11
전 력	4,015	4,923	5,956	6,053	2.77
전력자립도	1.27	1.17	1.02	18.84	-

자료 :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 해당년도

❖ 에너지원이 석유에서 점차 가스 및 전력으로 변화

- 에너지의 소비는 2000년 4,681천toe에서 연평균 0.46% 감소하여 2015년 현재 4,369천toe로 조사됨
- 에너지원의 소비가 석유는 59.22%에서 38.0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료는 가스가 15.21%에서 21.42%로 증가하였으며, 전력이 18.71%에서 29.43%로 증가하였음
- 신재생에너지가 0.41%에서 3.66%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

[표 3-4-33] 에너지원별 소비현황

(단위 : 1,000toe,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합 계	4,681	4,365	4,569	4,369	-0.46
석 탄	247(5.28)	273(6.25)	313(6.85)	258(5.91)	0.29
석 유	2,772(59.22)	2,089(47.86)	1,826(39.96)	1,662(38.04)	-3.35
가 스	712(15.21)	819(18.76)	953(20.86)	936(21.42)	1.84
전 력	876(18.71)	1,063(24.35)	1,245(27.25)	1,286(29.43)	2.59
열	55(1.17)	68(1.56)	80(1.75)	67(1.53)	1.32
신재생	19(0.41)	53(1.21)	152(3.33)	160(3.66)	15.26

자료 :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 해당년도

❖ 공공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이 증가추세

- 에너지 소비 부문이 산업부문은 1.21%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송부문은 0.12%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에너지 사용이 1.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에너지 소비 구조가 산업 및 수송분야의 활용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태양광 및 바이오 디젤, 지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가

- 201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변화 추세는 태양열, 성형탄, 연료전지, 쓰레기소각, RDF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태양광, 바이오 디젤, 지열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러한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태양광과 지열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표 3-4-34] 신재생 에너지 현황

구 분	단위	2010	2015	비 고
태양열	m ²	4,439	230	
태양광	KW	972	9,642	
바이오	디 젤	KL/Y	43,364	
	성형탄	TON	1,749	
연료전지	KW	5,601	15	
폐기물	쓰레기	TON/D	480	-
	RDF	TON	1,900	-
	지 열	KW	4,728	7,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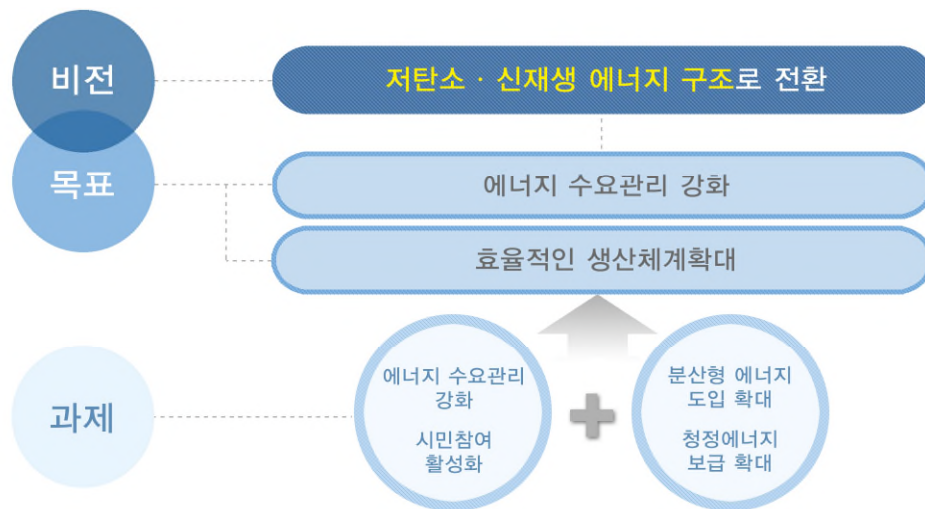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나. 기본방향

1) 비전

❖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구조로 전환

-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됨
-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지역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특성에 적합하도록 수요 관리형 정책 및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강화를 통하여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구조로 전환」을 비전으로 설정함



2) 목표

❖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기후변화와 피크오일에 대처하기 위한 시급한 행동의 필요성과 석유 없는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
- 산업사회의 에너지 충격에 대처할 회복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함
 - 과제 1 :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과제 2 : 시민참여 활성화

❖ 효율적인 생산체계 확대

- 유한한 에너지 생산량을 감안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및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함
 - 과제 3 : 분산형 에너지 도입 확대
 - 과제 4 :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다. 실천전략

1)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에너지 절약 강화

- 에너지 소비량이 년평균 0.46%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부 에너지 의존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어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임
- 에너지의 생산은 한정되어 있어 증가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의 추진이 필요함
-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패시브하우스, LED 등의 공급을 확대함
- 공공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에너지 저장 장치, 계량기,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를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

❖ 녹색교통 활성화

- 수송부문은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자가용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자가용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자전거, 보행 등 녹색교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을 추진함

2) 시민참여 활성화

❖ 지역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시민들이 에너지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존의 수동적 소비자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효율과 절약을 추구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도 참여하는 능동적인 소비자·생산자로 변화를 요구 받고 있음
- 에너지 저소비,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에너지 분야 전문가, 관계기관이 같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실천프로그램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 다양한 체험관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에너지 이슈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의 거버넌스와 연계한 생산, 절약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확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공급을 통해 지역 에너지 정책의 직접적인 행위자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

3) 분산형 에너지 도입 확대

❖ 전력자립률 34% 달성

- 지역의 전력자립률은 18.84%에 불과할 정도로 외부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공급원의 사고 등에 노출된 빈도가 높은 실정임
-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하여 전력자립률 34%를 달성함

[표 3-4-35] 전력자립률 계획

(단위 : %)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전력자립률	18.84	23.00	28.00	34.00

자료: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대구광역시 2015.10.)

❖ 에너지 자족도시 육성

- 에너지 소비가 가정 및 수송부문의 비중이 높아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 중심의 에너지 자립 역량 확보가 필요함
-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개선, 에너지 생산을 결합한 에너지 자족도시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함

4)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 재생에너지 이용률 15.9% 달성

- 대규모 발전소를 통한 전력 공급은 화석연료 등의 활용에 따른 환경 영향이 크고 용량의 확장에 제약이 높으므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
- 재생에너지 이용률은 신재생에너지 발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2030년까지 현재의 3.7%를 15.9%까지 달성함

[표 3-4-36] 재생에너지 이용률 계획

(단위 : %)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재생에너지 이용률	3.7	10.0	12.8	15.9

자료: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대구광역시 2015.10.)

3.5. 경관 및 미관

3.5.1. 현황분석

가. 자연경관

❖ 분지형 지형에 의한 양호한 외곽 산지경관을 형성

- 대구의 시가지는 팔공산, 앞산, 비슬산, 와룡산, 대니산, 환성산, 최정산 등의 산들로 둘러싸인 평야지대에 형성되어 있음
- 북측 팔공산은 전면부 능선이 200m 전후로 낮으며, 후면으로 갈수록 300~1,000m로 점차 높아져 중첩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산수화적 경관을 형성함
- 앞산을 전면으로 하는 비슬산계의 능선은 상당히 급하게 높아져 장엄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음

❖ 시가지 내 다수의 산지형 공원이 분포

- 2차순환선과 3차순환선 주변지역에 두류공원, 학산공원, 범어공원, 침산공원 등 10개의 산지형 공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150m 내외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음
- 산지형공원은 주변지역의 점적인 고층개발로 인하여 경관훼손이 심화되고 있어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가 필요함

나. 수변경관

❖ 시가지를 관류하는 수려한 하천 분포

- 시가지를 관류하는 하천은 금호강·신천이 있으며, 그 중 금호강은 시가지 북측 외연부를 흐르나, 노후공단 및 고층 건축물 등에 의한 경관훼손이 심각함
- 신천은 도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며 자동차 전용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저하됨
- 하천변 100m 내외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나, 기 입지한 고층건축물 및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통합적 경관관리가 필요함

❖ 외곽지역에 다수의 양호한 호소 및 습지 분포

- 택지개발 등 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 주변에 도남지, 연경지 등이 입지하고, 개발제한 구역 등 녹지지역 내에 서리못 등 저수지와 하천을 따라 안심, 달성습지가 입지함
- 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 주변 호소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일부는 근린공원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녹지지역 내 호소 및 습지는 생태공원 및 습지탐방로로 계획하고 있음
- 신시가지, 녹지지역 내 호소 및 습지는 경관형성에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개발계획 단계부터 경관관리가 필요함

다. 시가지경관

❖ 지속적인 시가화지역 확장 및 기성시가지 재생사업 증가

- 현재 대구시 총 883.63km²의 면적 중 주거용지 145.865km², 상업용지 21.808km², 공업용지 55.668km², 보전용지 660.222km²의 비율임
- 대구의 시가지는 읍성중심의 자연발생형 시가지와 70년대 조성된 단독주택 중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80년대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형성됨
- 70년대 조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고층 아파트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기성시가지와의 스카이라인 부조화가 발생함
- 외곽지역으로 시가화 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기존 시가화지역과의 경관부조화 현상이 심화됨

❖ 도심 내 양호한 경관자원 방치

- 대구시 전역에 다양한 경관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나, 독창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한 경관자원으로의 활용이 미흡함
- 경관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랜드마크 주변의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미흡함
-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성 있는 경관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으므로 독창적인 이미지 정립을 위한 경관자산의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함

❖ 기반시설에 대한 경관관리 체계 부재

- 도시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은 철도, 도로, 구조물, 지하철, 공항 등이며, 환경기초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음
- 교통시설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일부 시설은 수목의 식재 등을 통해 경관을 관리하고 있으나, 가로변의 시가지에 대한 경관관리 체계가 없음
- 환경기초시설은 입지적 특성이 대구의 관문지역(서대구IC, 북대구IC)에 분포하고 있어 관문지역의 경관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임

❖ 노후산단의 증가에 따른 공업지 경관 정비 필요

- 대구의 산업단지는 금호강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선형으로 넓게 분포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기성시가지내 산업단지는 조성이 대부분 80년대 후반에 완료되어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에 따른 경관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노후 불량 산단에 대해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및 업체별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경관의 체계적 정비에 대한 고려가 낮은 실정임
- 산업단지가 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관문지역 경관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실정이므로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라. 역사문화경관

❖ 도심을 중심으로 중요 역사자산을 보유

- 대구는 6·25한국전쟁 피해가 적어 읍성을 중심으로 경상감영공원, 달성공원 등 다양한 역사자산이 보존되어 현재 관광자원으로 활용 중임
- 역사자산의 경관형성을 위한 주변지역의 관리가 미흡하여 경관부조화 및 랜드마크로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함
- 역사자산은 지역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주요한 인자임을 감안하여 역사자산 및 주변 지역의 경관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주변지역과 부조화된 문화자산

- 대구의 대표적 문화자산은 시민회관, 오페라하우스, 대구타워 등이 있으며, 주변지역은 대부분 기성시가지로서 주로 단독 및 고층의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어 문화자산의 독특한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 문화자산이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인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자산 주변지역은 높이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문화자산과 연계되는 경관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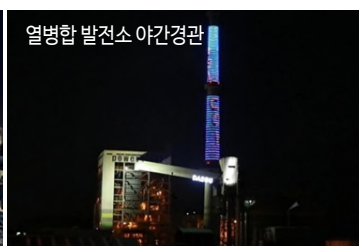
마. 야간경관

❖ 야간에 어둡고 상징성이 낮음

-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심 등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보도, 주거지, 공원, 수변 등이 전반적으로 KS 권장조도 기준보다 낮음
- 주요 진입부인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밤에 더 어둡고 특색 없는 경관형성으로 대구의 첫인상과 인지성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빛 공해의 저감 방안 필요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고층건축물의 옥상 및 아파트 옥탑 등의 과도한 조명을 억제하고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위계 잡힌 경관 형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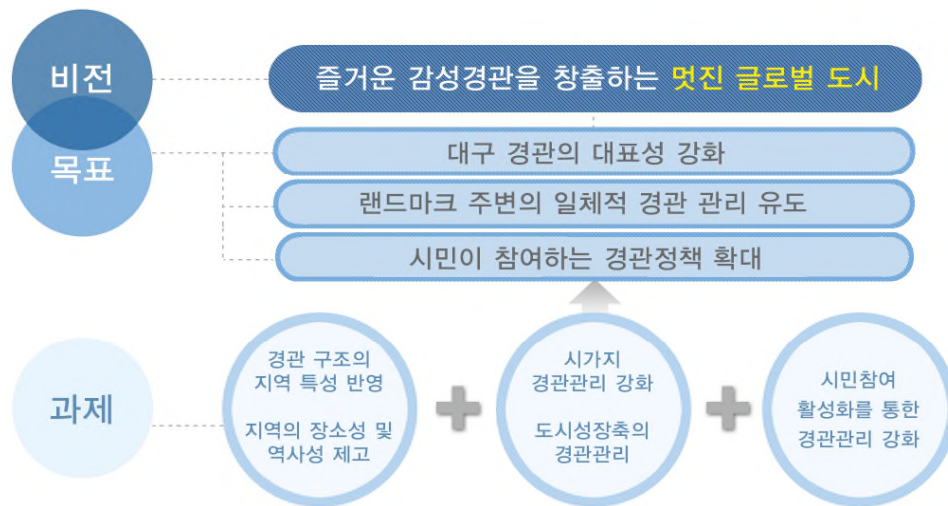


3.5.2. 기본방향

가. 비전

❖ 즐거운 감성경관을 창출하는 멋진 글로벌 도시

- 경관은 일정지역의 고유한 외관들이 결합되어 일체성이 있는 외관과 그에 따른 이미지를 의미하며, 양호한 경관의 조성은 시민들의 만족감, 삶의 쾌적성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 경관계획에서는 타 도시와 구별되는 독창성 있는 지역 자산을 중심으로 개성있는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비전을 「즐거운 감성경관을 창출하는 멋진 글로벌 도시」로 설정함



3

부문별
계획

나. 목표

❖ 대구 경관의 대표성 강화

- 대구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반영되도록 경관자산을 육성하고 특화함
 - 과제 1 : 경관구조의 지역 특성 반영
 - 과제 2 : 지역의 장소성 및 역사성 제고

❖ 랜드마크 주변의 일체적 경관 관리 유도

- 경관자산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관관리체계를 수립함
 - 과제 3 : 시가지 경관관리 강화
 - 과제 4 : 도시성장축의 경관관리

❖ 시민이 참여하는 경관정책 확대

- 활발한 시민참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정책을 경관관리에 반영함
 - 과제 5 :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경관관리 강화

3.5.3. 실천전략

가. 경관구조의 지역 특성 반영

1) 경관권역

❖ 7개 경관권역 설정

- 시가지 형성 및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7개 권역으로 설정함

[표 3-5-1] 경관권역별 경계설정

구분	경 계 설 정	사 유
도심	• 금호강, 중부내륙고속도로, 앞산	• 읍성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지가 넓게 분포하는 지역특성 반영
팔공	• 금호강, 팔공산	• 팔공산과 금호강으로 둘러싸인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
수성	• 금호강, 최정산,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으로 기성시가지와 단절되어 있고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조성된 지역특성 반영
월배	• 성서산단, 청룡산, 간선도로(구마로)	• 주거기능과 산업기능 및 산악지형의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
달성	• 금호강, 비슬산,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으로 기성시가지와 단절되어 있고, 테크노폴리스 등 신시가지 조성 특성을 반영
성서	• 낙동강, 중부내륙고속도로	• 성서택지 및 산단, 농촌 취락이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시가지 형성특징이 차별화된 특징을 반영
칠곡	• 금호강	• 금호강 북측의 신시가지조성사업및 개발제한구역분포 특성을반영

자료 :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대구광역시, 2017.8.)



[그림 3-5-1] 경관권역 설정도

❖ 경관권역별 발전방향

- 권역별 경관자원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방향을 설정함

[표 3-5-2] 경관권역별 발전방향

경관권역	발 전 방 향	비 고
도 심	• 장소맞춤형 관리와 매력 경관 창출	
팔 공	• 팔공산과 금호강이 조화된 미래도시경관 구축	
수 성	• 친근하고 매력적인 도시 자연경관 보전관리	
월 배	• 정겹고 정연한 개방적 도시경관 유도	
달 성	• 낙동강과 비슬산이 어우러진 친환경 첨단 도시경관 형성	
성 서	• 다채롭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	
칠 곡	• 활기차고 산뜻한 도시경관 연출	

2) 경관축

❖ 5개 경관축 설정 및 발전방향

- 도시공간구조의 발전축을 반영하여 외곽녹지축과 내부녹지축 및 수변녹지축, 경관가로축으로 설정함
- 경관축으로 설정한 녹지축 및 수변축, 경관가로축은 축의 성격 및 대상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전방향을 설정함

[표 3-5-3] 경관축별 발전방향

구 분	대 상 지 역	발 전 방 향
녹지축	외 곽	• 마천산, 팔공산, 병풍산, 최정산, 비슬산 • 산지의 아름다운 형태 보전 • 산지 조망을 고려한 도시개발유도
	내 부	• 와룡산, 학산, 앞산, 무학산, 돈지봉, 함지산 • 내부 공원 및 산지의 네트워크 구축 • 녹지축으로 접근성 향상
수변축	낙동강	• 조망경관을 위한 스카이라인 관리 • 하천이용 편의성 증진
	금호강	• 랜드마크로의 조망점 및 통경축 마련 • 시가지의 개방감 확보
	신 천	• 역동적인 친수공간 확보 • 조망점 설정과 통경축의 관리
경관가로축	•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와룡로, 중앙대로	• 대구 상징가로 이미지 강화 • 가로변 녹지의 연속성 확보

자료 :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대구광역시, 2017.8.)



[그림 3-5-2] 경관축 설정도

3) 경관거점

❖ 경관거점 설정

- 점적 특성을 가진 경관자산을 대표하는 경관거점은 지표적 거점, 역사문화거점, 관문 거점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표 3-5-4] 경관거점 설정

구 분		대 상 지 역
지표적 거 점	도시랜드마크	• 83타워, 대구스타디움, 앞산, 팔공산 등
	권역대표	• 엑스코, 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삼성라이온스 파크, 수성못 등
역사문화 거 점	면적형태	• 도심, 팔공산 등
	점적형태	• 육신사, 진천동 입석, 도동서원 등
관문 거점	도심관문	• 동대구역, 서대구역, 대구역, 대구공항 등
	진입관문	• IC·JC주변, 국도변 등

자료 :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대구광역시, 2017.8.)

❖ 경관거점별 발전방향

- 경관거점 및 주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방향을 설정함

[표 3-5-5] 경관거점별 발전방향

구 분	발 전 방 향
지표적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노출을 통한 도시랜드마크의 상징성 강화 • 랜드마크 중심의 경관관리 강화
역사문화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 경관과 조화되는 공간관리 • 경관자원간의 연계 강화 • 경관자원 활용여건 개선 • 역사문화자원 명소화
관문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관문 광장 확보 • 도시홍보를 위한 통합 디자인 유도 • 연속된 관문지역 이미지 연출

자료 :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대구광역시, 2017.8.)

나. 지역의 장소성 및 역사성 제고

1)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통한 경관관리

❖ 중점 경관관리구역 설정

-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도시의 개성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및 관리, 형성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에 지정함
-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성격에 따라 5개 경관형성구역과 3개 경관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표 3-5-6] 중점 경관관리구역

구 분	지정 필요성
형 성	K2 이전부지 일원
	도청 이전후적지 일원
	동대구역 일원
	서대구역 일원
	검단들 일원
관 리	두류공원 일원
	화원유원지 일원
	하중도 일원

자료 :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대구광역시, 2017.8.)

2) 경관 위해요소의 체계적 관리

❖ 외곽 산지의 자연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 관리

- 분지형 지형으로 앞산, 와룡산, 비슬산 등 시가지의 외곽지에 산지가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외곽 산지까지 시가지가 확산됨에 따라 고층건물에 의한 자연경관 단절지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외곽의 수려한 자연경관 형성의 조망이 용이하도록 외곽 산지 주변의 건축물 높이 및 배치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함

❖ 수변경관의 관리

- 도심을 관통하는 금호강과 신천은 수변 경관의 주요 자산이며, 외곽의 신선한 공기의 유입을 촉진하는 생태통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관관리 및 생태통로 기능의 유지발전에 제약이 발생되고 있음
 - 신천 주변지역은 일부지역의 고층 개발로 인해 경관차폐 및 바람 통로 저해가 유발됨
 - 금호강 주변지역은 산업단지로 인한 경관 불량 및 점적인 고층 개발이 증가하고 있음
- 환경적 측면과 경관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의 활성화 및 생태통로 기능의 강화 등 건축물 관리를 강화함

❖ 역사문화경관 자원의 발굴 및 활용 활성화

- 역사문화경관 자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멸과 훼손이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의 정체성의 유지 발전을 위해 발굴 및 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
- 발굴 및 복원된 역사문화경관 자원은 보전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경관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활용을 활성화함

3) 밤이 아름다운 대구조성

❖ 주요 경관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빛을 연출

- 문화재 및 랜드마크 건축물 등 유형별 특징에 맞는 조명디자인을 통하여 도시 실루엣 야간 경관을 개선함
- 야간 유동인구 동선을 감안한 야간경관개선 및 과도한 광고조명으로 인한 야간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함

❖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명환경 개선

-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첨단 고효율 조명기구 활용확대 및 시간대별 조명을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킴
- 지역의 녹지 분포를 고려한 친환경 조명계획 유도 및 경관심의, 디자인 협의를 통하여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환경을 개선함

다. 시가지 경관관리 강화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도시개발 유도

- 도시는 시간에 따른 노후화 및 새로운 공간수요로 인하여 재생 및 신시가지 개발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 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의 개발을 억제함

❖ 가로변의 경관 향상

- 도시경관의 인지는 다양한 요소로 인지가 가능하나,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경관은 가로변 경관이 가장 높음
- 현행과 같이 건축물, 광고물 등 개별 분야별 관리되고 있는 경관관리 제도를 통합하여 가로변의 특성 있는 경관 향상을 유도함

라. 도시성장축의 경관관리

❖ 농촌지역의 경관 관리

- 행정구역 내 시가지 특징이 개발제한구역(산악지형)을 중심으로 기성시가지와 농촌 지역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농촌지역 경관 특성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과도한 고층 개발의 억제를 추진함

❖ 도시성장축의 경관관리 강화

- 도심은 문화도심, 역사거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동대구 역세권은 비즈니스, 서비스업, 공공건축물의 광역 접근성을 감안하여 경관관리를 추진함
- 서대구 지역은 서대구역 개통과 공업지역의 첨단화·복합화를 통한 공업지역경관을 창출함
- 달성, 현풍지역은 신산업의 인큐베이트 기능 등 수용하는 새로운 경관을 형성시킴

마.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경관관리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경관관리 추진

- 공공이 주도하는 규제 중심의 경관관리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민의 생활과의 부조화와 문제가 발생함
- 경관협정,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을 강화함

❖ 시민참여 기반의 확충

- 개성 있고 차별화된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

3.6. 공원·녹지

3.6.1. 현황분석

가. 공원

❖ 자치구별 불균형 분포

- 시민 1인당 공원 결정면적(10.0㎡)은 전국 평균 결정면적(19.8㎡)의 51% 수준이며 조성된 공원면적은 1인당 4.6㎡로 조사됨
- 자치구별 1인당 공원 면적은 달성군(32.2㎡)이 서구(2.8㎡)에 비해 11.5배 더 넓은 공원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 간의 1인당 공원면적이 불균등함

[표 3-6-1] 구·군별 공원 면적

구 분	공원면적(㎢)		인구(인)	1인당면적(㎡)	
	결정면적	집행면적		결정면적	조성면적
합 계	24.774	11.464	2,487,829	10.0	4.6
중 구	0.252	0.235	80,928	3.1	2.9
동 구	2.312	1.266	349,728	6.6	3.6
서 구	0.576	0.287	206,028	2.8	1.4
남 구	3.688	2.945	160,852	22.9	18.3
북 구	1.712	0.983	443,119	3.9	2.2
수성구	5.870	1.384	451,786	13.0	3.1
달서구	4.157	2.259	602,641	6.9	3.7
달성군	6.207	2.104	192,747	32.2	10.9

자료 : 2015 도시계획 현황통계

❖ 공원별 다양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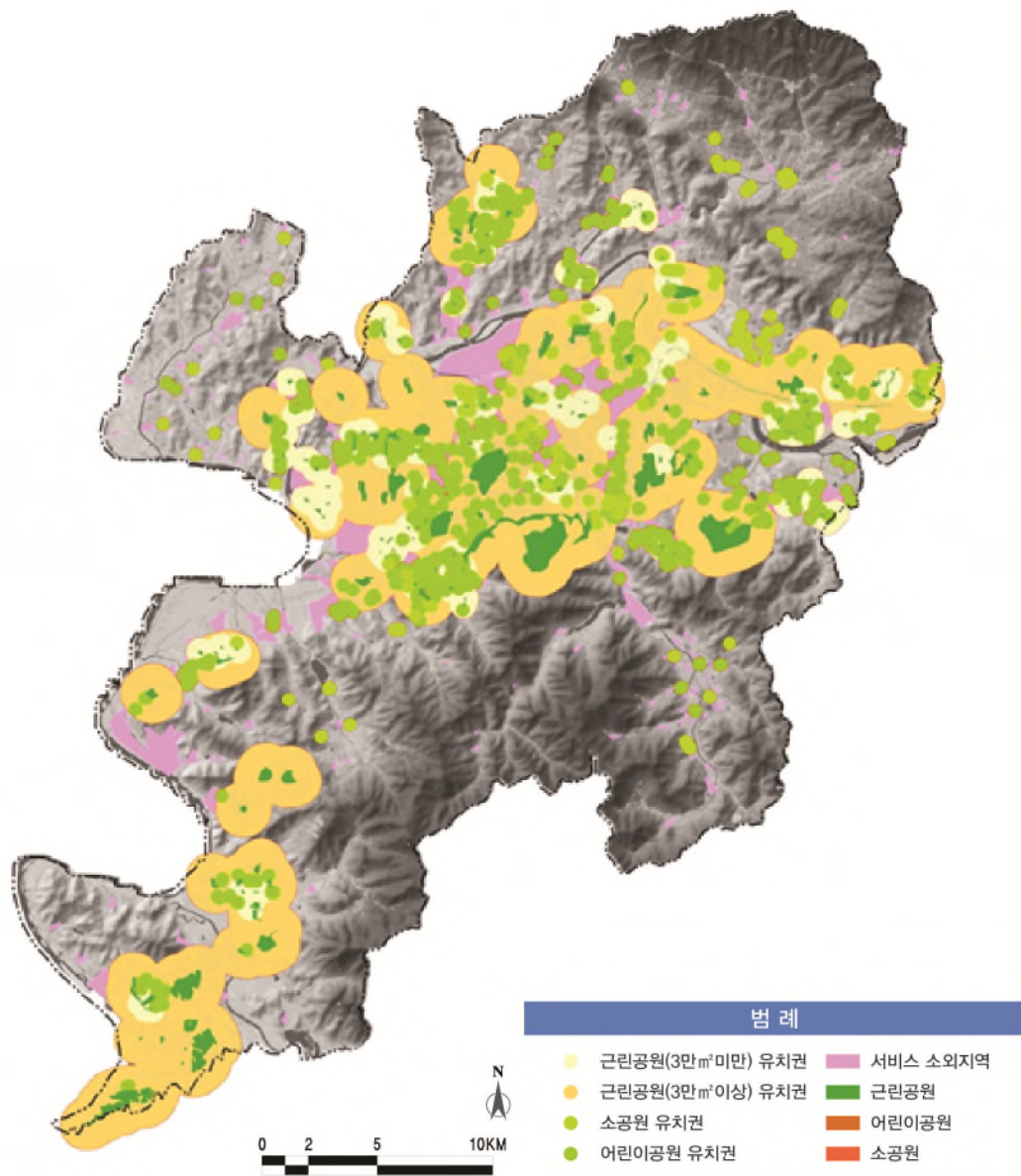
- 대구시 공원 중 근린공원이 전체의 82%로 가장 많으나, 다양한 여가 활동 수용에는 부족함
- 다양한 역사, 문화, 수변 자원을 활용한 주제공원 조성이 부족하여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수용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시설 도입이 가능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 전무하여 공원별 차별화가 부족함

❖ 녹지공간의 다수 분포

- 공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 쉼터 등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되지 않는 녹지공간이 다수 분포함

❖ 공원의 서비스수준

- 대구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180.0km²) 중 공원 서비스권에서 소외된 면적(24.5km²) 비율은 13.6%로 나타남
 - 공원 서비스권 : 소공원, 어린이공원 250m, 근린공원 3만 미만 500m, 근린공원 3만 이상 및 기타 공원 1,000m
- 2007년의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면적은 34km²이나, 서비스 소외지역 내 지속적인 공원 확충으로 서비스 소외지역 면적이 약 30% 감소하였음
- 행정구역 면적이 넓은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서구, 북구 등의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간의 공원 서비스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



[그림 3-6-1] 공원 서비스권 분석도

나. 녹지·유원지

❖ 도시계획시설 녹지의 집행이 낮음

- 2014년 말 현재 대구시에는 625개소, 7.9km²의 시설 녹지가 결정되어 있으며, 완충녹지가 가장 넓은 면적으로(87%) 지정되어 있음
-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한 경관녹지와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녹지의 조성이 저조함

[표 3-6-2] 시설녹지 현황

구 분	결 정			집 행		
	개 소	면적(km ²)	비율(%)	개 소	면적(km ²)	비율(%)
합 계	625	7.932	100.0	574	4.459	100.0
경관녹지	204	0.908	11.4	201	0.899	20.2
연결녹지	22	0.118	1.5	20	0.116	2.6
완충녹지	399	6.906	87.1	353	3.444	77.2

자료 : 2015 도시계획현황통계

❖ 유원지 이용용도의 변화

-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락과 휴양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대구시에는 총 5개소에 6.68km²가 결정되어 있음
- 공공기관에서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에서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으나 조성률이 미미함(27.2% 6.68km² 중 1.81km² 조성)
- 도시민의 여가 행태 변화 및 대체 관광지의 증가로 유원지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해 당초 시가지 외곽부에 입지한 유원지들이 도심으로 편입되고(수성유원지, 동촌유원지),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압력(화원유원지) 등으로 그 기능이 변화하고 있음

[표 3-6-3] 구·군별 유원지 현황

구 분	결 정			집 행		
	개 소	면적(km ²)	비율(%)	개 소	면적(km ²)	비율(%)
합 계	5	6.676	100.0	5	1.813	100.0
달성군	3	4.339	65.0	3	0.189	10.5
동 구	1	1.264	18.9	1	1.101	60.7
수성구	1	1.073	16.1	1	0.523	28.8

자료 : 2015 도시계획현황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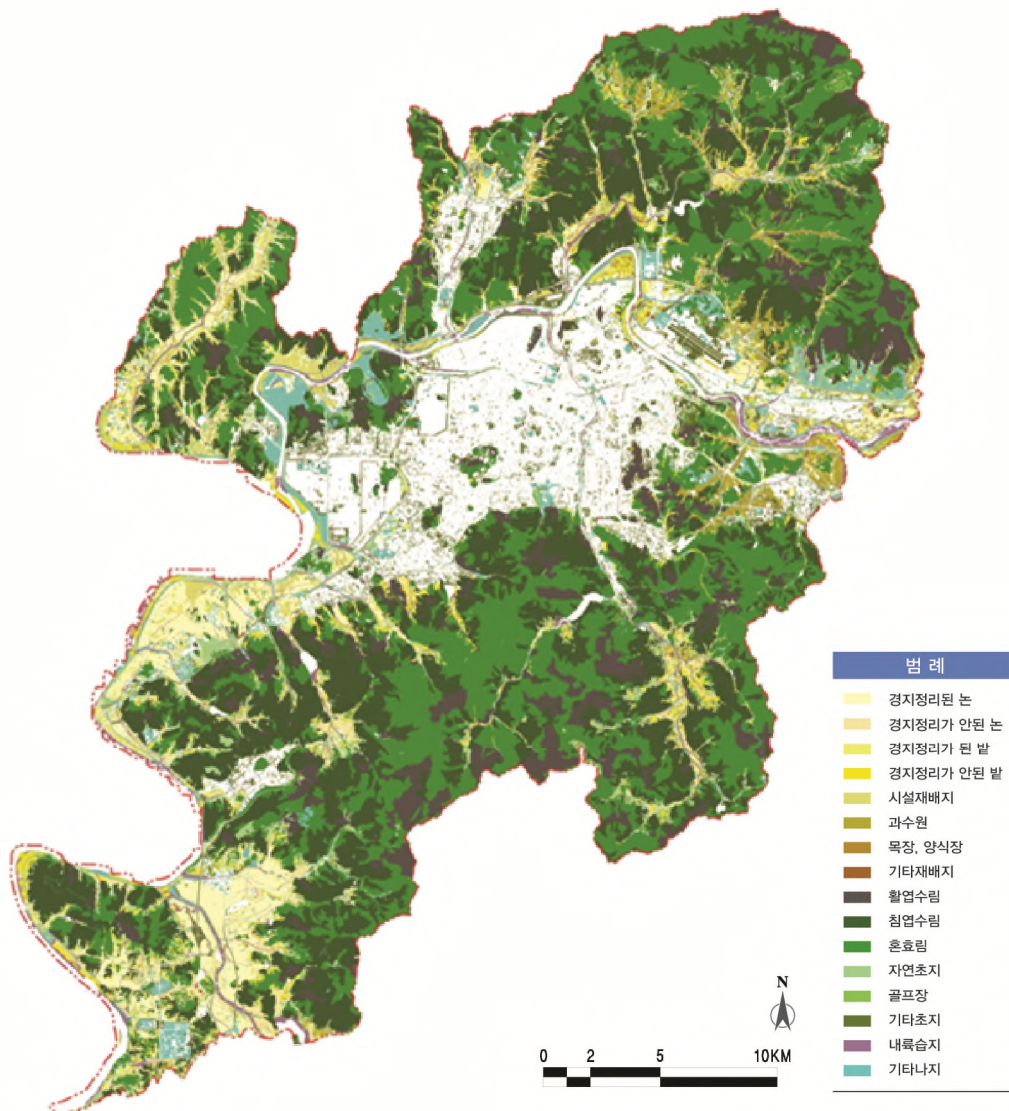
❖ 넓은 녹피면적

- 대구시 행정구역 면적에서 녹피면적이 점하고 있는 비율(녹피율)은 62.4%로 나타나 광역시 중에서 울산(70.9%) 다음으로 높음
- 대구시민 1인당 녹피면적은 225㎡로 산출되었으며 1인당 녹피면적은 광역시 중에서 울산(700㎡)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별 1인당 녹피면적은 달성군(1,729㎡), 동구(391㎡), 북구(114㎡) 순으로 높음

[표 3-6-4] 자치구별 1인당 녹피면적

구 분	대구시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1인당 녹피 면적(㎡)	224.9	7.2	391.4	13.1	44.3	114.9	98.0	42.9	1,729.4

자료 :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egis.me.go.kr>) 1인당 녹피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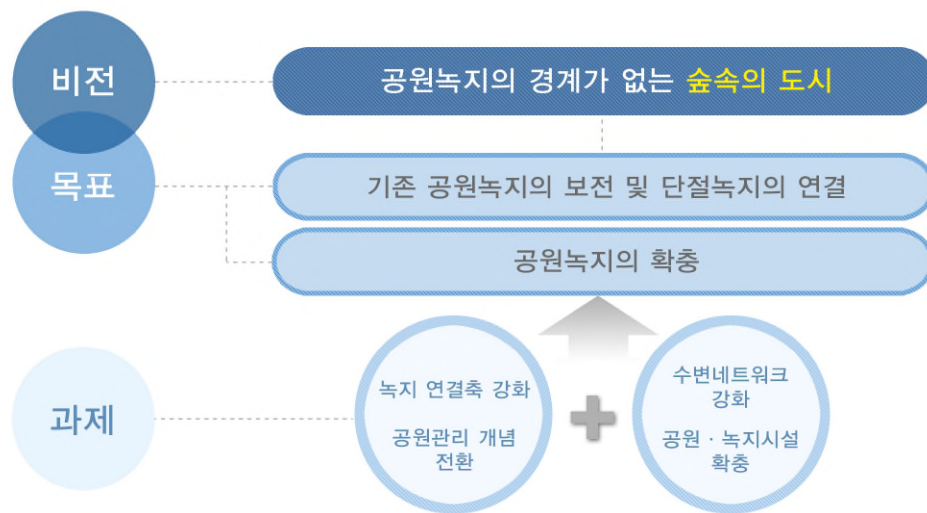
[그림 3-6-3] 토지 피복 분류지도

3.6.2. 기본방향

가. 비전

❖ 공원녹지의 경계가 없는 숲속의 도시

- 생활수준의 향상, 주 5일제의 정착 등으로 생활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른 시설 확충에 제약이 있음
-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녹지 유형의 다양화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전을 「공원녹지의 경계가 없는 숲속의 도시」로 설정함



3

부문별
계획

나. 목표

❖ 기존 공원녹지의 보전 및 단절녹지의 연결

-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유원지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함
- 도시 내부의 파편화된 공원·녹지를 선적, 면적으로 연계하고, 단절된 생태축과 지맥을 연결하여 생태순환의 시스템을 복원함
 - 과제 1 : 녹지 연결축 강화
 - 과제 2 : 공원관리 개념 전환

❖ 공원녹지의 확충

- 서비스 소외 지역 내 공원 확충 및 지역별 공원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자원별, 생활권별 다수의 주제공원을 신설함
- 도시 외곽부 골격녹지 보호 및 지천, 하천, 저수지, 습지 등의 수자원을 보전함
 - 과제 3 : 수변네트워크 강화
 - 과제 4 : 공원·녹지시설 확충

3.6.3. 실천전략

가. 녹지 연결축 강화

1) 도시내 자연생태계 보전·회복 및 공익 기능 증대

❖ 생태 녹지네트워크 구축

- 산림, 하천, 가로, 공원, 녹지가 연계된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함
- 달구벌대로의 도로경관 축과 신천변의 수변경관 축을 중심으로 환상형 둘레길로의 녹지공간 면적을 확대시킴

❖ 도시생태계의 보전·관리

- 현재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라 구축중인 대구시 도시생태계 현황지도(비오톱지도)를 활용하여 도시계획과 도시생태계를 고려한 도시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함

❖ 도시기후 조절 능력의 강화

- 투수면적 및 녹화면적을 늘려서 수(水) 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기존 저수지, 하천을 연계하여 바람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도심 열섬현상, 미세먼지 등 도시기후 조절 능력을 강화함

❖ 산림 공익기능의 증대

- 도시 근교림을 활용하여 자연휴양, 산림치유, 생태교육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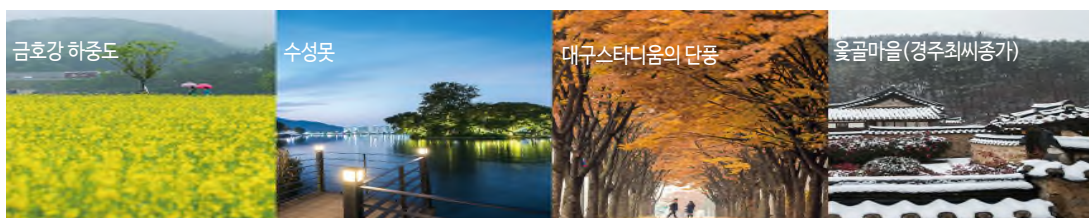
2) 공원해제지역 및 도심외곽녹지 보전

❖ 녹지관리의 철저

- 도시 외곽부 산지, 농지 등에 노출되어 있는 적치물 공간과 재활용물 분류소, 창고 등 녹지경관 훼손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함

❖ 장기미집행 공원실효(일몰제)에 대비

- 공원내 개발 가용지는 우선 매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추진함
- 공원시설의 단절 방지를 위해 기초성 시설과 연결체계를 강화함



나. 공원관리 개념 전환

1) 관리차원의 공원 개념 확대

❖ 관리차원의 공원 개념 확대

- 도시와 공원이 기능적·경관적으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화를 유도함

❖ 기초성시설의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

- 조성된 공원을 연결하는 선형 공원의 확충을 통하여 공원 네트워크를 구축함

2) 도시와 녹지의 상호 이입

❖ 녹피량의 증대

- 옥상, 구조물 상부 등 인공지반에 대한 녹화 및 완충녹지, 가로수, 교통섬 등에 대한 교목과 관목의 혼합 식재로 녹피량을 증대시킴
- 「2030년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도 녹피율 65.0%를 적용함

[표 3-6-5] 녹피율 지표

(단위 : %)

구 분	2016	2020	2025	2030 ¹⁾	비 고
녹피율	62.3	63.0	64.0	65.0	-

주1) 표시 해당년도 지표는 2030년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대구광역시, 2016.)을 적용

❖ 녹시량의 증대

- 시야에 보이는 녹색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주요 구조물 입면녹화, 담장 허물기 등을 시행함으로써 회색 도시에 녹색으로 변화를 유도함

❖ 공유지의 녹화

- 도심내 산재한 학교 등의 대규모 공공기관과 주차장 등의 공유지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녹지의 양을 확대함

3) 시설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전환

❖ 이용에 따른 관리주체의 전환

- 도시계획 시설의 종류에 따른 관리 방식에서 시민이 이용하는 활동 중심의 관리로 전환함(하천은 치수가 우선이므로 수로를 제외한 하천 둔치를 활용한 공원기능 강화)

❖ 이용중심의 관리강화

- 시설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공원내 활동 프로그램 등 이용 중심의 관리방식으로 전환함

다. 수변네트워크 강화

1) 산림과 수변 연계

❖ 주요 지맥과 하천의 연계

- 신천, 금호강,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수변축과 청룡지맥, 비슬지맥, 팔공지맥 등 주요 지맥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금호강 생활의 숲)
- 도시 외곽부 산림의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도시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천변 녹지를 최대한 확보함

❖ 연결형 녹지의 확충

- 외곽 산림축이 도심 내부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연결형 생태회랑(Eco-corridor)를 확충함
- 산림과 하천을 가로지르는 이용형 둘레길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공원을 통하여 연결함(개발제한구역 내 환상형 누리길 조성)

2) 문화가 흐르는 하천 네트워크 조성

❖ 신천의 문화축 조성

- 대구의 명당수인 신천의 수질을 보전하고,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함
- 신천과 금호강, 낙동강을 연결하는 수변문화축을 구축함

❖ 사람과 생물의 블루 네트워크 조성

- 도심을 관통하는 대명천, 범어천 등의 복개하천을 복원함
- 도심내 산재한 저수지와 하천을 연계하여 신천의 물고기가 이동하는 생태통로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블루네트워크를 형성함

❖ 역사가 흐르는 낙동강 조성

- 도동서원, 사문진나루터, 달성습지 등을 연계하여 역사가 흐르는 수변네트워크를 형성함

❖ 금호강을 치유의 강으로 조성

- 안심습지(생태), 화담마을(힐링), 하중도(문화) 중심으로 치유의 강을 조성함



라. 공원·녹지시설 확충

1) 시민이 쉬고, 일하고, 배우는 곳에서 녹색공간 체험

❖ 쉬는 곳

- 주거지 인근 마을공원, 경로당 주변 어르신공원 등의 생활권 주제 공원을 확충함

❖ 일하는 곳

- 일터 주변 소공원, 체육공원, 산림공원 등 공원 확충으로 시민의 일상적 이용 및 주말 이용에 기여하고 공기정화 등 환경보전 효과를 제고함

❖ 배우는 곳

- 학교(유치원) 주변 공원과, 태교 숲, 유아 숲 체험원, 산림공원 등을 연계하여 야외 수업,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함

2) 공원이용의 형평성 개선

❖ 서비스 소외지역 내 공원의 확충

- 걸어서 10분내 공원이 없는 지역의 공원을 확충함

❖ 자치구의 형평성 고려

- 공원율이 낮은 서구, 중구에 공원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을 유도함

❖ 재정여건 고려

- 부족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유지, 유허공지, 유사 공원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공원을 확충함
- 타 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산림휴양시설, 수변휴게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시설 등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

3) 시민 1인당 공원조성면적 확대

❖ 999+1 추진

- 2030년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9개의 대표공원, 90개의 주제공원, 900개의 생활권 공원을 확충하고 +1은 시민들의 가정에 있는 '나만의 정원'(시민 참여)을 추진함
- 도시공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공원 제도(도시공원법 2016년 3월 22일 개정) 및 민간공원추진자 제도(도시공원법 2009년 12월 29일 개정)를 적극 활용함

4) 주제별·생활권별 다양한 주제공원 도입

- 공원에 대한 시민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시가지내 소규모 이용형 공원 확충으로 전환함
- 토지이용현황 및 도입기능을 감안하여 생활권별로 다양한 주제공원을 도입함

[표 3-6-6] 주제공원

구 분	개 발 방 향
산림공원	• 사유지,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을 활용한 공원
가로공원	• 달구벌대로 등 도로 중앙분리대 및 차로 축소를 통한 공원 확보
수변공원	• 시민들이 공원으로 인지하고, 이용하고 있는 신천의 공원기능 강화
물빛공원	• 습지 및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별빛공원	• 앞산, 와룡산 등 도시경관조망점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을 공원화
마을공원	• 공용주차장, 공가 등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마을 쉼터 기능을 부여
어르신공원	• 시 전역에 산재한 경로당 주변 주택을 매입하여 소공원 조성

자료 : 2030년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대구광역시, 2016.)

5) 정원 확대

❖ 민간 정원

- 1평 정원, 옥상 정원 등 민간이 관리하는 토지에 대한 정원을 조성함

❖ 공공 정원

- 공공기관,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정기적, 일시적 녹화를 통한 정원을 조성함

❖ 도시 농업 활성화

- 마을 텃밭, 아파트 텃밭, 옥상 농장 등 정원과 연계한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고, 생산·소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함

6) 공원녹지의 정비 및 확충

❖ 공원유형의 변경

- 남구 봉명공원(근린공원→문화공원, 0.028km²)
 - 대구 대표도서관 입지를 위하여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함
- 수성구 두건골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역사공원, 0.001km²)
 - 수성구에서 추진 예정인 역사공원 조성사업 반영
 - 모명재 주변에 입지한 어린이공원은 장소성을 고려하여 역사공원으로 결정

[표 3-6-7] 공원정비계획

구 분	2015년 말 현재		증 감		2030년 말	
	개 소	면적(km ²)	개 소	면적(km ²)	개 소	면적(km ²)
합 계	796	24.774	-9	-9.320	787	15.454
생활권공원	777	21.628	-9	-8.534	768	13.094
근린공원	160	20.419	-8	-8.533	152	11.886
어린이공원	476	0.98	-1	-0.001	475	0.979
소 공원	141	0.229	-	-	141	0.229
주제공원	19	3.146	-	-0.786	19	2.360
역사공원	2	0.004	-	-	2	0.004
문화공원	6	0.083	-	-	6	0.083
수변공원	4	0.277	-	-	4	0.277
체육공원	7	2.782	-	-0.786	7	1.996

자료 : 2030년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대구광역시, 2016.)

❖ 공원시설의 확충

- 2030년말 까지 수성구 무학산 문화공원 등 1,187개소 34.376km²의 도시공원을 확보함
 - 주제공원은 19개소에서 공원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시가지내 소규모 이용형 공원을 확충하기 위해 412개소 17.072km²를 확보함
 - 생활권 공원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처하기 위해 777개소에서 775개소로 축소하여 16.794km²를 확보함
- 1인당 공원면적은 「2030년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12.5m²를 확보함

[표 3-6-8] 공원계획(총괄)

(단위 : km², m²/인)

구 분	2015		2020		2025		2030 ¹⁾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796	24.774	870	27.000	1,187	30.500	1,187	34.376
주제공원 소계	19	3.146	50	5.372	150	13.706	412	17.072
생활권공원 소계	777	21.628	777	21.628	775	16.794	775	16.794
개발사업 확충	-	-	-	-	-	-	-	0.510
1인당 공원면적	10.0		10.5		11.5		12.5	

주1) 표시 해당년도 지표는 2030년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대구광역시, 2016.)을 적용

[표 3-6-9] 공원배치계획(10만 제곱미터 이상)

구 분	구 군	명 칭	면 적	위 치
합 계		15 개소	8,159,000	
근린공원	남 구	대구대표공원(앞산)	3,281,000	대구대표공원(앞산)
도시농업공원	동 구	동 구	125,000	금강동 일원
문화공원	수성구	무학산	109,000	무학산
문화공원	수성구	고 산	355,000	고산
물빛공원	동 구	안심습지	124,000	안심습지
물빛공원	달성군	달성습지	152,000	달성습지
산림공원	동 구	백안동	234,000	백안동 일원
산림공원	북 구	녹색힐링벨트	485,000	동변동 일원
산림공원	수성구	법이산	521,000	법이산 일원
산림공원	달서구	대구정부청사	147,000	대구정부청사 일원
산림공원	달성군	와룡산	791,000	와룡산 일원
수목원공원	달서구	대구수목원	759,000	대구수목원 일원
수변공원	달서구	도원지	332,000	도원지 일원
야영장공원	달성군	오 설	457,000	달성군 오설리 일원
유수지공원	달서구	대명유수지	287,000	대명 유수지 일원

자료 : 2030년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대구광역시, 2016.)

❖ 녹지의 확충

- 가로수 계획, 생태통로계획, 녹지복원 계획 등의 일반녹지 확충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따름
- 일반적인 녹지 확충계획은 민관이 협력하여 조성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녹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임상이 양호한 지역,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심 근교 산림 등 생태적 중요성, 경관성, 도시공간구조,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 및 경제성 등을 고려
 - 전국 대도시 중 두 번째로 높은 녹피율을 바탕으로 기존 점단위 녹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녹지대를 조성
 - 외곽녹지축 및 수변축의 시가지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와룡로를 활용한 가로녹지축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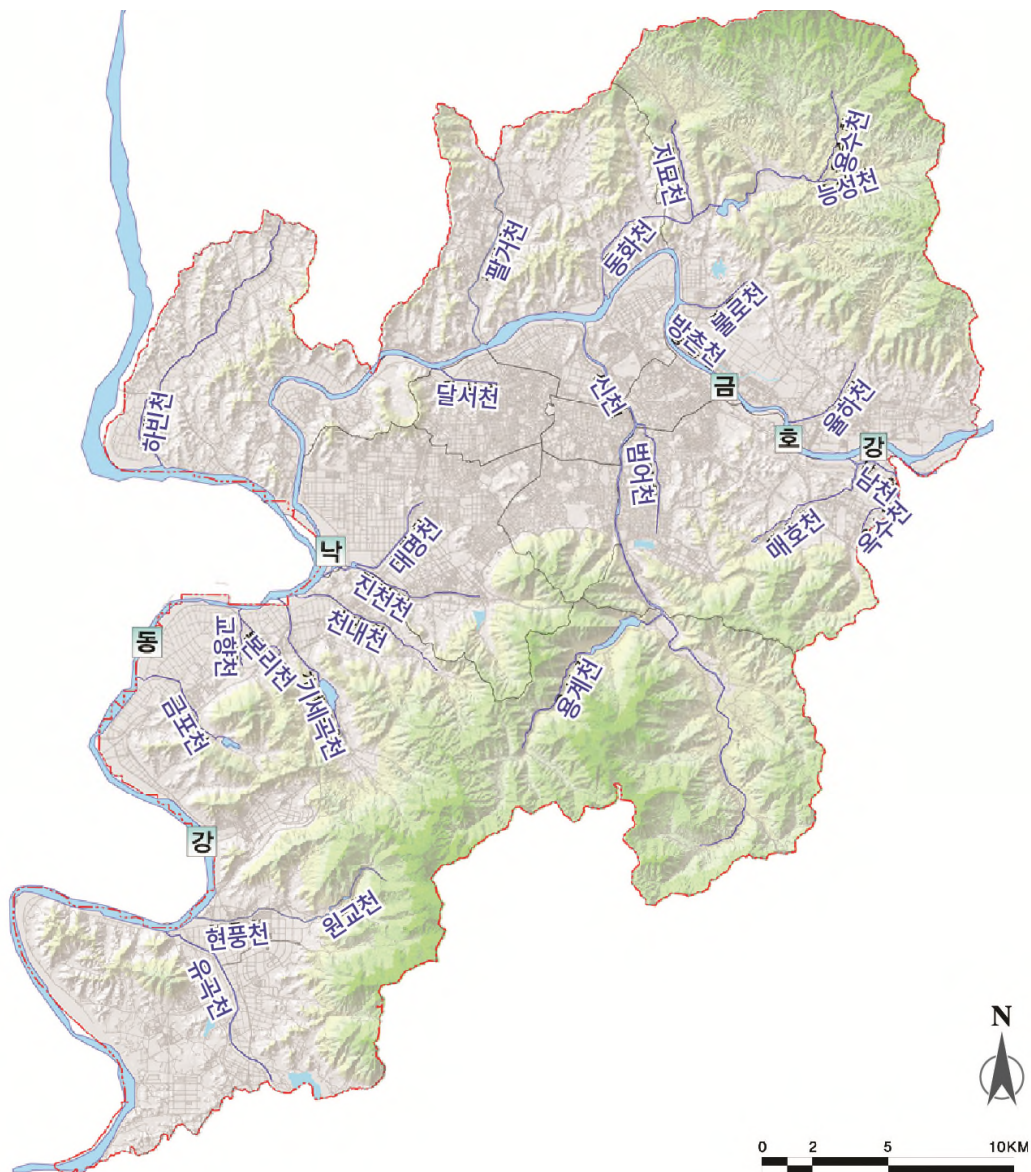
3.7. 방재 및 안전

3.7.1. 현황분석

가. 자연적인 재해

❖ 하천

- 대구광역시에는 한반도 동남부 영남내륙 중심에 입지하여 북쪽에는 팔공산, 남쪽에 대덕산과 비슬산, 동서로는 완만한 구릉지에 시가지가 형성된 분지형 도시임
- 대구광역시에 위치하는 하천으로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7개소, 소하천 124개소로서 연장은 국가하천 99.47km, 지방하천 191.41km, 소하천 203.24km으로 수계가 형성되어 있음



[그림 3-7-1] 대구시 하천현황도

❖ 풍수해

- 풍수해는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빈발로 피해발생횟수 증가 및 피해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음
- 2004년 이후 호우 8회에 태풍 5회, 대설 2회가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액은 2,739.7백만원이 발생되었으나, 점차 감소 추세임

❖ 지진

-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대에서 벗어나 있으나, 1978년 홍성, 1981년 포항, 1996년 영월지역 지진 등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 발생횟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
-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종류와 규모를 예측하여 유사시에 대처가 필요함

❖ 가뭄

- 최근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강우 일수의 증가 등으로 도시용수 수요 부족현상이 증가 추세임
- 수원의 수자원량은 기상학적인 요인과 유역의 수문학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뭄 피해에 대한 대책은 유역별 특성의 고려가 필요함

나. 인위적 재해

❖ 사회재난

- 사회재난은 연평균 약1만5천여 건으로 교통사고와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외에는 산불, 폭발, 붕괴 등이 발생함
- 도시공간의 고밀화·고층화·지하화·노후화 등에 따라 재난 발생위험은 발생횟수는 많아지고 발생규모의 대형화가 예상됨

❖ 범죄

- 대구광역시에 5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는 연평균 2만9천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절도와 폭력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성폭력(강간, 성추행)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인터넷의 발달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접근성이 증가하여 사회적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골목길 등 불특정 공공장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안전을 고려한 도시계획개념 미흡

- 도시화가 고도화함에 따라 건물과 시설물의 대형화·고밀화·노후화, 불투수지역 확대 등으로 안전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계획 개념의 확대가 필요함

❖ 다양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시급

- 방재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반조건으로 기초자료 및 정보기반은 일부 재난정보가 유형별로 구축되어 있으나, 통합적인 정보구축 및 활용성의 측면은 아직 초보 단계임.
- 재난관리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상황실의 종합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유비쿼터스기술(Ubiquitous computings)에 기반을 둔 안전정보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안전정보기반이 필요함
- 재난·재해위험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의 도입으로 사전에 재해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미비

-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상이변과 재해에 대한 영향의 과학적인 예측과 장기적인 관점의 적응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콘텐츠와 이행이 크게 미흡한 실정임
- 기후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 가뭄등 기상재해가 잦고, 기후가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재해약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 미흡

- 고령인구 및 1인가구의 증가, 생활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방재복지에 대한 수요와 고품질 방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나 일상생활의 안전사고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미흡한 편임
- 재난·재해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대비와 대응뿐만 아니라,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선진화된 체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 건물, 공공 시설물 등 실내·외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설계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노약자, 부녀자 등 재해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안전의식의 미흡

- 재난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높은 관심과 정책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재난 경험을 교훈으로 피드백 하는 풍토가 약함
- 재난발생시 행동요령을 미숙지하거나 미준수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재관리역량이 미흡함

3.7.2. 기본방향

가. 비전

❖ 모두가 안전한 도시

- 기상이변과 도시기능의 발달로 도시 위험요소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재해가 복합화, 대형화되는 실정임
- 기후변화 적응 기반 구축 및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구축, 재난 대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비전을 「모두가 안전한 도시」로 설정함



3

부
문
별
계
획

나. 목표

❖ 예방 및 대응역량의 강화

- 재해발생의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발생 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함
 - 과제 1 : 종합적인 예방시스템 구축
 - 과제 2 :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예방 및 역량강화

❖ 시민참여의 활성화

- 재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시민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확대 및 대응체계를 구축함
 - 과제 3 : 도시생활안전 거버넌스 확대
 - 과제 4 : 주민자율적인 재해대응체계 구축

3.7.3. 실천전략

가. 종합적인 예방시스템 구축

❖ 위험인지기반의 구축 및 활용

- 안전 및 재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각종위험과 관련한 재난 안전 정보 DB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을 구축함
- 도시의 기능적 유지를 위해 도시재난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범죄 등 시민의 안심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도 DB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안전 및 안심 정보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도시 내 위험 및 안심 정보들을 관장하는 기관들 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 체제를 강화함

❖ 종합정보 구축을 통한 재해예방 및 예측

- 홍수 등 재해가 빈발한 지역에 대하여 재해발생시 기상조건, 지형, 피해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한 종합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도시방재계획에서 재해예방 및 예측자료로 활용함

❖ 구난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육성 및 지원

- 재난시 대응활동의 일환으로서 구난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대비하여 훈련을 체계화 및 과학화를 추진함
- 대규모 재난 시 구조와 구호는 주로 이웃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자주적 방재역량을 강화함

❖ 위험감지시스템의 신뢰 확보

- 도시 내 건물 및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화재나 붕괴 등 각종 위험요인의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발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도시재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재는 전기·가스등의 위험요소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함

❖ 비상출동 차선관리방식의 개발 및 적용

- 구급·구조·소화 등 비상시 차량이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하여 비상차선의 지정 장애구간 유비쿼터스 기술에 의한 가변형 비상체계 등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으로 검토 및 활용함
-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로의 비상용 차선에 대한 디자인 개선 및 교육 확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함

나.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예방 및 역량강화

❖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 대응역량의 확대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국지적인 홍수 및 풍수해의 대형화 등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의 물 순환 환경 및 홍수위험 등 변화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단위 물관리계획을 수립함
- 풍수해 대응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 내 배수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침수위험에 대한 예·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
- 기존의 하천부지에 대한 도시개발로 인한 해당 유역의 홍수위험이 증가하여 이를 원래대로 복원하는 방안이 요청됨

❖ 도시기후변화 재해대응체계의 마련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하여 지해 취약등급(I~IV등급)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을 배치함
- 재해취약지역의 영향저감을 위하여 토지이용-기반시설-단지조성-건축물을 연계한 다중재해방어 체계와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가 위험을 판단하는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함

❖ 광역방재시설의 설치 및 연계네트워크 구축

- 신개발지역과 합수지역에 우수지, 배수지 등 광역 방재시설을 설치함
- 개발사업시 저류시설 등 지구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저류시설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재역량을 강화함

❖ 도시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계획의 도입

-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의 자연적인 물 순환 환경을 파괴시켜 하천의 건천화, 도시열섬현상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개발이전의 물 순환 환경으로 회복하기 위한 빗물관리 계획을 도입함
- 기존 도시의 물관리는 하수관거, 빗물펌프장 등 구조적 대책에서 물 순환계획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도시 물 순환 체계 회복을 유도함

다. 도시생활안전 거버넌스 확대

❖ 고령화·저출산 사회구조에 따른 정보제공 및 케어

- 고령화 사회구조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낙상 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
- 저출산 시대에 출산가정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

❖ 생활안전 취약계층 및 지역안전 프로그램의 운영

- 재난의 속성상, 재난이 발생하면 저소득층 등 사회의 취약계층이 재난의 영향을 더욱 받는 불평등성이 존재함
- 재난 안전 정책에서도 저소득층 등 안전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신설과 지원이 요청됨

❖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이용한 범죄 예방

-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환경설계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
- 가로 설계, 가로등 재배치,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을 통하여 시거를 확보하고 범죄요소를 저감. 장기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CPTED를 도입함

라. 주민자율적인 재해대응체계 구축

❖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시민교육 강화

- 안전과 관련하여 역량 있는 민간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시민교육에 있어 관주도의 교육은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민간조직을 활용한 시민참여 및 교육기회를 확대함

❖ 민간조직 역할의 활성화

- 도시안전 거버넌스에서 핵심은 지역의 역량이므로 마을지킴이, 안전지킴이등 지역 안전조직에 대한 구축과 교육을 강화함
- 자동심장 충격기(AED) 등 도시 내 산재하는 안전시설은 공공주도의 보전 및 관리가 어려우므로 민간조직을 활용한 공동관리 방안을 강구함

❖ 자원봉사 참여동기의 유발 및 능력 제고

- 도시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생산과 공유는 도시안전관리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역여건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이 여가 생활 및 문화생활과 연관된 자율적인 방재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참여 동기 유발 및 능력을 제고함

❖ 자율방재조직의 지원

- 소득 및 의식수준의 향상과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공공주도의 안전·서비스 제공은 제약이 있음
- 안전 분야의 전문기술과 자격을 가진 민간 조직이 재난/재해시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율 방재 조직의 지원을 강화함

3.8. 경제·산업

3.8.1. 경제 산업구조

가. 현황분석

❖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 2015년 기준 1인당 개인소득은 16,686천원으로 전국 평균의 96.89%에 불과함

[표 3-8-1] 1인당 개인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전 국	8,602	11,198	14,068	17,222	4.74
대구광역시	8,253 (95.94)	10,482 (93.61)	13,376 (95.08)	16,686 (96.89)	4.81

자료 : 통계청, 국민계정·지역계정, 지역계정, 행정구역별 1인당 개인소득

❖ 경제활동 관련 지표가 정체현상을 보임

- 경제규모를 파악하는 경제활동 관련 지표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0.30%, 취업률은 0.10%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3-8-2] 경제활동지표 (단위 : 천인,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15세이상인구	1,951	1,985	2,041	2,096	0.48
경제활동참가율	58.9	60.9	59.4	61.6	0.30
취업률	95.1	95.7	96.0	96.51	0.10

자료 : 통계청, 고용·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총괄,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해당년도

❖ 취업자는 정체현상을 보이며, 1·2차산업은 감소추세

- 취업자는 2015년 1,234천인으로 연평균 0.82%로 정체현상을 보임

[표 3-8-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인,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합 계	1,092	1,181	1,169	1,234	0.8
1차산업	27(2.5)	28(2.4)	23(2.0)	21(1.7)	-1.7
2차산업	285(26.1)	248(21.0)	237(20.3)	235(19.0)	-1.3
3차산업	780(71.4)	905(76.6)	909(77.8)	978(79.3)	1.5

자료 : 통계청, 고용·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직업 구분류, 행정구역별 산업별 취업자, 해당년도

❖ 고용률은 정체현상, 청년 고용률은 감소추세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기준 고용률은 0.39%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OECD 기준(15세~64세) 고용률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청년 고용률은 0.15%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8-4] 연령별 고용률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합 계	56.0	58.3	57.0	59.4	0.39
15~29세	40.2	42.6	38.2	39.3	-0.15
15~64세	59.2	61.9	61.8	65.4	0.67

자료 : 통계청, 고용·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직업 구분류, 행정구역별 산업별 취업자, 해당년도

❖ 여성고용률은 정체

- 2015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49.2%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 고용률의 70% 수준임

[표 3-8-5] 성별 고용률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남 성	67.1	68.3	67.2	70.3	0.31
여 성	45.8	49.0	47.5	49.2	0.48

자료 : 통계청, 고용·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행정구역별 성별 고용률(구직기간 4주 기준), 해당년도

❖ 300인 미만의 중기업수 증가추세

- 2015년 기준 50명~299명 규모의 중기업의 수는 2,004개 업체로 매년 2.76%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수도 증가 추세에 있음

[표 3-8-6] 중기업수 현황

(단위 : 업체,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합 계	174,760	179,780	183,115	200,070	0.91
1 ~ 49명	173,353	178,230	181,247	197,949	0.89
50 ~ 299명	1,332	1,475	1,758	2,004	2.76
300 ~ 999명	66	65	94	102	2.94
1000명 이상	9	10	16	15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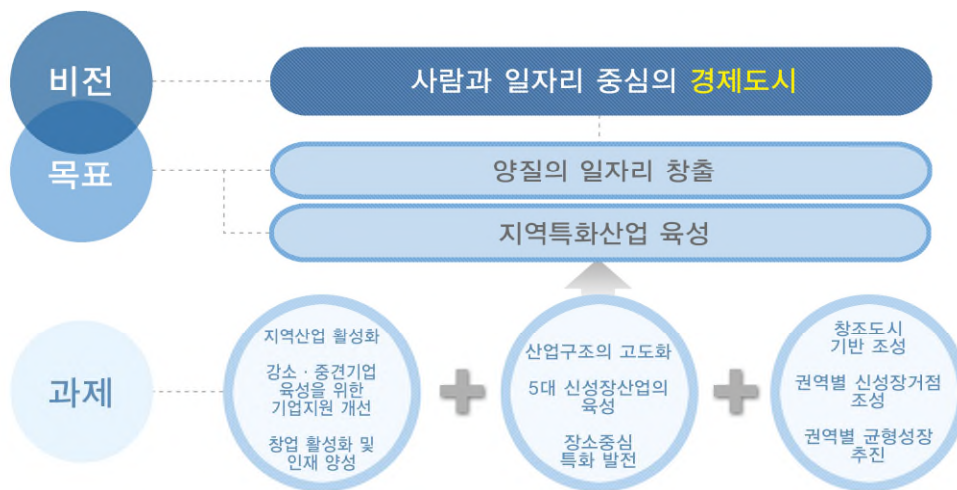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기업경영, 전국사업체조사, 시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해당년도

나. 기본방향

1) 비전

❖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도시

- 지역은 노동력 중심의 섬유산업이 발달하였으나, 인건비 상승 등 여건변화에 대처 부족으로 지역경제의 정체를 유발하고 있음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변화하고 있는 산업경제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비전을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도시」로 설정함



3

부문별
계획

2) 목표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1인당 개인소득 4천만원, 고용률 78% 달성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대구
 - 과제 1 : 지역산업 활성화
 - 과제 2 :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개선
 - 과제 3 : 창업 활성화 및 인재 양성
 - 과제 4 : 산업구조의 고도화
 - 과제 5 : 5대 신성장산업의 육성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지역내 총생산 80조원 달성, 중기업 2,500여개 육성을 통한 산업간·지역간 균형적 경제성장
 - 과제 6 : 장소중심 특화 발전
 - 과제 7 : 창조도시 기반 조성
 - 과제 8 : 권역별 신성장거점 조성
 - 과제 9 : 권역별 균형성장 추진

다. 실천전략

1) 지역산업 활성화

❖ 지역내 총생산(GRDP)

- 미래 대구시의 경제규모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연평균 6.0%로 설정하여 2030년 대구시 지역내 총생산을 120조원으로 계획함
- 국내 총생산액의 지역 점유율을 3.12%에서 4.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표 3-8-7] 대구시 지역내 총생산 목표

(단위 : 조원, %)

구 분	목 표	2015	2020	2025	2030
지역 총생산액	연평균 6.0% 성장	48.9	65.4	87.5	120
지역 점유율	4% 점유	3.12	3.39	3.68	4.0

자료 : 대구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대구산업경제 발전 로드맵, 2016

❖ 경제활동지표

- 경제활동참여율은 과거 추세인 연평균 증가율 0.3%〈표 3-8-2〉를 적용하여 목표년도 63.9%로 설정하고, 15세 이상 인구 지표를 적용하여 단계별 경제활동인구를 설정함
- 취업률은 연평균 0.1%〈표 3-8-2〉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감안하여 연평균 1.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고려해 2차산업의 취업인구 구성을 20% 비율을 목표로 설정함

[표 3-8-8] 대구시 목표연도 경제활동지표

(단위 : 천인, %)

구 분	목 표	2015	2020	2025	2030
15세 이상인구		2,096	2,295	2,415	2,533
경제활동참여율	연평균 0.3% 성장	61.6	62.2	63.0	63.9
경제활동인구		1,291	1,427	1,520	1,619
취업율	연평균 1.0% 성장	96.51	96.94	97.40	97.86
취업인구		1,234	1,383	1,480	1,584
1차산업	(구성비 2%)	21(1.7)	25(1.8)	28(1.9)	32(2.0)
2차산업	(구성비 20%)	235(19.0)	267(19.3)	290(19.6)	317(20.0)
3차산업	(구성비 78%)	978(79.3)	1,091(78.9)	1,162(78.5)	1,235(78.0)

자료 : 대구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대구산업경제 발전 로드맵, 2016

❖ 1인당 개인소득

- 1인당 개인소득은 연평균 증가율 4.81%〈표 3-8-1〉 적용시 2030년도 대구시 1인당 개인소득은 3.4천만원으로 예측되나, 미래 대구시의 경제규모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2030년 대구시 1인당 개인소득을 4천만원으로 상향 설정하고 단계별로 등배분함

[표 3-8-9] 대구시 1인당 개인소득 목표

(단위 : 천만원)

목 표	2015	2020	2025	2030
1인당 4천만원	1.67	2.23	3.00	4.00

자료 : 대구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대구산업경제 발전 로드맵, 2016

❖ 고용률

- 고용지표는 「대구시민복지기준(2016.7.29.)」에서 제시한 지표를 적용함
- 고용률(OECD 기준)은 2020년에 69.4% 목표고용률을 추세 연장하여 2030년 대구시 고용률 78%로 설정함
- 여성 고용률은 2020년 52.2% 목표고용률을 2030년도 대구시 여성 고용률로 설정하여 단계별로 등배분함
- 청년 고용률은 2020년에 44.0% 목표고용률을 추세 연장하여 2030년 대구시 청년 고용률 54.0%로 설정함

[표 3-8-10] 대구시 고용률 목표

(단위 : %)

목 표	2015	2020 ¹⁾	2025	2030
고 용 률(연평균 1.2% 성장)	65.4	69.4*	73.5	78.0
여성고용률(연평균 0.4% 성장)	49.2	50.0	51.0	52.2*
청년고용률(연평균 2.2% 성장)	39.3	44.0*	49.0	54.0

주1) 표시는 2020 대구시민복지기준(대구광역시, 2016.7.29.)에서 제시한 2020년도 목표임

❖ 중기업 육성

- 업체당 종사자수가 50인이상 299인 이하인 중기업수의 연평균 증가율 1.2%를 적용하여 2030년도 대구시 중기업수를 2,500개사로 설정함

[표 3-8-11] 대구시 중기업 목표

(단위 : 개사)

목 표	2015	2020	2025	2030
연평균 1.2% 성장	2,004	2,517	2,322	2,500

자료 : 대구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대구산업경제 발전 로드맵, 2016

2)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개선

❖ 기업중심의 육성정책으로 전환

- 기업(지역기업, 수요자) 중심 상향식 기획·실행·성과관리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성정책으로 전환함

❖ 선별적 지원대상의 설정 및 맞춤형 지원수단의 제공

- 선별적 지원 대상 설정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명확화와 차별화로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함
- 선별적 지원 대상 설정과 개별기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통하여 최적의 지원사업 연계와 맞춤형 지원수단 제공으로 지원효과를 극대화함

❖ 원스톱지원창구로 일원화

- 지원사업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결을 통합 지원하는 기업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지원창구의 체계적으로 일원화함

❖ 통합적 공동 사업관리 유도로 지역발전 선순환 추진

- 지원사업의 공동 관리 체계 구축으로 Plan-Do-See 단계별로 공동 필수사업의 수행으로 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성과를 제고함
- 지원 대상 기업 선정과 사후평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창출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기업성장과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추진함



[그림 3-8-1] 기업지원 개선 기본방향

3) 창업 활성화 및 인재 양성

❖ 창업인재 및 창의·혁신인재의 양성

- 지역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창업 및 성장여건을 조성함
- 지역출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청년유인 인프라 및 정주환경을 개선함
- 지식기반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및 정착지원을 활성화함
- 지역 산업인력 고용안정성 및 발전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재수급시스템을 강화함

4) 산업구조의 고도화

❖ 신성장동력화를 통한 전통주력산업의 고도화

- 제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구조의 재편과 신성장사업분야 개척 업종다변화, 제품 특성화 등 자생적인 활로를 모색함
 - 섬유 : 소재 중심으로 섬유패션 등 문화와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 견인
 - 자동차 부품 : 기존 부품시장을 겨냥한 국내 시장진출 확대와 전기차, 등 신규 완성차 시장 진출 등 이원화 전략 추진
 - 기계(금속)산업 : ICT기술과 연계, 로봇·물(장치) 등 특수목적용으로 시장을 세분화

❖ 도시형산업의 구조 고도화

- 소규모 특화산업 단위의 개별 육성으로 각각 성장해 왔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
 - OEM경제에서 브랜드 경제로 진화 : 서비스산업과 연계를 통한 제조업의 6차 산업화 등 기존의 저생산성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주력

5) 5대 신성장산업의 육성

❖ 5대 신성장산업

- 핵심 기반산업을 토대로 첨단기술, 지식서비스를 융복합하여 지역 산업경제 성장을 주도함

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 전기차 생산클러스터의 조성

- 보급형 EV(경승용차) 생산 및 화물차 수요와 연계한 전기화물차 개발 및 양산화를 통하여 전기차 산업 육성, 연간 20만대 생산체계를 구축함
-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요소기술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내 전기차 생산 및 보급, 지역 거점 내 카셰어링/렌터카 사업 등을 통하여 전기차 50만대를 보급함

- 전기차 선도도시 구현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초기 전기차 시장 창출,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전기차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충전인프라 32만기를 보급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글로벌 실증존 구축

- 규제프리존,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존, 요소기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구축함
- 전국 유일의 자율주행 원스톱 실증환경 구축을 통한 기업 지원 및 자율주행분야 국가경쟁력을 강화함
- 안전, 보안,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서비스, 보험, 차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시장 사업자들과의 제휴가 가능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 시장을 확보함

❖ 튜닝클러스터의 구축

- 튜닝 시험장, 대체(튜닝)부품 인증 등을 통한 국제적인 전문 튜닝업체를 발굴함

나) 로봇산업

❖ 로봇산업집적화단지의 조성 및 클러스터의 고도화

- 글로벌 로봇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하고 연계한 로봇 안전성센터를 구축함
- 사물인터넷(IoT) 웰니스 서비스 로봇 등 시범사업을 통한 시장창출형 지원사업을 추진함

❖ 로봇R&BD허브의 구축 및 클러스터 고도화

- 로봇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개방형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함
- 로봇상용화를 위한 국가 로봇산업 R&BD 허브를 완성함

❖ 로봇성장 생태계의 조성 및 글로벌화

- 지역주력산업과 연계된 수요·공급 바탕의 로봇시장과 기술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
- 기술출자(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 및 중점 육성분야 기업 유치를 가속화함

다) 에너지사업

❖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자족지구/도시 조성

-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구역별 에너지 자족지구를 조성함
- 지역 에너지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함

❖ 미래형 스마트에너지신산업 및 대표기업의 육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에너지기업(중수형 연료전지, 고효율 발전시스템 등)을 육성함
-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관련 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함

라) 물산업

❖ 수출지향형 물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18년 2월 준공) 및 그와 연계된 분산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함
- 물산업 선도기업 육성 및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물산업을 육성함

❖ 지역의 국내물산업 비중의 대폭 확대

-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매출 및 고용을 증대시킴
- 지역주력산업인 ICT, 기계, 메카트로닉스, 섬유(산업용)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물산업 동반성장으로 국내 물산업 비중을 10%대로 향상시킴
- 대구시 상하수도시설 교체계획과 연계하여 실적을 지원함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육성, 국내 기존 물전시회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시도함

마) 의료산업

❖ 신약, 의료기기의 개발

- 글로벌 수준의 제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지역내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함
- 신의료 기술과 연관 특화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임상기반 의료산업을 육성함

❖ 의료기기 기업 유치

- 의료기기 및 제약 기업과의 기술 연계 구조를 조성함
- 전문인력과 아이템이 풍부한 정보마켓 조성을 통한 기업을 유치함
-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의료전문기업 및 전후방 연계가 가능한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의료관광객 유치

- 의료관광 마케팅 강화와 지속적인 의료관광 기반을 구축함
- 지역내 특화분야 육성을 통한 의료관광 허브를 구축함
 - 지역내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치과, 성형 등)에 대한 특화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과 연계된 패키지 프로그램 구축
 - 대상 주요국의 현지법인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프랜차이즈 진출
- 관광객의 의료수준에 맞춘 전문의료기관의 지정과 관리를 추진함
-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함

❖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성장지원과 지역내 의료산업 맞춤형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을 확대함

6) 장소중심 특화 발전

❖ 6대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유도

- 지역여건에 적합한 5대 신성장산업을 6대 권역과 연계한 장소중심의 특화발전을 추진함
- 주요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클러스터를 유도하고, 산업적 기반이 약한 권역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함



[그림 3-8-2] 장소중심 특화 발전

7) 창조도시 기반 조성

❖ 시민의 꿈이 미래가 되는 창조도시 대구를 조성

- 인재가 몰려오는 기회의 도시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이 활성화되어 지역의 경쟁력과 시민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함
- 지식기반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자리, 자연환경, 주거, 복지 등 삶의 여건들이 충족되는 풍요로운 도시를 조성함

❖ 글로벌 중추도시의 중심성 강화

- 광역교통 및 글로벌 게이트로서의 중추도시로 광역을 연계한 남부경제권 발전의 중심축을 형성함

8) 권역별 신성장거점 조성

❖ 산업-권역간 연계로 미래융합산업 육성

- 지역의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도소매, 숙박등)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5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함
- 5대 신성장 산업은 권역별 신성장 거점을 통해 육성함
 - 신규 거점 : 금호위터폴리스, K2이전 후적지, 두류공원, 캠프워크 이전 후적지, 율하첨단 산업단지, 수성알파시티, 국가산업단지 등

❖ 권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활용

- 미래 신성장 엔진과 주변 도시의 발전 특성을 감안하여 기능적으로 상호 유기적 연계 및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핵심인프라를 강화함
- 신성장 거점을 권역별 핵심기반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함
 - 주요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클러스터 유도
 - 기존 산업집적지에 앵커시설 건립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산업집적 활성화 도모
- 산업적 기반이 미약한 권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함

9) 권역별 균형성장 추진

❖ 공간·산업경제·삶의 질을 제고하는 균형발전

-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교육 등의 요소간 격차를 줄여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함
- 권역별 개발 이슈 및 산업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권역별 특화기능을 육성함
- 권역별 자연 형성된 산업군(핵심기반산업) 혹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신성장 산업) 중 고성장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을 유기적·입체적 지원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특화 선도산업으로 육성함

[표 3-8-12] 권역별 산업경제 비전

구 분		비 전
제조업 육성축	서북도심권	친환경 도심산업단지 기반 제조업 인큐베이팅 거점
	서 남 권	테스트베드 기반 제조업 르네상스 거점
	서 북 권	글로벌 중소기업 성장 스마트융합제조 거점
서비스 육성축	동남도심권	문화관광 중심 창의 활력 지구
	동 남 권	지식기반 중심의 의료융합 글로벌 허브
	동 북 권	비즈니스와 삶을 재설계하는 라이프디자인 전환지구

3.8.2. 농축산업

가. 현황분석

❖ 농지면적은 감소추세

- 대구의 경지면적은 8,291ha이며,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인한 농지면적은 매년 2.34%의 감소율을 보임
- 가구당 경지면적은 년평균 3.9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논이 5.2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표 3-8-13] 농지 현황

(단위 : ha)

구 분	합 계	논	밭	가구당경지면적		
				소 계	논	밭
2000	11,825	6,702	5,123	91.8	52.0	39.8
2005	11,245	6,319	4,926	69.0	38.8	30.2
2010	9,263	4,667	4,596	54.6	27.5	27.1
2015	8,291	3,865	4,426	50.0	23.3	26.7
증가율	-2.34	-3.60	-0.97	-3.97	-5.21	-2.62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작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감소추세

-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채소류가 재배면적은 6.49%, 생산량은 6.42%로 가장 높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8-14] 작목별 현황

(단위 : ha, M/T)

구 분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과실류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2000	7,149	28,836	3,495	116,419	412	313	1,703	19,341
2005	6,246	26,185	2,757	100,586	387	325	1,531	22,229
2010	4,430	18,579	2,327	76,723	441	406	1,358	14,233
2015	3,643	16,971	1,276	43,004	397	399	1,212	12,111
증가율	-4.39	-3.47	-6.49	-6.42	-0.24	-1.63	-2.24	-3.07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농산유통은 전국평균보다 낮음

- 2015년 소비자 직접 판매를 통하여서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35.5%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농협이나 농업 법인을 통한 판매농가 비율은 12.1%로 전국 평균(32.3%)보다 낮음

[표 3-8-15] 농축산물 판매처별 농가 비중(2015년)

(단위 : 가구, %)

구 분	전 국	대구시
도매시장	53,202(4.9)	1,479(8.9)
산지공판장	53,185(4.9)	1,796(10.8)
농협·농업법인	351,962(32.3)	2,008(12.1)
정부기관	54,850(5.0)	277(1.7)
수집상	96,142(8.8)	748(4.5)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	7,465(0.7)	29(0.2)
소비자 직접 판매	257,193(23.6)	5,878(35.5)
농축산물 가공업체	29,866(2.7)	546(3.3)
농축산물 소매상	14,749(1.4)	223(1.3)
기타(판매 없음 포함)	169,904(15.6)	3,587(21.6)
합 계	1,088,518(100.0)	16,571(100.0)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농가 호당인구는 감소 추세

- 농가호수는 1.7%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가인구수는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임
-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농가 호당인구는 1.3%의 감소 추세를 보임
- 호당경지면적은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표 3-8-16] 농가인구 현황

(단위 : 호, 인, 인/호, ha, ha/호, %)

구 분	농가호수	농가인구	호당인구	경지면적	호당경지면적
2000	12,886	42,948	3.3	11,825	91.8
2005	16,292	50,343	3.1	11,245	69.0
2010	16,974	50,351	3.0	9,263	54.6
2015	16,571	44,542	2.7	8,291	50.0
증가율	1.7	0.2	-1.3	-2.3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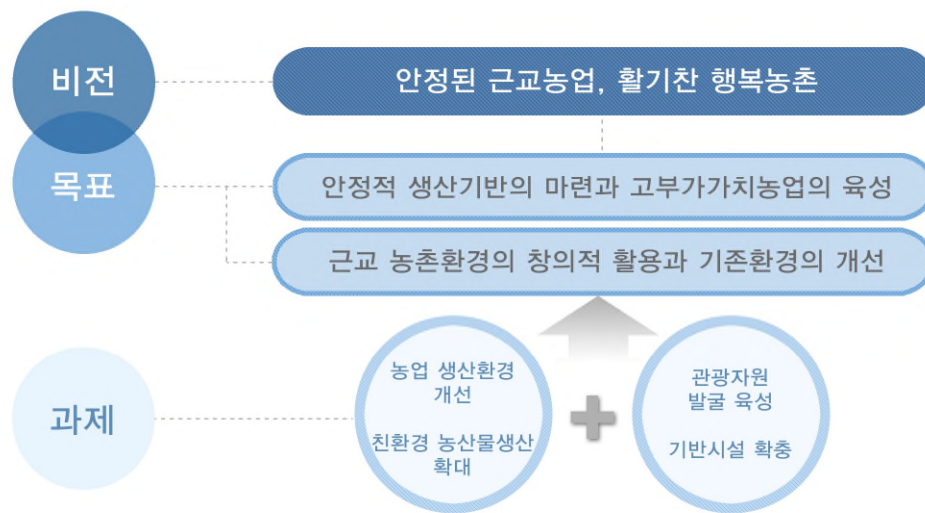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나. 기본방향

1) 비전

❖ 안정된 근교농업, 활기찬 행복농촌

- 대구 및 주변지역에 공급하는 안정적 지역푸드시스템의 구축 및 농업생산활동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여건의 확충이 필요함
- 시민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비전을 「안정된 근교농업, 활기찬 행복농촌」으로 설정함



2) 목표

❖ 안정적 생산기반의 마련과 고부가가치농업의 육성

- 6차산업화를 통한 가치 증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하여 농업경제 활동의 경제적 이익 향상을 도모함
- 로컬 푸드·신유통체계 정립 등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함
 - 과제 1 : 농업 생산환경 개선
 - 과제 2 : 친환경 농산물생산 확대

❖ 근교 농촌환경의 창의적 활용과 기존환경의 개선

- 농촌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기성시가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특성을 감안하여 그린 투어를 확산함
- 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를 정비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유도함
 - 과제 3 : 관광자원 발굴 육성
 - 과제 4 : 기반시설 확충

다. 실천전략

1) 농업 생산환경 개선

❖ 농가 생산환경의 정비

- 농촌인구 고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계화, 현대화 및 기술 집약형 생산환경을 도입함
- 생산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생산환경을 정비함

❖ 생활환경의 정비

- 농촌지역에 부족한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정비를 추진함
- 생활환경 정비를 통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환경을 조성함

2) 친환경 농산물생산 확대

❖ 특산물, 전략식품 중심의 영농 장려

- 정보망을 활용한 예약·계약 재배 및 영농기법을 도입함
- 특화작물 및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체계화를 통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함

❖ 지역특산물 육성과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소득수준의 향상을 위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함
- 농산물 개방화에 대처를 위해 경쟁력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구조로 정비함

3) 관광자원 발굴 육성

❖ 특색 있는 농촌관광자원의 발굴

- 지역별 잠재자원 및 특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 관광자원을 육성함

❖ 체류형 관광산업의 육성

- 친환경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범단지 조성 등으로 체류형 관광자원을 육성함

4) 기반시설 확충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프라 확충

- 지역에 체류하면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함

❖ 근교에 적정규모의 도시농업 육성

-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정규모의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함

3.8.3. 제조업

가. 현황분석

❖ 제조업의 수출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임

- 제조업의 업종별 입지상(LQ)을 분석한 결과 수출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 등으로 분석됨
- 지역산업 중 입지상 계수가 가장 높은 섬유제품 제조업은 연평균 0.29%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요함

[표 3-8-17] 제조업 입지상 분석

(단위 : %)

구 분	입지상		증가율
	2006	2015	
식료품 제조업	0.70	0.69	-0.13
음료 제조업	0.48	0.69	4.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87	3.98	0.2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86	0.99	1.6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21	0.24	1.1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69	0.56	-2.3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1	1.13	0.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97	1.16	2.0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08	0.13	6.0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28	0.28	0.2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17	0.21	2.6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89	1.02	1.6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48	0.40	-1.96
1차 금속 제조업	0.66	0.46	-3.9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75	1.91	0.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37	0.32	-1.5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2	1.40	2.49
전기장비 제조업	0.63	0.70	1.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1	1.15	0.3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6	1.32	0.5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7	0.05	-3.61
가구 제조업	0.53	0.52	-0.24
기타 제품 제조업	0.74	0.76	0.25

자료 : 통계청, 경기·기업경영, 기업경영, 전국사업체 조사, 9차개정, 시도·산업·사업체 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해당년도

❖ 종사자는 미미한 증가추세

- 종사자수는 연평균 2.19%의 증가율을 보이며, 업종별 종사자수는 섬유업종과 컴퓨터, 전기·전자 업종에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식료품, 목재·종이, 석유화학, 기계·금속, 자동차, 가구 업종은 증가추세임

[표 3-8-18] 종사자 변화추이

(단위 : 인)

구 분	2009	2011	2013	2015	증가율	비 고
합 계	95,272	103,417	111,435	108,482	2.19	
식음료	4,185	4,155	4,737	4,495	1.20	
섬 유	20,137	20,620	20,749	19,180	-0.81	
목재·종이	3,790	3,841	4,266	4,495	2.88	
석유화학	8,548	9,496	10,483	10,188	2.97	
기계·금속	29,777	34,379	35,678	36,908	3.64	
컴퓨터, 전기·전자	13,735	12,801	15,458	13,105	-0.78	
자동차관련	14,419	17,309	19,377	19,239	4.92	
가구 및 기타	681	816	687	872	4.21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생산액 변화 추이 등을 감안한 신성장 산업 육성 필요

- 업종별 생산액 변화 추이는 1.9%의 증가추세이고, 출하액은 1.60%, 부가가치는 2.79%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함

❖ 산업단지재생사업과 연계한 관리 필요

- 대구지역에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14개 단지, 일반공업단지 1개 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 단지, 농공단지 2개 단지가 있으며, 조성 중인 국가산업단지 8,549천㎡로 대구지역 전체 산업단지 면적은 48,417천㎡임
- 성서3~5차 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에 “대구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 기업체 대상으로 경영, R&D, 자금, 인력, 마케팅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성장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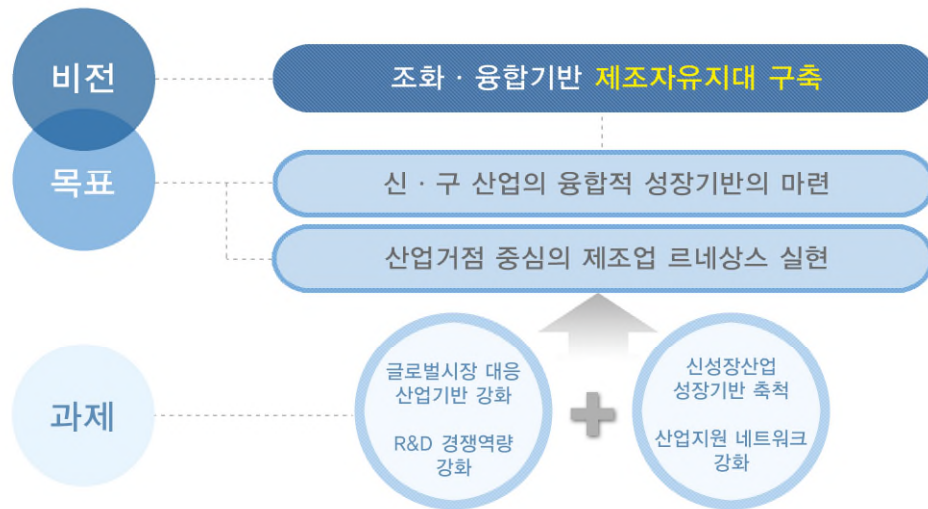
- 의료용 기기 제조업과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부가가치의 모든 기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3대 산업임
- 산업소분류단위에서 부가가치 생산 5위 내에 든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은 사업체수를 제외한 모든 기준에서 5대 성장 산업에 포함됨

나. 기본방향

1) 비전

❖ 조화·융합기반 제조자유지대 구축

- 제조업의 종사자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 및 연계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도입 및 기존 산업과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전은 「조화·융합기반 제조자유지대 구축」으로 설정함



2) 목표

❖ 신·구 산업의 융합적 성장기반의 마련

-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함
 - 과제 1 : 글로벌시장 대응 산업기반 강화
 - 과제 2 : R&D 경쟁역량 강화

❖ 산업거점 중심의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 대구는 낙동강과 금호강을 중심으로 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기반 축적 및 네트워크 강화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실현함
 - 과제 3 : 신성장산업 성장기반 축적
 - 과제 4 : 산업지원 네트워크 강화

다. 실천전략

1) 글로벌시장 대응 산업기반 강화

❖ 융합형 제조기반 사업의 경쟁력 강화

- 기후변화에 따라 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기존 제품 시장의 포화로 인해 그에 적합한 제조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융복합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핵심부품 및 제품의 고급화, 저가격화 및 신기능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제조기술이 융·복합된 생산기반을 마련함
- 기존 수요산업에서 멀티옵션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로 시장 점유율 확대, 자동차 부품산업, IT부품산업 중심에서 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 등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수요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함

❖ 친환경 청정생산체계 구축

- 생산공정의 청정화, 친환경 소재 및 에너지 소비저감을 통하여 제조산업의 친환경화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생산기반 기술지원 기반을 마련함
- 생산위주의 인력구조 및 산업환경 개선, 고급엔지니어 양성·공급을 통하여 세일즈 제조업 생태계를 조성함

2) R&D 경쟁역량 강화

❖ 타겟시스템의 선택 및 집중적 R&D

- 제조업의 성장을 위한 R&D 역량 강화는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계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필요함
- 지자체 산학연관의 관련정책 기획 참여 및 관련정책 홍보/전파, 관련정책 활용방안 도출 등을 통하여 중앙 및 지자체 관련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 지역에 특화된 강점요소에 집중된 기술 및 상품 로드맵을 구축하여 타겟 시스템 R&D의 선택 및 집중에 활용함
- 사전기획형 기술개발 강화로 선택과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함

❖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산·학·연 소통채널의 확보

- 지역 특화센터, 대학 및 관련 기업 연계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를 연계함
- 기술교류에 의한 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산업화를 촉진함
- 국내·외 첨단기술동향 및 업계정보,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킹을 활성화함

3) 신성장산업 성장기반 축적

❖ 시장창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

-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로 인해 기존 시장의 수요량은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가격을 이용한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비즈니스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됨
- 신규창업유도 및 Start Up 기업육성 및 기업지원활동(지재권, 상품기획 제품화, 마케팅지원 등)을 통한 기업 도약을 지원함
- 고용창출 및 산업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서비스 창업자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함

❖ 가치제안형·시장지향형 제품개발지원을 강화

- 지역 산업의 강점을 기초로 기존 시장의 제품과 차별화 할 수 있고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기술개발성과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 등이 타 기업들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사업기획 및 시작단계에서부터 유망품목별 Business Model을 설정 후 세부적으로 대응함
- 지역별 유망품목 중심의 블루오션 영역을 형성하여 유망품목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고도화함

4) 산업지원 네트워크 강화

❖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 유관분야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 가치를 창출하는 온·오프 및 쌍방향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됨
-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술개발, 상품화, 보급화 전단계의 협력체제 구축 및 타 권역 연계형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중앙 및 권역 간 네트워킹을 강화함
- 제품 다양화/규격화 지원 체계구축 및 유망제품 별 밸류체인 구축, 유망기업 유치 강화/요소기술, 제품 및 관련정책 검색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함

❖ 산학연계체계의 강화

- 중앙 및 광역 자치단체, 연구기관과 산업체 등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산업 성장에 필요한 R&D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함
- 산업 활성화 및 산업간 기술적 연계를 위한 현장인력 중심의 기술맞춤형 교육으로 산업화 기술 인력을 확보함
- 지역 특화센터 및 대학 연계 산업체 재직자 전문가 양성 및 신규 인력 공급을 위하여 전문분야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통하여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함

3.8.4. 서비스업

가. 현황분석

❖ 서비스업의 수출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등 8개 업종임

- 서비스 업종에 대한 입지상(LQ) 분석결과 수출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임
- 산업여건의 변화로 수출산업에서 수입산업으로 변화된 업종은 운수업으로 연평균 0.52%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입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0.61%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8-19] 서비스업 입지상 분석

(단위 : %)

구 분	입지상		증가율
	2006년	2015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74	1.10	4.4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74	0.75	0.14
건설업	0.92	0.94	0.23
도매 및 소매업	1.12	1.09	-0.24
운수업	1.02	0.98	-0.52
숙박 및 음식점업	1.02	1.00	-0.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67	0.51	-2.98
금융 및 보험업	1.04	1.10	0.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0.94	1.00	0.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73	0.57	-2.7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86	0.92	0.7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95	0.98	0.30
교육 서비스업	1.08	1.14	0.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4	1.14	0.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97	0.92	-0.5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7	1.12	0.49

자료 : 통계청, 경기·기업경영, 기업경영, 전국사업체 조사, 9차개정, 시도·산업·사업체 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해당년도

❖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는 증가추세

-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연평균 1.88%의 증가 추세이며, 특히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5.69%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임

[표 3-8-20] 지식기반서비스업¹⁾ 사업체 현황

(단위 : 업체, 인)

구 분	2010		2015		증가율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합 계	16,896	135,572	18,131	148,795	1.42	1.8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77	11,652	1,238	12,238	7.14	0.99
금융 및 보험업	2,119	35,188	2,194	35,152	0.70	-0.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01	18,453	4,550	24,333	5.99	5.69
교육서비스업	10,499	70,279	10,149	77,072	-0.68	1.86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주1)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범위는 산업발전법 지식서비스산업 범위임

❖ 유통업체는 증가추세

- 유통서비스업의 개소는 2.75%, 규모는 4.3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유통서비스업의 시설수 변화는 대규모 점포가 17.46%로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전문점은 8.12%의 감소추세를 보임
- 면적의 변화는 대규모 점포가 36.82%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점은 10.99%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8-21] 유통업체 현황

(단위 : 개소, ㎡, %)

구 분	2005		2010		2015		증가율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154	800,775.10	184	949,454.30	202	1,231,008.60	2.75	4.39
대형마트	16	164,575.10	19	218,619.30	19	212,714.20	1.73	2.60
전문점	7	47,541.80	3	14,168.60	3	14,839.70	-8.12	-10.99
백화점	6	119,239.90	6	117,706.30	8	189,063.40	2.92	4.72
쇼핑센터	2	26,994.00	2	31,695.50	5	109,068.90	9.60	14.99
시 장	120	433,896.70	150	542,365.20	152	509,251.20	2.39	1.61
기타대규모 점포	3	8,527.60	4	24,899.60	15	196,071.20	17.46	36.82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MICE 산업

-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 & Exhibition)는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나 포상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임
-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25만여 건의 MICE가 개최되었으나 내국인 참가비율이 96.1%에 달하여 현재까지는 외국인 참가비율이 낮은 실정임
- 대구는 전국 주요도시 중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 많은 수의 MICE 개최지이며, 향후 참가인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표 3-8-22] 전국 MICE 개최 건수 및 참가자 현황

(단위 : 건, 명, %)

구 분	개최 건수		전체 참가자		내국인 참가자		외국인 참가자		국제회의	
	건 수	비 율	참가자수	비 율	참가자수	비 율	참가자수	비 율	개최수	비 율
전 국	251,099	100.0	40,062,524	100.0	38,494,671	100.0	1,567,853	100.0	891	100.0
주요도시 합 계	155,056	61.8	25,431,499	63.5	24,692,481	64.1	739,018	47.1	837	93.9
서 울	85,433	34.0	12,743,095	31.8	12,363,620	32.1	379,475	24.2	494	55.4
부 산	23,628	9.4	5,920,602	14.8	5,723,277	14.9	197,325	12.6	150	16.8
대 구	14,077	5.6	2,339,392	5.8	2,303,113	6.0	36,279	2.3	14	1.6
인 천	5,025	2.0	635,485	1.6	612,203	1.6	23,282	1.5	19	2.1
광 주	5,632	2.2	2,141,178	5.3	2,108,618	5.5	32,560	2.1	20	2.2
대 전	12,453	5.0	811,880	2.0	780,667	2.0	31,213	2.0	28	3.1
울 산	1,606	0.6	91,622	0.2	89,707	0.2	1,915	0.1	0	0.0
제 주	7,202	2.9	748,245	1.9	711,276	1.8	36,969	2.4	112	12.6

자료 : 2015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한국관광공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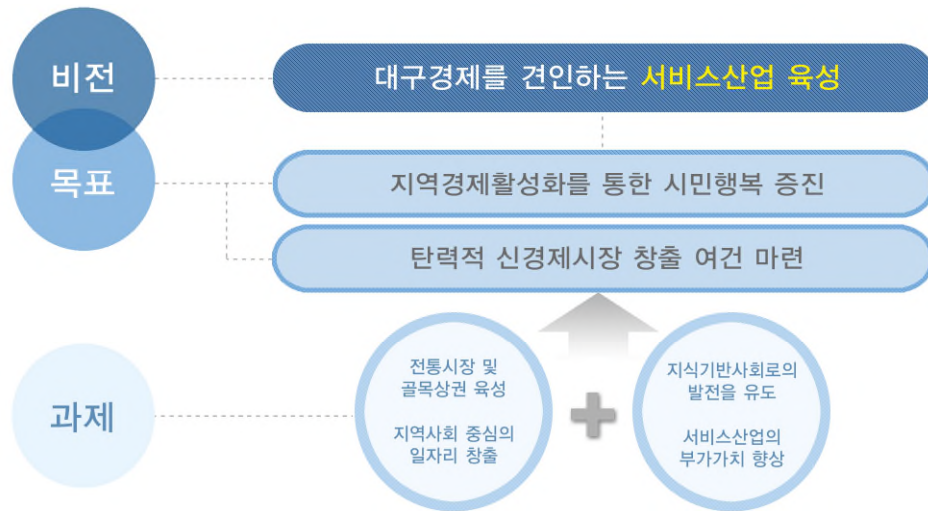


나. 기본방향

1) 비전

❖ 대구경제를 견인하는 서비스산업 육성

- 도시화의 진전은 점차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도 전통적인 판매 중심에서 타 분야와 융·복합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도입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의 전통적인 서비스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 담당을 위하여 비전을 「대구경제를 견인하는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설정함



2) 목표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행복 증진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시민행복을 증진시킴
 - 과제 1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 과제 2 : 지역사회 중심의 일자리 창출

❖ 탄력적인 신경제시장 창출 여건을 마련

- 인터넷의 확대로 지식기반형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의 부가가치 향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경제시장 창출의 여건을 마련함
 - 과제 3 : 지식기반사회로의 발전을 유도
 - 과제 4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다. 실천전략

1)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 시설의 현대화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형성이 보행 및 대중교통 중심의 시대에 형성된 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어 자동차가 통행의 중심수단으로 변화된 여건에 부적합한 실정임
-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의 확보, 공간시설의 정비를 추진 중에 있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시설 중심의 현대화의 추진은 시장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각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브랜드를 발굴 및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

❖ 혁신교육 기회의 확대

- 전통시장 등은 대규모 자본과 현대화된 관리기법을 적용받는 대형 판매시설과 경쟁하는 실정에서 각 업체가 처한 여건에 적합한 운영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임
-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판매 및 경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생활권 중심의 소모임을 구성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2) 지역사회 중심의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의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임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기업임을 감안 도심,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모색함
-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향상을 제고함

❖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 고용 없는 성장현상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됨
-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투자 중심의 창업환경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의 확대를 모색함

3) 지식기반사회로의 발전을 유도

❖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처

-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이 정보교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이버 공간 속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추세임
- 구매 편리성과 높은 유통효율성으로 인해 대형마트에 이은 소매시장 2위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있음
- 향후, 일반 상거래의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로 대체될 전망임을 감안하여 새로운 서비스 시장의 개척을 모색함

❖ 복합개발 활성화를 유도

-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 및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들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복합상업시설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상업시설은 단순히 쇼핑을 위한 공간에서 비즈니스, 놀이, 식사, 공연, 교육, 산책 등을 동시에 즐기는 복합문화·업무공간으로 전환을 유도함

4)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 융·복합산업의 활성화

- 서비스업의 공급 포화로 인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 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기존 경쟁에서 탈피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한 실정임
- 지역 서비스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융·복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추진함
- 융·복합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의 산업 경제활동에 대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기업체에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분야의 발굴을 확대함

❖ 사업서비스업의 육성

- 사업서비스업은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달성하게 하는 산업임
- 대구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매년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어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함

3.8.5. 관광산업

가. 현황분석

❖ 다양한 관광자원이 분포

- 대구의 관광자원으로서는 역사문화, 자연생태, 휴양레포츠, 도심거리, 공연예술 문화 자원이 시가지내 넓게 분포하고 있음

[표 3-8-23] 관광자원 특성

자 원	자원별 가치 활용	세부 자원별 검토사항
역사문화 자 원	3문화·역사자원으로 가치 재조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로동 고분군 자원 활용 검토 필요 • 달성공원의 복원과 관광자원화 검토필요
	근대문화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골목 및 역사건축물, 북성로, 경상감영공원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추진 필요
자연생태	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성습지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필요
휴양레저 스포츠자원	야간,휴양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성못, 앞산 일대, 금호강, 동춘유원지를 포함한 도심 속 휴양자원 개발 추진 필요
도심거리 시장자원	야시장 및 도심거리 축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문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의 야시장 추진 및 예술문화와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 필요
공연예술	예술문화 공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역을 활용한 예술문화인의 활동거점 확대

자료 : 대구광역시, 대구관광 종합발전계획(2016~2021), 2016

❖ 관광객은 완만한 증가추세

- 2014년 이후 관광객 수는 2012년 집계방식 변경 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임

[표 3-8-24] 관광객 변화

구 분	집계 관광지수	방문객수				비 고
		유료관광지			무료관광지	
		소 계	내국인	외국인		
2006	17	12,437,489	12,399,964	37,525	63,358,241	
2010	18	12,329,328	12,231,673	97,655	21,253,483	
2014	16	5,159,779	5,082,279	77,500	888,021	
2015	19	4,117,955	4,051,680	66,275	2,449,659	
증가율	1.24	-11.55	-11.68	6.52	-30.33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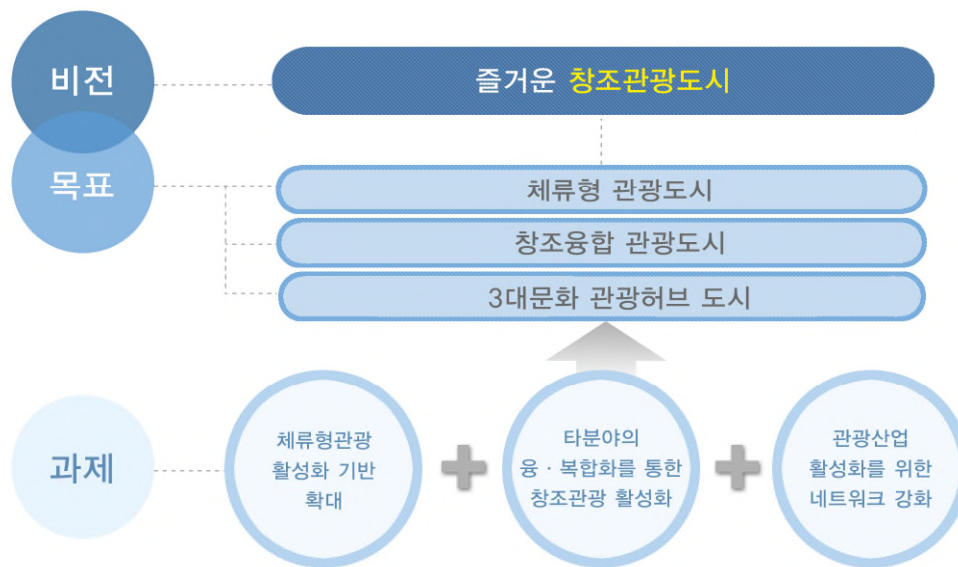
※ 2012.2.13. 통계집계방식(객관적인 방식의 집계가 가능한지점만 집계) 변경으로 방문객의 차이가 있음

나. 기본방향

1) 비전

❖ 즐거운 창조관광도시

- 상위 및 관련계획, 관광개발 환경 등을 감안하여 문화, 산업(의료, MICE), IT 및 SW게임 등 산업과 관광의 융합이 활성화되어 즐거움을 창출하기 위하여 비전을 「즐거운 창조 관광도시」로 설정함



2) 목표

❖ 체류형 관광도시

- 지역의 관광자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부 방문객이 머무르고 싶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건설함
- 과제 1 : 체류형관광 활성화 기반 확대

❖ 창조융합 관광도시

- 문화와 산업(의료, MICE, IT, SW게임 등)과 관광의 융·복합을 통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창조융합 관광도시를 건설함
- 과제 2 : 타분야의 융·복합화를 통한 창조관광 활성화

❖ 3대문화 관광허브 도시

-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3대문화권 관광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관광허브 도시로 육성함
- 과제 3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다. 실천전략

1) 체류형관광 활성화 기반 확대

❖ 관광테마 및 거점의 육성

- 현대의 관광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정적인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여 즐기는 동적인 관광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체류시간이 증가될 수 있도록 테마 중심의 거점을 확대하고 육성함

❖ 숙박시설 수용환경의 개선

- 숙박시설은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광서비스임
- 숙박시설이 다양한 관광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기능도입을 확대함

2) 타분야의 융·복합화를 통한 창조관광 활성화

❖ 관광산업의 융·복합 촉진

- 융·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관광산업의 혁신 및 신성장 산업 발굴로 부가가치 확대함
-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

❖ 일상생활의 관광자원화

- 관광 트렌드가 명승지의 관람형에서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기성시가지 내에 일상생활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3)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3대 문화권관광의 활성화

- 대구·경북이 동일 문화권으로 형성된 특징을 활용하여 3대 문화권을 설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각 지역의 관광자원 간에 연계를 위한 스토리텔링 강화 등을 통하여 3대 문화권의 관광 활성화를 유도함

❖ 관광마케팅 협력을 강화

-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재정 부담 증가로 양질의 콘텐츠 및 관광상품의 공급에 한계가 있음
-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광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기획 등 마케팅 협력을 강화함

3.9. 사회·문화

3.9.1. 의료보건

가. 현황분석

❖ 의료기관은 완만한 증가추세

- 지역내 의료기관은 총 3,500개소이며, 의료기관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의원으로 47.2%인 1,623개소가 분포하고 있음
-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특수병원, 보건소는 시설의 변화가 없으며, 2004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요양병원이 21.75%의 증가 추세임

[표 3-9-1]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종합 병원	병 원	의 원	특수 병원	요양 병원	치 과	한방 병원	보건소
2000	2,360	12	34	1,111	2	-	640	553	8
2005	2,805	12	64	1,374	2	11	670	664	8
2010	3,179	12	99	1,511	2	39	754	754	8
2015	3,500	12	111	1,623	2	61	841	842	8
증가율	2.66	-	8.21	2.56	-	18.68	1.84	2.84	-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병상당 인구 및 의사당 인구는 감소추세

- 병의원에 기 설치된 병상수는 35,509병상으로 1병상 당 인구수는 71인/병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의사는 7,778인으로 의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323인으로 감소하여 의사 확보가 필요함

[표 3-9-2] 의료기관 주요지표

(단위 : 인, 병상, 인/병상, 인/인)

구 분	인 구	병상수	병상당인구	의 사 ¹⁾	의사당 인구
2000	2,538,212	13,779	184	4,826	526
2005	2,525,836	19,161	132	5,549	455
2010	2,532,077	28,757	88	6,900	367
2015	2,513,970	35,509	71	7,778	323
증가율		6.51	-6.15	3.23	-3.20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주1) 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

❖ 구급차는 감소, 구조사는 증가추세임

- 도시의 복잡화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응급의료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구급차는 2.25%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조사는 7.36%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구조차 1대당 인구는 8,058명이고, 구조사 1인당 인구는 6,795인으로 타도시 사례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구급차의 지속적인 감소는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됨

[표 3-9-3] 응급의료 현황

(단위 : 대, 인, 인/대, 인/인, %)

구 분	구급차			구조사			구급차대당 인 구	구조사1인 당 인 구
	합 계	특 수	일 반	합 계	1 급	2 급		
2012	334	88	246	299	122	177	7,568	8,453
2013	339	88	251	285	121	164	7,448	8,859
2014	331	86	245	337	128	209	7,609	7,473
2015	312	81	231	370	170	200	8,058	6,795
증가율	-2.25	-2.73	-2.08	7.36	11.69	4.16	2.11	-7.02

자료 : 통계청, 보건·복지, 응급의료현황통계, 응급의료 자원현황, 구급차수 및 배치된 응급구조사 수, 해당년도

❖ 보건소의 전문의료인력의 확충 필요

- 8개소의 보건소의 인력은 421인이며 이중, 의사 등 의료인은 260인으로 61.8%를 차지하고 있음
- 의사 1인당 주민 수는 73,940인으로 과다함

[표 3-9-4] 의료인력 현황

(단위 : 인, 인/인, %)

구 분	합 계	행정직	의 사	약 사	간호사	의료기사등	의사인당 주민
2000	363	163	31	8	100	61	81,878
2005	378	171	34	4	101	68	74,289
2010	360	136	35	3	107	79	72,345
2015	421	161	34	1	109	116	73,940
증가율	-0.06	0.99	-0.08	-12.94	0.58	4.38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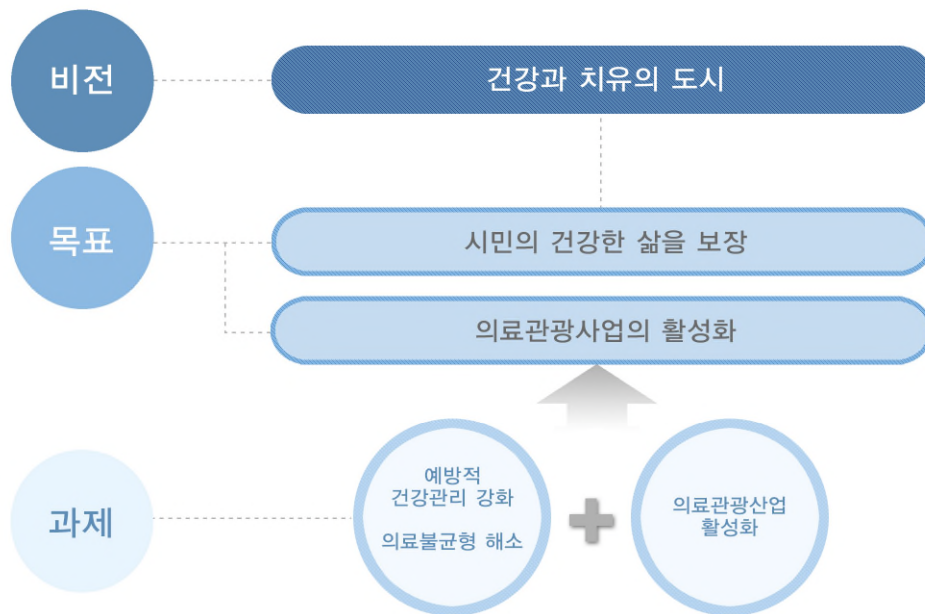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보건·복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 보건소 인력 현황, 해당년도

나. 기본방향

1) 비전

❖ 건강과 치유의 도시

-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건강에 대한 요구가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추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비전을 「건강과 치유의 도시」로 설정함



2) 목표

❖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는 시대의 여건에 따라 변화하며 연령, 계층 등 수요자의 환경에 따라 차별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치료체계를 정비함
 - 과제 1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과제 2 : 의료불균형 해소

❖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

- 대구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에 의료관광산업이 포함되어 있음
-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함
 - 과제 3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다. 실천전략

1)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보건·의료 정책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예방적 건강관리가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및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민·관 협력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치료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질병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예방적 건강관리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인력 및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제약이 많음
- 공공병원 및 보건소와 민간 병원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대처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함

❖ 의료 접근성의 향상

- 선진국에 비해 전체의료 기관 중 공공의료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시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에 제약이 큰 실정임
-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정신질환자 및 성인병관리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 의료기관의 유형, 크기, 기능별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에게 24시간 건강 상담을 받는 의료정보 접근성을 제고함

❖ 의료 서비스의 질향상

- 병상당 인구수는 2010년 이후 변화추세 -4.20%〈표 3-9-2〉를 적용하여 목표연도에 36인/병상으로 설정함
- 의사 1인당 인구수는 감소 추세 -3.19%〈표 3-9-2〉를 적용한 결과 198인으로 예상됨으로 200인/인으로 설정함
- 구급차 1대당 인구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응급사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2012년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 보건소의 의사 1인당 시민수는 감소 추세 -0.68%〈표 3-9-4〉를 적용하여 목표연도인 2030년에는 67,000인으로 설정함

[표 3-9-5] 의료서비스 지표

(단위 : 인/병상, 인/인, 인/대)

구 분	2015	2020	2025	2030
병상당 인구수	71	56	45	36
의사당 인구수	323	270	230	200
구급차당 인구수	8,058	7,900	7,700	7,500
보건소 의사당 인구수	73,940	71,500	69,000	67,000

2) 의료불균형 해소

❖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 공공병원이 매우 부족한 현 실정에서 모든 권역에 동일한 수준의 공공의료를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기 운영 중인 의료전달 체계를 강화하여 유기적 협력과 역할 분담으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함
 - 보건소는 대생활권별 1개소 확보를 추진함(기확보 보건소 8개소, 대생활권 10개소, 2개소의 보건소 추가확보 필요)

❖ 건강형평사업 도입

-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형평사업은 표준화 사망비와 지역박탈지수를 적용하여 지표가 낮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임
- 지역간 건강 불평등 및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형평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함

3)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 의료관광은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며 특히, 미용 등 간단한 수술 등으로 찾는 환자는 관광과 연계 가능하므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수준에 대한 신뢰성 강화, 다양한 관광자원 확보 및 편익시설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를 강화함

❖ 권역별 특화된 의료관광산업 육성

- 대구시는 신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의료수련 및 연구 기능 집적, 불로·봉무동을 중심으로 하는 뷰티 산업 활성화, 칠곡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병원 집적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각 권역별 특화된 의료 관광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함

3.9.2. 사회복지

가. 현황분석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015년 현재 대구광역시 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67,356가구, 113,152인이며, 매년 감소하다가 급격히 증가함

[표 3-9-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 인, %)

구 분	총 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시 설	인 원
2010	57,332	108,874	56,543	101,599	789	1,188	139	6,087
2011	56,258	104,602	55,434	97,453	824	1,343	192	5,806
2012	55,864	99,473	54,784	91,230	1,080	1,978	241	6,265
2013	54,487	96,803	52,578	86,793	1,909	3,973	388	6,037
2014	54,306	93,539	51,196	81,961	3,110	5,872	390	5,706
2015	67,356	113,152	64,972	103,028	2,384	4,236	392	5,888
증가율	3.27	0.77	2.81	0.27	24.95	28.04	23.04	-0.66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생활보호가구

- 2015년 현재 대구광역시 내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은 총 14,624가구, 35,091인이며, 매년 증가하다가 감소함

[표 3-9-7]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현황

(단위 : 가구, 인, %)

구 분	합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국가보훈법 수급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2010	12,144	31,328	4,773	11,961	7,369	19,361	2	6
2011	12,437	30,867	5,455	13,245	6,981	17,619	1	3
2012	14,581	38,419	6,283	16,073	8,298	22,346	-	-
2013	14,808	39,062	6,855	17,646	7,953	21,416	-	-
2014	14,953	36,907	6,937	17,126	8,016	19,781	-	-
2015	14,624	35,091	6,194	14,607	8,430	20,484	-	-
증가율	3.78	2.29	5.35	4.07	2.72	1.13	-	-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사회복지시설

- 2015년 현재 대구광역시 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10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4,247인이 있음
- 복지시설은 10.6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숙인시설이 47.57%로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복지시설 수용인원은 0.46%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수용인원이 3.73%의 가장 높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9-8]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 인, %)

구 분	합 계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숙인 시설	
	시 설	인 원	시 설	인 원	시 설	인 원	시 설	인 원	시 설	인 원	시 설	인 원
2010	62	4,348	22	924	5	296	17	1,467	17	526	1	1,135
2011	65	4,386	22	896	5	288	18	1,518	19	578	1	1,106
2012	95	4,513	22	858	5	277	48	1,700	19	610	1	1,068
2013	99	4,464	22	788	5	257	46	1,714	19	554	7	1,151
2014	103	4,371	22	775	6	259	49	1,721	19	511	7	1,105
2015	103	4,247	23	764	7	292	50	1,701	16	464	7	1,026
증가율	10.68	-0.46	0.89	-3.73	6.96	-0.27	24.08	3.00	-1.20	-2.47	47.57	-1.99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다문화가족

- 대구광역시 내 다문화 가족은 7,332가구로 달서구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중구가 가장 적음

[표 3-9-9]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 : 인)

구 분	합 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소 계	남	여	소 계	남	여	소 계	남	여
합 계	7,332	667	6,665	4,767	589	4,178	2,565	78	2,487
중 구	228	23	205	165	20	145	63	3	60
동 구	1,008	78	930	661	73	588	347	5	342
서 구	978	60	918	632	50	582	346	10	336
남 구	443	38	405	310	36	274	133	2	131
북 구	1,239	82	1,157	764	72	692	475	10	465
수성구	644	112	532	449	99	350	195	13	182
달서구	1,986	210	1,776	1,290	182	1,108	696	28	668
달성군	806	64	742	496	57	439	310	7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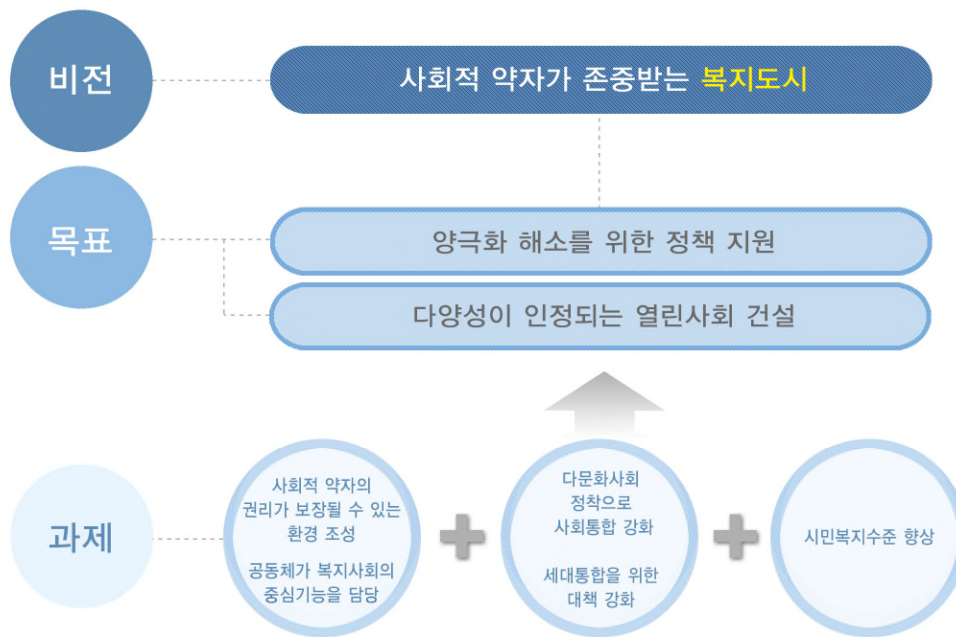
자료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다문화정책지원, 대구광역시, 2015.1.1.

나. 기본방향

1) 비전

❖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복지도시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이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전은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복지도시」로 설정함



3

부
문
별
계
획

2) 목표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관리자 역할을 강화함
 - 과제 1 :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 과제 2 : 공동체가 복지사회의 중심기능을 담당

❖ 다양성이 인정되는 열린사회 건설

- 세대, 문화 간의 다양성을 상호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사회 통합 및 세대 통합을 강화함
 - 과제 3 : 다문화사회 정착으로 사회통합 강화
 - 과제 4 : 세대통합을 위한 대책 강화
 - 과제 5 : 시민복지수준 향상

다. 실천전략

1)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교육 강화, 사회적 소수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보급 확대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사회적 약자에게 적합한 업종을 발굴하여 사회적 기업 등으로 육성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2) 공동체가 복지사회의 중심기능을 담당

❖ 지역공동체 중심의 특화된 복지공동체를 구현

-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복지공동체를 구현을 통하여 지역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조직·활성화하는 지원을 강화함

❖ 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강화

- 기 운영 중인 행정체계와 기 설치된 복지자원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복지수요 조사는 지역주민과 접촉이 많은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복지수요를 발굴
 - 복지자원에 대한 목록의 공급을 통하여 수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유도함
 -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함

3) 다문화사회 정착으로 사회통합 강화

❖ 문화의 다양성 존중여건의 확대

- 국제결혼, 해외근로 등을 통하여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외국인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함
- 기 운영 중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민간 지원 단체 중심으로 사회 인식개선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야 함

❖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 지원

- 다문화 가정이 지역 주민과 공생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함
- 다문화 가정의 조기적응을 위한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함

4) 세대통합을 위한 대책 강화

❖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노인과 아동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확대함

❖ 세대통합을 위한 공간의 확충

- 다양한 연령층과 복지수요를 반영한 복합시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계층간 세대간 통합을 유도함
- 복지시설을 복합화하고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역내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함

5) 시민복지수준 향상

❖ 대구시민복지기준 적용

- 「대구시민복지기준(2016년 7월 29일)」에서 제시한 2020년 계획지표를 추세 연장하여 2030년 대구시 복지환경지표를 설정함

[표 3-9-10] 복지환경 지표

구 분		단 위	대구시민복지기준		2025	2030
			2015	2020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중	%	4.6	3.5	2.5	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4.6	3.5	2.4	1.3
근로자 (청년)	고 용 률	%	59.2	69.4	73.5	78.0
	청년(15~29세) 고용률	%	39.6	44.0	49.0	54.0
아동· 청소년	학업중단 학생 비율	%	0.6	0.5	0.4	0.3
	아동학대 판정건수	건	335	247	159	71
여 성	여성고용률	%	49.1	50.0	51.0	52.2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	3.0	7.0	11.0	15.0
장 애 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77.8	80.0	85.0	90.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	17.9	22.0	26.0	30.0
노 인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6.0	8.7	11.5	14.2
	65세 이상 노인 건강수명	세	76.1	82.0	88.0	95.0
행복나눔의 집		개소/호수	1/8	3/30	4/45	5/60
평생학습참여율		%	32.2	40.0	50.0	60.0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마을수	19	80	100	139

3.9.3. 교육

가. 현황분석

❖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는 4.86%, 중학교 6.24%, 고등학교는 3.12%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됨
-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8.6인으로 OECD 평균인 23.3인 보다 높으며, 다른 지표는 유사한 수준임

[표 3-9-11] 교사1인당 학생 현황

(단위 : 인/인, 인/학급, 학급/학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OECD평균
초 등 학 교	교사당 학생	17.8	16.6	15.1	14.7	14.6	-4.86	15.2
	학급당 학생	26.2	24.6	22.8	22.3	22.3	-4.02	21.1
	학교당 학급	27.8	27.5	27.3	26.9	26.3	-1.37	-
중학교	교사당 학생	18.7	17.7	16.8	15.9	14.5	-6.24	13.0
	학급당 학생	35.2	34.1	32.7	31.2	28.6	-5.06	23.3
	학교당 학급	23.8	23.4	23.5	23.1	22.8	-1.03	-
고 등 학 교	교사당 학생	15.6	15.2	14.9	14.3	13.7	-3.12	13.1
	학급당 학생	34.7	34.2	33.6	32.1	31.1	-2.75	-
	학교당 학급	33.8	33.7	33.5	33.5	33.3	-0.40	-
대 학 교		13	13	12	13	13	-	-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해당년도), OECD 교육지표(교육통계서비스, 2015년 기준)

❖ 학원

- 2015년 현재 대구광역시 내 학원은 총 3,639개가 있으며, 학원수는 감소추세임

[표 3-9-12] 학원 현황

(단위 : 개, 인, %)

구 분	사설학원			
	학 원	수강자	강 사	강의실
2011	3,746	206,466	10,944	16,657
2012	3,542	205,232	11,516	16,138
2013	3,639	190,809	10,692	17,602
2014	3,651	205,864	13,646	22,775
2015	3,639	215,654	13,683	21,144
증가율	-0.71	1.11	6.26	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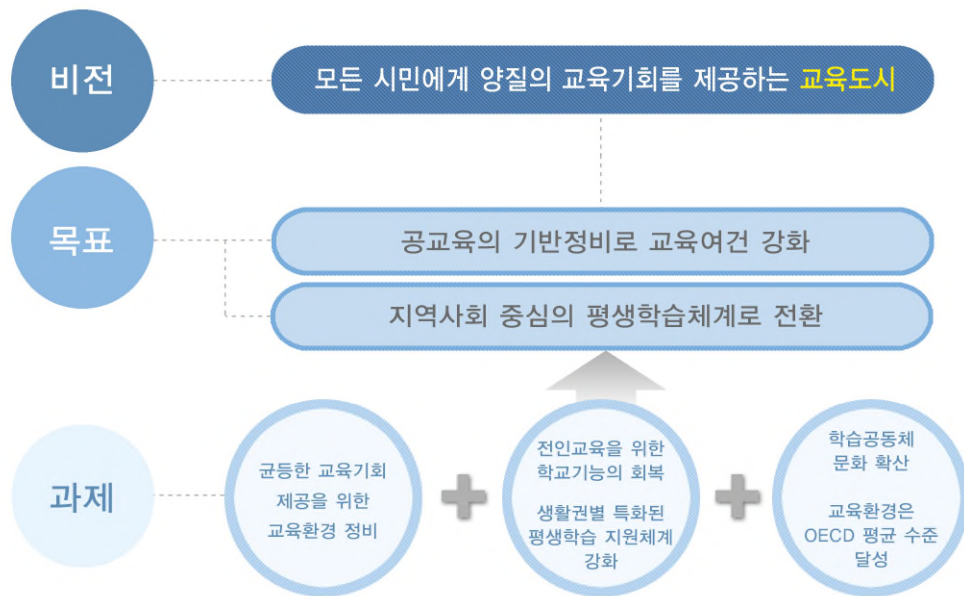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나. 기본방향

1) 비전

❖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도시

-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도시」로 설정함



3

부
문
별
계
획

2) 목표

❖ 공교육의 기반정비로 교육여건 강화

- 공교육 기반 정비를 위하여 기성시가지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부족한 교육기반시설을 보완·확충하고, 전인교육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함
- 과제 1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환경 정비
- 과제 2 :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기능의 회복

❖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학습체계로 전환

- 현대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평생학습체계 운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함
- 과제 3 : 생활권별 특화된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 과제 4 : 학습공동체 문화 확산
- 과제 5 : 교육환경은 OECD 평균 수준 달성

다. 실천전략

1)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환경 정비

❖ 기반시설 여건이 불리한 학교기반시설 확충

- 적정 수준의 교육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점진적인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함
-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교육환경의 편차를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정비를 지원함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시민 누구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간·세대간 불균형이 없는 교육 여건을 마련함

2)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기능의 회복

❖ 생활권을 중심으로 체험활동공간 확충

-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인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육성이 시대 과제임
- 학교의 정규수업 외 각종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열린 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을 확충함

❖ 학교주변 환경 정비

-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환경 기반을 구축함

3) 생활권별 특화된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체계 강화

- 사회여건 변화에의 적극적 대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 교육을 강화함
- 은퇴세대를 위한 여가중심의 평생교육에서 전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취업, 창업 등을 위한 다양화된 지원체계로 전환 및 생활권별로 육성함

❖ 통합형 학습 체계 형성

- 연령별, 계층별 특성과 사회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형 학습체계를 강화함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형 학습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계층간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을 도모함

4) 학습공동체 문화 확산

❖ 학습공동체 조직의 형성

- 학습 공동체는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조직체이므로 원활한 유지·운영하기 위해 교육기관, 시민단체,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함
- 학습 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함

❖ 교육재능 나눔을 확산

-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인재풀을 생활권별로 구성하여 지역사회 학습 공동체의 다양화를 유도함
- 교육재능 나눔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생활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함

5) 교육환경은 OECD 평균 수준 달성

❖ 교사당 학생수

- 초등학교 교사당 학생수는 2015년도 기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2015년 기준을 유지함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당 학생수는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설정함

❖ 학급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을 목표로 설정함
- OECD 지표가 없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연평균 2.75%〈표 3-9-11〉 감소 추세를 적용하여 2030년 20.4인/학급으로 설정함

[표 3-9-13] 교육환경 지표설정

(단위 : 인/인, 인/학급)

구 분		2015		2020	2025	2030
		OECD 평균	대 구 시			
교사당 학생수	초등학교	15.2	14.6	14.6	14.6	14.6
	중 학 교	13.0	14.5	14.0	13.5	13.0
	고등학교	13.1	13.7	13.5	13.3	13.1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22.3	22.0	21.5	21.1
	중 학 교	23.3	28.6	26.0	24.0	23.3
	고등학교	-	31.1	27.0	23.5	20.4

3.9.4. 문화·체육

가. 현황분석

❖ 공공도서관 현황

- 2015년 현재 대구광역시 내 공공도서관은 총 33개가 있으며, 좌석 13,922개, 3,681,224권이 비치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시설이 증가되고 있음

[표 3-9-14]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 개, 권, 인, 천원, %)

구 분	도서관	좌 석	서 적	연간방문자	직 원	예 산
2010	26	11,740	2,762,505	9,280,974	353	23,961,963
2011	27	11,894	2,925,940	9,747,751	397	24,175,617
2012	28	12,318	3,056,349	11,226,456	374	22,999,908
2013	28	13,337	3,274,205	11,714,044	458	25,050,915
2014	30	13,402	3,452,207	11,537,891	412	24,088,075
2015	33	13,922	3,681,224	12,232,440	368	28,590,154
증가율	4.88	3.46	5.91	5.67	0.83	3.59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문화시설 현황

- 2015년 현재 대구광역시 내 문화시설은 총 213개소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설이 증가되고 있음

[표 3-9-15] 문화시설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합 계	187	169	190	202	210	213	2.63
공연시설	공공공연장	18	18	19	23	23	5.02
	민간공연장	17	17	26	26	29	14.1
	영화관	19	22	24	24	26	5.64
전시실	등록미술관	5	2	3	3	4	-4.36
	화랑	72	52	59	67	67	-1.42
지역문화 복지시설	시민회관	1	1	1	1	1	-
	문화예술회관	7	9	9	9	9	5.15
	종합사회복지관	25	25	25	25	26	0.78
	청소년수련시설	15	15	16	16	17	2.53
기타시설	문화원	8	8	8	8	8	-

자료 : 대구시 통계연보, 해당년도

❖ 구·군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 공공체육시설은 755개소가 입지
- 공공체육시설 중 간이 운동장이 632개소로 분포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동·서·남구가 상대적으로 분포 비율이 낮음

[표 3-9-16]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

구 분	합 계	육 상 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싸이클 경기장	테니스장	씨름장	간 이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기 타
합 계	755	6	23	1	9	1	22	2	632	19	15	25
중 구	30	-	-	-	-	-	1	-	29	-	-	-
동 구	33	1	-	1	1	-	1	-	25	2	2	-
서 구	23	-	2	-	-	-	2	-	16	1	1	1
남 구	48	-	-	-	-	-	-	-	45	-	-	3
북 구	94	1	5	-	2	-	4	1	71	6	1	3
수성구	175	3	2	-	-	1	2	-	162	1	-	4
달서구	228	-	2	-	1	-	3	-	205	5	8	4
달성군	124	1	12	-	5	-	9	1	79	4	3	10

자료 : 2016년 대구통계연보(2015년 기준)

- 체육시설 중 대구시 등 공공부문 직영으로 운영시설은 시민운동장을 포함한 11개소임
- 직영시설의 부지면적은 764천㎡이고, 최대수용인원은 135천인임

[표 3-9-17] 대구광역시 운영 체육시설 현황

(단위 : ㎡, 개, 인)

시 설 명	부지면적	경기장면적	좌석수	최대수용인원
합 계	764,072	211,127	105,175	135,250
시민운동장	99,985	46,597	26,032	38,150
대구스타디움	512,479	58,331	68,922	84,000
대구체육관	19,770	3,513	3,867	5,000
육상진흥센터	27,040	4,818	5,000	6,000
강변축구장 ¹⁾	51,300	47,870	1,150	1,500
파크골프장	22,502	22,502	-	300
리틀야구장 ²⁾	22,196	20,696	204	300
세천강변야구장	8,800	6,800	-	-

자료 : 2015 시정백서, 대구광역시, 2015

주1) 강변축구장 : 강변축구장, 산격강변축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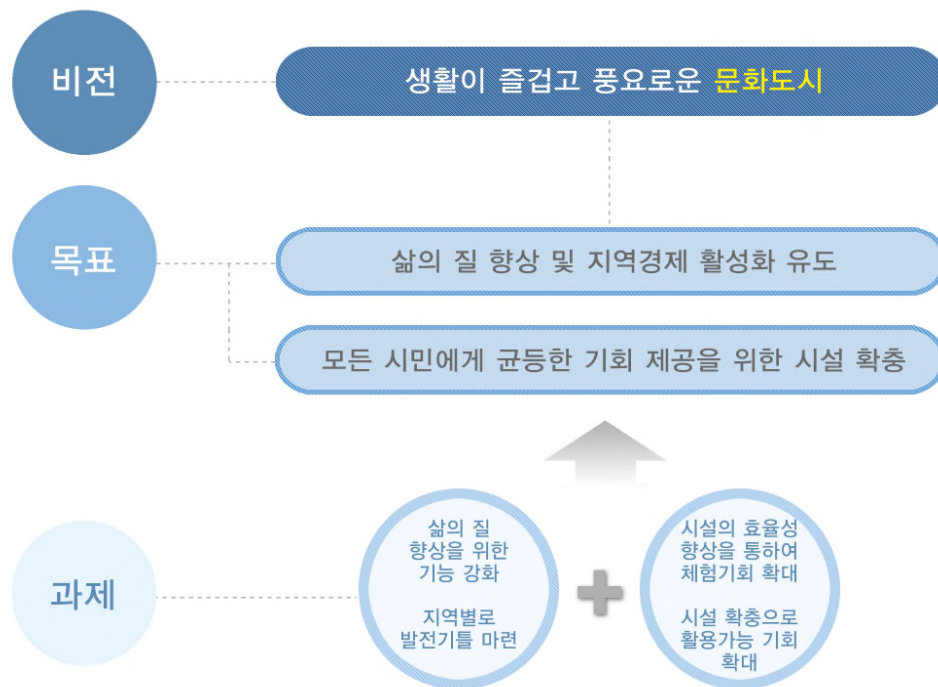
주2) 리틀야구장 : 강변, 세천, 봉무

나. 기본방향

1) 비전

❖ 생활이 즐겁고 풍요로운 문화도시

- 다양한 문화를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전을 「생활이 즐겁고 풍요로운 문화도시」로 설정함



2) 목표

❖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도

-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이 행복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과제 1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 강화
 - 과제 2 : 지역별로 발전기를 마련

❖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

-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화를 촉진함
 - 과제 3 : 시설의 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체험기회 확대
 - 과제 4 : 시설 확충으로 활용가능 기회 확대

다. 실천전략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 강화

❖ 생활 속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 수요의 다양화 및 시민참여욕구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주민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인프라의 확충 방안을 모색함

❖ 공동체 활성화로 개성있는 지역문화 육성

- 시민들의 취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2) 지역별로 발전기틀 마련

❖ 장소성과 역사성있는 문화자산 확보

- 지역의 독특한 역사성과 장소성을 가꾸고 관리하여 문화자산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강화함

❖ 전통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산업 육성

- 지역의 전통 자산과 현대의 조화를 유도할 수 있는 도시재생방식을 강화함

3) 시설의 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체험기회 확대

❖ 시설의 네트워크 강화

- 기존 문화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문화시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기능의 복합화 유도

- 이용객들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가변성이 극대화된 복합 문화시설을 공급함

4) 시설 확충으로 활용가능 기회 확대

❖ 연령별 특징을 감안한 문화공간 확충

- 도입 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이용 특성과 필요기능 등을 감안하여 문화공간을 확충함

❖ 지역별 특화된 문화진흥을 유도

-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기능과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의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유도함

3.9.5. 문화재·역사유적

가. 현황분석

❖ 문화재 보유현황

- 대구의 문화재는 249점이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가 79점, 지방지정 문화재가 107점, 문화재 자료가 52점, 등록문화재가 11점이 지정되어 있음
-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가 3점(국립대구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제182호인 금동여래입상 등), 보물 61점, 사적 7개소, 천연기념물 2점, 중요민속 문화재 5점, 국가 무형 문화재 1점이 지정되어 있음
- 지방지정 무노하재는 유형문화재가 69점, 무형문화재가 17점, 기념물이 17점, 민속 문화재가 4점이 지정되어 있음
- 기타 문화재로는 문화재 자료가 52점, 등록문화재가 11점이 지정되어 있음
- 2015년 말 현재 박물관은 국립대구박물관, 경북대, 계명대, 대구교육대 등의 4개소가 입지하고 있음

[표 3-9-18] 문화재 현황

(단위 : 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199	205	222	232	237	249
국가지정문화재	61	67	69	72	78	79
국 보	3	3	3	3	3	3
보 물	44	50	52	55	60	61
사 적	7	7	7	7	7	7
천연기념물	2	2	2	2	2	2
중요민속문화재	5	5	5	5	5	5
국가무형문화재	-	-	-	-	1	1
지방지정문화재	87	87	98	103	101	107
유형문화재	50	50	60	65	64	69
무형문화재	16	16	17	17	16	17
기념물	17	17	17	17	17	17
민속문화재	4	4	4	4	4	4
문화재자료	43	43	47	47	47	52
등록문화재	8	8	8	10	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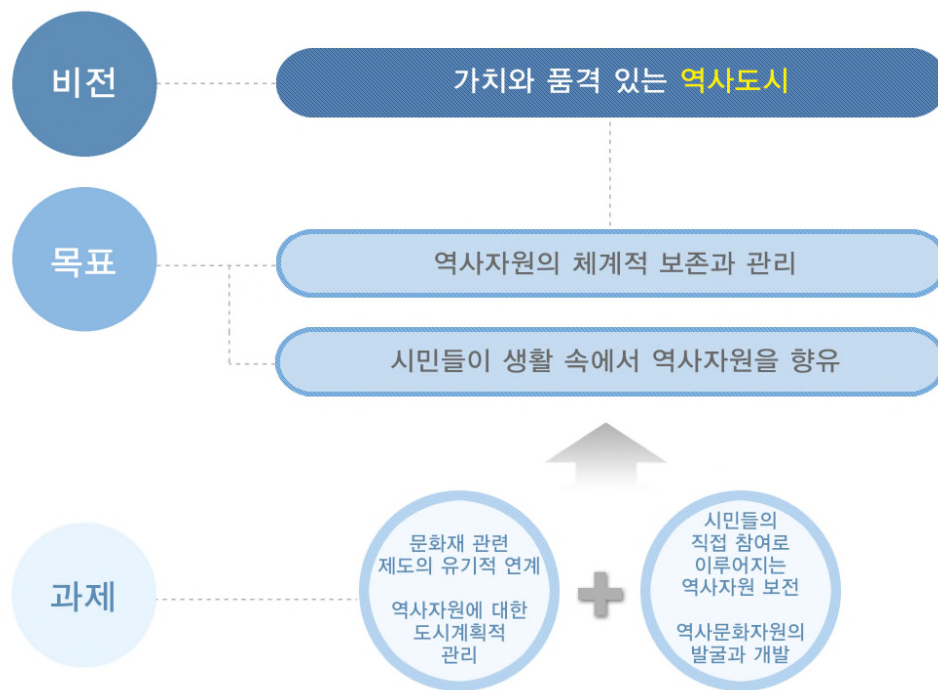
자료)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2016

나. 기본방향

1) 비전

❖ 가치와 품격 있는 역사도시

- 역사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하여 대구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치와 품격 있는 역사도시」로 설정함



2) 목표

❖ 역사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 역사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역내 역사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
 - 과제 1 : 문화재 관련 제도의 유기적 연계
 - 과제 2 : 역사자원의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

❖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역사자원을 향유

- 시민들이 역사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유적의 보존과 관리 활동에 쉽게 접근하고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
 - 과제 3 :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역사자원 보전
 - 과제 4 :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개발

다. 실천전략

1) 문화재 관련 제도의 유기적 연계

❖ 관련 제도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

- 문화재와 도시계획 관련 부처들 간의 상호협력을 견고히 하고 관련 제도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함
- 역사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2) 역사자원의 도시계획적 관리

❖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보전·관리방안 마련

-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는 도시계획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문화재 보전과 도시계획의 연계를 강화함

❖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의 전환

- 고유한 지역특성과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역사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의 관점으로 정비방식을 전환함

3)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역사자원 보전

❖ 역사자원 보전의 중요성 인식 확산

- 역사자원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 매체나 인터넷을 활용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함
- 문화재지킴이운동 등과 같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

❖ 역사자원 보전계획의 실행력 제고

-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역사자원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함
- 보전가치가 있는 역사자원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4)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개발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 구시가지의 흔적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역사문화자원을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3.10. 계획의 실행

3.10.1. 재정현황

가. 재정자립도

- 2015년 기준 대구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53.1%로 전국 평균 50.6%보다 높으나, 전국 7대 주요도시 중 6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임
- 대구광역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 동안 0.19%, 0.75%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10-1] 주요도시 재정자립도

(단위 : %)

구 분	전 국	대 구	서 울	부 산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2015년	50.6	53.1	84.3	56.8	64.4	49.3	54.9	72.0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3-10-2] 대구광역시 지방재정자립지표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년	증가율
재정자립도 ¹⁾	53.5	52.8	51.8	51.7	53.1	-0.19
재정자주도 ²⁾	74.1	75.4	75.0	73.2	71.9	-0.75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1)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주2)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나. 재정규모

❖ 세입 세출은 10% 이하의 증가 추세임

- 2015년 말 결산기준 재정규모는 세입이 11,500,292백만 원으로 최근 5년동안 연평균 8.8%의 증가 추세를 보이며, 세출은 9,789,915백만 원으로 5년동안 연평균 7.4%의 증가 추세를 보임
- 세입의 증가율이 세출의 증가율보다 높아 잉여금은 연평균 18.2%로 증가하고 있음

❖ 일반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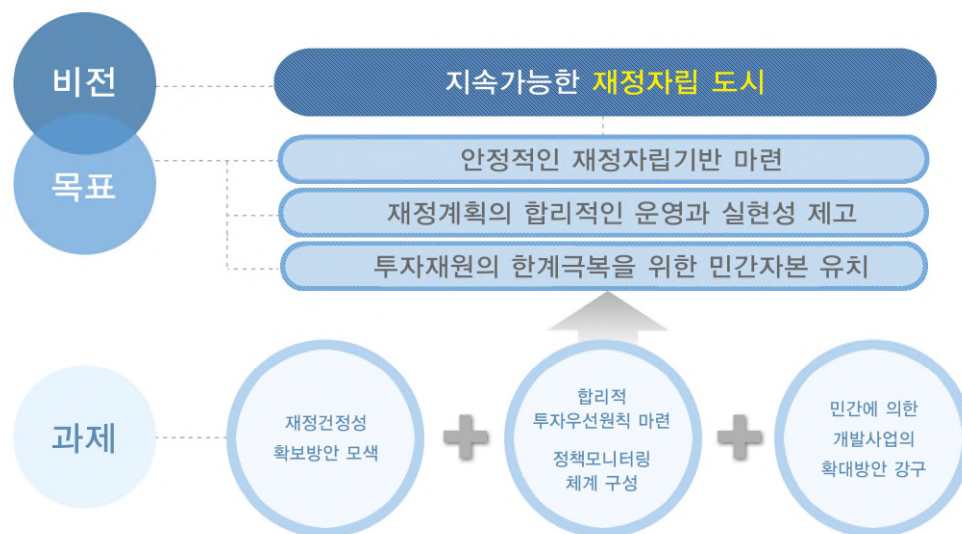
- 2015년 말 예산기준 재정규모는 11,321,148백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201,308백만 원으로 81.3%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2,119,840백만 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음

3.10.2. 기본방향

가. 비전

❖ 지속가능한 재정자립 도시

- 재정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분권적 지방재정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자립기반의 확충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명한 집행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재정자립을 위하여 비전을 「지속가능한 재정자립 도시」로 설정함



나. 목표

❖ 안정적인 재정자립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함
- 과제 1 : 재정건정성 확보방안 모색

❖ 재정계획의 합리적인 운영과 실현성 제고

- 적재적소에 재원 투입 원칙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실현성을 제고함
- 과제 2 : 합리적 투자우선원칙 마련
- 과제 3 :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성

❖ 투자재원의 한계극복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 제3섹터의 참여에 의한 자본과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한 투자재원의 한계를 극복함
- 과제 4 : 민간에 의한 개발사업의 확대방안 강구

3.10.3. 실천전략

가.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모색

❖ 자체재원의 확보방안

- 소규모 사업별로 한정된 재원을 분산하기 보다는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개발 효과가 가장 큰 분야를 중심으로 단일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집중투자제를 운영함
- 국공유재산을 정밀조사하여 수입원으로 확충할 뿐만 아니라 국공유 재산의 임대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대함
- 이벤트사업, 택지개발사업, 시장사업, 관광사업 등과 관련된 지방공기업을 활용하여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대에 전력함

❖ 국가재원의 확보방안

- 교부세율의 증대와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국세항목의 지방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 등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함
- 국고 보조비가 낮아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이나 재정부담 능력에 따른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여 보조금을 확대함

나. 합리적 투자우선원칙 마련

❖ 투자계획의 기본방향

- 국가목표와 연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계획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장기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함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가용투자재원을 산출하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되 각 단계별로 변화요인 발생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의 융통성 제고함
-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함

❖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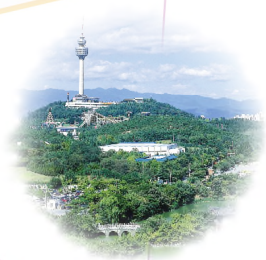
- 도시성장과 인구정착에 기여하고 도시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 사업
-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여가 및 휴양시설 마련을 위한 시설과 문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사업
- 생활권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사업
- 제3섹터 참여로 사업계획과 자원조달이 확정된 개발사업
-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사업

다.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성

- 계획의 실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문별 계획지표의 단계별 달성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함
- 모니터링 체계는 시민, 전문가, 대구시, 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체계를 조직하여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함
- 모니터링을 통하여 검토된 사항은 5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정비시 반영하여 계획지표의 실현성과 적시성을 제고함

라. 민간에 의한 개발사업의 확대방안 강구

- 도시발전을 위한 민자에 의한 개발사업의 확대방안 강구 및 개발이익의 적극적인 환수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관련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함
-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은 투자규모가 큰 반면 유지관리비 회수가 긴 사업은 민자유치를 유도하고 제3섹터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함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